

# 太白文化

第十一輯



太白文化院



# 文藝中興宣言

우리는 民族中興의 歴史的 전환기에 처하여 새로운 文化創造의 使命을 切感한다.

한 겨레의 運命을 決定짓는 根源的인 힘은 그 民族의 藝術的 文化的 創意力이다. 藝術이 創造力을 잃었을 때 겨레는 침체되고 文化가 自主性を 찾았을 때 나라는 興한다. 新羅 統一의 偉大한 업적과 世宗時代의 文化創造는 이를 證明한다.

우리는 길이 남을 遺産을 開發하고 民族的 正統性を 이어받아 오늘의 새 文化를 創造한다. 盲目的인 復古傾向을 警戒하고 分別없는 模倣行爲를 배척하며 천박한 頹廢風潮를 一掃하여 우리 藝術을 확고한 傳統속에서 꽃피우고 우리 文化를 튼튼한 主體性에 뿌리박게 한다.

우리는 祖國의 現實을 直視하고 榮光된 겨레의 來日을 위하여 價値意識과 史觀을 바로잡고 表現의 自由와 文化의 自主性を 함께 누리며, 곳곳마다 文化의 殿堂을 세워 온 겨레가 함께 藝術을 즐기도록 한다.

우리는 自身の 姿勢를 새롭게 가다듬어 우리의 업적이 世界에 부각되도록 힘쓰며, 文化의 활발한 國際交流를 통하여 人類文化에 이바지할 것을 다짐한다.

이에 모든 藝術家 모든 文化人들은 온 國民과 同參하는 隊列에 서서 藝術과 文化를 아끼고 사랑하는 風土를 造成하고 정성을 다해 文藝中興을 이룩할 것을 宣言한다.

1973년 10월 20일



## 지역문화선언

우리는 지금 거대한 변화에 직면해 있다. 밖으로는 국경과 이념을 넘어선 세계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안으로는 지역주민 스스로에 의한 자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진정한 국민복지와 삶의 질에 대한 관심 또한 급속으로 증대하고 있고, 정보화사회의 진전은 이 모든 것을 촉진하여 근본적으로 새로운 문화적 삶의 양식을 창출해 내고 있다.

우리는 이 변화의 시대를 바로 이해하고 슬기롭게 대처하기 위하여 지역문화의 특수성을 확인하고 지역문화예술을 통한 삶의 풍족함을 창조해야 한다고 믿는다. 이제 문화예술은 복지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며, 개인에게 있어서도 문화감수성의 역량이 곧 그 자신의 삶의 질의 결정요소임을 알게 되었다.

우리는 물질주의 가치에만 치우쳐 왔던 자세를 반성하고, 국민 모두의 일상적 삶을 문화적으로 충실한 삶이 되도록 하는 것이 당당한 세계인으로서 살아가는 조건임을 확신한다.

이제 우리는 지역문화시대의 도래를 믿으며 다음과 같이 노력할 것을 다짐한다.

첫째, 우리는 각 지역의 고유한 특성을 뿌리로 한 문화적 발전을 추구한다.

지역문화의 특수성을 튼튼히 할수록 민족문화와 세계문화의 다양성은 더욱 풍요롭게 될 것이다.

둘째, 지역문화예술에 대한 애착과 자긍심은 지역자치의 뿌리이다. 이제 우리의 삶의 터전을 문화적 자존심으로 새롭게 일구는 실천적 운동을 시작하여야 한다.

셋째, 문화적 삶이란 스스로 참여하는 창조하는 삶 그 자체이다. 지역의 자생적 문화단체의 활동이 최대로 활성화되도록 돕는 일이 문화행정의 책임과 의무이어야 한다.

넷째, 국민적 차원에서는 지역문화진흥의 중요성이 새롭게 인식되어야 한다. 중앙정부와 지역자치 단체의 문화적 발상을 대전환하기 위해 우리는 실질적인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이다.

1995. 11. 1

지역문화행정 전문가 일동





최초 석탄발견지탑 제막식 광경



제12회 태백시 남녀 백일장 대회





97년도 제1기 태백문화학교 수료식



태백문화학교 수료생 작품전시회(황지연못에서)





97년도 제2기 태백문화학교 수료식



태백산 천제 광경



# 太白文化 第十一輯

■문예중흥선언.....	5
■지역문화선언.....	6
■97년 문화원 화보.....	7
■차례.....	10
■발간사..... 우성조	14
■97년 향토문화소식.....	16
■태백지역 향토문화축제의 관광상품화 방안 ..... 채용식	28
■태백의 소리 발현과 명물 창조를 위한 「태백의 종」 설치 제안 ..... 이명진	70
■바람직한 축제모형에 관한 제안 ... 배일환	80
■관광산업은 굴뚝없는 공장..... 송병옥	90
■색탄기..... 김정수	98
■고원약조 테마파크 ..... 장성일	104
■연의 유래와 풍속 및 기원..... 김판용	108
■태백지방의 세시풍속 ..... 김강산	120
■제12회 태백시 남녀 백일장	
◆중등부	
시 장원/ 내가 바위라면 ..... 김민정	138
차상/ 바위와 나 ..... 권미화	140
차하/ 바위앞에서 ..... 김재청	142
차하/ 금가지 앓은 바위찾기... 김남희	143
시조 장원/ 구문소..... 김수정	144



	차상/ 구문소.....	권경배	145
	차하/ 물길.....	김병기	146
	차하/ 돌바위 .....	김혜민	147
<b>신문</b>	장원/ 아빠의 사랑만큼.....	최창희	148
	차상/ 우리 사는 세상 .....	최다경	150
	차하/ 바위가 나에게 준 몇가지 가르침 .....	권수전	152
	차하/ 바위 .....	최가영	154

#### ◆고등부

<b>시</b>	장원/ 바위 .....	박은미	156
	차상/ 구문소 .....	황윤희	158
	차하/ 구문소 .....	윤순희	160
	차하/ 바위 .....	신선화	161
<b>시조</b>	차상/ 바위 .....	김인식	164
	차하/ 할머니 .....	천성이	165
	차하/ 구문소 .....	김현주	166
<b>신문</b>	장원/ 약수터 바위.....	김기효	168
	차상/ 외할아버지 .....	이주영	170
	차하/ 흔들리는 바위.....	김선남	173
	차하/ 구문소 .....	심장우	175

■태백문화원 연혁.....	178
----------------	-----

■97년도 사업계획 .....	180
------------------	-----

■태백문화원 임원 및 회원 명단 .....	182
-------------------------	-----







# 太白文化

第十一輯

太白文化院



## 발 간 사



禹 星 祚  
太白文化院長

올해는 문화유산의 해였다. 태백은 여느 고장처럼 문화유산이 많은 지역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백은 우리 나라 모든 문화의 뿌리가 되는 땅이다.

태백산 정상에 있는 천제단은 우리 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축조물로 그 역사가 4천년도 넘었으니 문화 유산으로 친다면 최고의 유산이다.

이러한 유산을 간직한 태백산은 국토의 뿌리땅으로 한강 이남의 모든 산과 강의 뿌리가 되는 산이다.

한강의 기적이 그렇고 낙동강의 영남 선비문화도 사실은 그 뿌리가 태백인 것이다. 그것은 이들 강의 발원지가 태백에 있기에 그 강을 끼고 일어난 문화의 근원이 되기 때문이다.

어쩌다가 지금 온 나라가 IMF 때문에 모든 경제가 얼어 붙고 국제적으로는 경제 식민지라고 까지하는 망신을 떨고 있다.

태백도 예외는 아니어서 관광 도시로 가고자하는 길목에서 주춤거리고



---

있다.

투자자는 투자를 주저하고 정부에서는 지원금을 삭감하고자 하니 이러다 가는 특별법을 제대로 적용해 보지도 못하고 고원관광휴양도시로의 꿈이 좌절되지는 않을까 심히 염려가 되는 바다.

그러나 어쩔 것인가. 이 모든 난관을 극복하고 펼쳐 일어나야지 한강의 기적을 다시 일궈내야 하지 않겠는가.

그것은 사시사철 도도히 끊임없이 솟아오르는 한강의 발원지 검룡소의 정기가 다시 한번 온 누리를 덮어야 가능하리라

그러기 위해선 그 뿌리땅에 사는 우리들이 우리의 자연 유산을 아끼고 사랑하고 가꾸어 나갈 때 그 음덕으로 한강의 기적이 다시 도래할 것이다.



## 丁丑年 文化消息

### ■ 제4회 태백산눈꽃축제열려

눈과 낭만의 축제인 태백산눈꽃축제가 1월 19일에서 26일까지 태백산도립공원을 비롯하여 각행사장에서 열렸다.

올해로 4회째를 맞는 눈꽃축제는 19일 오후 4시 KBS태백방송국에서 개막식과 축하공연을 시작으로 태백산도립공원 당골광장에서는 20개팀이참가 눈조각경연대회가 있었으며, 가족눈사람만들기대회, 눈썰매대회등 각종행사에 많은 시민들이 참가해서 축제분위기를 고조시켰다.

### ■ 태백산의 명물 주목군락지 조성

천년을 살고 천년을 죽는다(生千死千)는 주목나무는 태백산의 명물, 태백시는 태백산정상부근에 볼거리를 관광객들에게 제공키위해 새로운 주목군락지를 조성키로 했다.

### ■ '97년 제1기 문화학교 운영

문화체육부 지정 태백문화학교(학교장 : 우성조)에서는 제1기 수강생을 모집하여 3개월간 교육에 들어갔다.

국악교실, 고전무용교실, 종이접기교실, 도자기교실, 한문교실, 가요교실, 칠보공예교실등 7개반 강좌를 1개반당 30명씩 모집해 4월~7월초까지 무료로 운영하였다.



특히, 가요교실은 120명까지 접수를 받을 정도로 많은 주부들이 모여 반응이 매우 좋았다.

## ■ 제12회 태백시 남여백일장 개최

태백문화원이 주최한 제12회 태백시 남·여백일장이 5월 30일 동점 구무소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열렸다. 시관내 중·고등학생 150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이대회는 시부문, 시조부문, 산문부문으로 나누어 중·고등부 각각 시상했다.

### - 중등부

산문부문 장원 최창희, 시부문 장원 김민정, 시조부문 장원 김수정.

### - 고등부

산문부문 장원 김기효, 시조부문 차상 김인식, 시부문 장원 박은미.

## ■ 이웃과 함께한 노인사랑

태백시 상장동 재산관리위원회(위원장:박태룡)는 제25회 어버이날을 맞아 노인 3백여명을 모시고 경로잔치를 열었다.

재산관리위원회는 1972년 순수민간단체로 발족, 생활이 어려운 열여덟 가구의 성적이 우수한 학생 5명을 선정, 장학금을 전달하고 4개 노인정에 월동 난방 연료비를 지급해오고 있다.

이날 참석한 노인들은 흥겨운 음악에 맞춰 춤과 노래를 부르며 잠시나마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 ■ 청소년을 위한 건전가요제 열려

태백경찰서와 경찰서청소년지도위원회가 공동주관하는 제7회 청소년 건전가요제가 5월 24일 오후 1시 30분 KBS태백방송국 공개홀에서 열렸다.



이번가요제는 시관내 각급학교에서 20개팀이 참가해 열띤 경연을 벌였고 단체상, 대상, 금상등 10개팀이 수상했다.

## ■ 세계최대 석탄박물관 개관

석탄박물관으로는 세계 최대규모를 자랑하게 될 태백산 도립공원내 태백 석탄박물관이 5월 27일 개관됐다. 홍순일 태백시장 등 2천8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관된 태백석탄박물관은 태백시가 1백 52억원을 들여 지난 94년 6월에 착공, 부지 7천2백60평에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2천21평 규모로 건립됐다.

8개소의 실내전시관과 대형 전시물을 보여줄 야외전시장 등이 있으며 전시장 연장이 1천3백 37m에 달해 모두 돌아보면 2시간 가량이 소요된다.

전시장에 19공탄 제조를 괴탄난로 석탄폐석에 남겨진 대형 고사리 화석등 석탄산업의 어제와 오늘을 살펴볼 수 있다.

## ■ 태백 주부 수영교실 열려

제1회 태백시 생활체육 주부수영교실이 6월 3일~7월 11일까지 태백시 학생수영장에서 열렸다.

태백시 생활체육협의회(회장:김철화)가 주최하고 태백시 수영연맹(회장:백충상)이 주관한 이번 주부 수영교실의 참가비는 1만원이다.

## ■ 태백중학교 학도병 추념식

6.25한국전쟁 당시 학도병으로 참전했다 산화한 태백중학생들의 충혼을 기리는 추념식이 현충일인 6월 6일 오전 10시 태백시 태백중학교 교정 충혼탑에서 거행됐다.

## ■ 교육수강생 모집



태백시 근로청소년 복지회관은 6월 7일~28일까지 97년도 하반기 취미교육 수강희망자를 모집했고, 과목으로는 테니스, 사진, 서예등 17개 과목이다. 수강정원은 3백 66명이다.

## ■ 제12회 태백산철쭉제 열려

태백산철쭉제가 6월 7일 개막되어 8일까지 이틀동안 다채롭게 펼쳐졌다.

12회째를 맞는 올해 태백산 철쭉제는 7일 오후 6시 태백산도립공원 당골광장에서 풍물놀이와 개회식 산신제 보디빌딩시범경기 캠프파이어 열기구축하비행 등 전야제를 시작으로 8일 오전에는 태백산등산로에서 자연보호 등산대회를 가졌다,

이어 8일 오후에는 태백산 천제단에서 도민체전 성화채화식을 갖고 통일기원 촛불대행진이 열렸다.

또, 태백산도립공원 당골광장에서는 에어로빅시연, 시민노래자랑, 철쭉미인선발대회가 있었다.

이와 함께 행사기간 동안 당골광장에서 태백아마추어 무선동우회원들이 축제 상황을 전국에 알리는 공개행사를 갖기도 했다.

## ■ 무료 주부영어교실 열려

태백시 BBC외국어학원이 7월 13일부터 기초생활영어를 위주로 하는 「주부 영어교실」을 무료로 운영했다.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 태백사무소가 후원하고 BBC외국어학원이 운영하는 이번 주부영어교실은 외국인이 직접 주2회 2개월코스로 강의했으며 수강생은 연중 수시로 모집했다.

## ■ 최초석탄발견지 기념탑 제막식



최초석탄발견지 기념탑 제막식이 7월 4일 오후 2시 태백시 장성2동 속칭 금천동(黔川 일명 거무내미)먹돌배기에서 홍순일 시장, 우성조 태백문화원장을 비롯한 기관단체장과 주민등 1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태백문화원이 1천5백여만원을 들여 건립한 최초석탄발견지 기념탑은 지난 1921년께 당시 상장면사무소에 근무하던 장해룡씨(당시 17세)가 괴탄을 처음 발견했던 장소에 세워졌다.

### ■ '97년 제1기 태백문화학교 수료식

제1기 태백문화학교수료식이 7월7일 태백문화원 강당에서 있었다.

3개월 과정으로 가요교실, 국악교실, 도자기교실, 칠보공예교실, 가요교실,한문교실, 고전무용교실등 총 7개 강좌를 실시한 문화학교는 130여명이 수료했다.

### ■ 태백청소년 작은 음악회 열려

태백지역 청소년들을 위한 순수 음악회인 한여름밤의 작은 음악회가 7월 5일 오후 6시 30분 KBS태백방송국에서 지역청소년등 1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벤트 기획업체인 하나기획 주관으로 열린 이날 음악회에선 올바른 음악감상법 가요의 시대적 변천사 추억의 희망곡소개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펼쳐졌다.

### ■ 월간 '태백誌' 발간

태백시는 시정홍보와 공지사항 미담사례 사업추진등 태백시 전반에 걸친 다채로운 내용을 소개하는 소식지 「태백지」를 발간했다.

태백지는 앞으로 매월 2만부를 발행, 지역탐방을 통한 지역소식지역활과 주민알권리 충족, 출향인을 위한 지역소식 홍보등의 역할을 하게 된다.



## ■ 태백 황지초등학교 환경보전 포스터 전시회 열려

태백시 황지초등학교가 포스터, 글짓기 등 학생들의 환경보전 작품을 학교담에 전시, 일반인들에게 환경보호의식을 심어주고 있어 눈길을 끌었다.

지난 7월 8일부터 전교생 1천4백여명이 참가해 만든 포스터, 표어, 사진, 글짓기 등 5백여점을 전시하고있는 환경보전작품전시회는 7월 12일까지 계속됐다.

## ■ 제1회 한강대제 개최

태백문화원은 유두인 7월 19일 한강발원지인 태백시 창죽동 검룡소에서 여름 물축제인 제1회 한강대제를 열었다.

한강대제는 7월 19일 오전 11시 검룡소에서 풍년과国泰民安을 기원하는 용신제로 시작되었고 물먹기대회와 유두면 시식회등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졌다. 또한, 한강 5백14km의 발원지인 검룡소는 1일 평균 1만여t씩의 지하수가 솟아나 오는데다 최근 폭우로 수량이 증가, 축제참가자들의 이날 더위를 한층 더 커진 물소리로 식힐수 있었다.

제1회 물먹기대회 입상자 : 빨리먹기부문 1위 차옥자

많이먹기부문 1위 이상길

## ■ 제1회 태백산 쿨 시네마 페스티벌 개최

시원한 태백산 기슭에서 펼쳐지는 제1회 「태백산 쿨 시네마 페스티벌」이 태백산도립공원 당골광장 야외특설무대에서 8월 2일 오후 7시 30분 전야제인 한민족 예술단의 초청공연을 시작으로 3일 오후 8시 가족만화영화인 「헤라클레스」를 상영했다. 태백산 쿨 시네마 페스티벌은 「사람 자연 그리고 영화」를 주제로 9일까지 계속 상영됐다.

산재근로자 위문을 겸한 한민족예술단의 초청공연에는 1천5백명의 외지관광객과 태백시민이 무료로 입장한 가운데 한여름밤 솔바람 부는 태백산 자락에 신명



나는 풍물과 소리 그리고 춤판이 어우러졌다.

제1회 태백산 쿨 시네마 페스티벌은 당초 예상했던 관람객의 3배가 몰려 반응이 매우 좋았다.

### ■ 청소년 길거리 농구대회 열려

태백시 문곡동 통장협의회는 올해로 2회째인 길거리 농구대회를 개최해 좋은 반응을 얻었다.

올해는 50개팀이 참가해 기량을 겨뤘고 이대회를 통해 마을화합과 건전한 놀이문화를 조성하는 계기가 되었다.

### ■ '97년 제2기 태백문화학교 운영

문화체육부지정 태백문화학교(학교장 : 우성조)에서는 제2기 수강생을 모집하여 3개월간 교육에 들어갔다.

고전무용, 종이접기, 칠보공예, 도자기, 한문, 가요, 국악교실등 총7개 강좌를 3개월 코스로 무료로 운영했다.

### ■ 태백문화학교동문회 불우이웃돕기

태백문화학교 동문회(회장:이숙영)는 8월 30일 일일찻집 수익금 1백여만원으로 쌀 4백80kg을 구입 불우 이웃 14세대에 전달했다.

### ■ 백두산 천지·황지물 합수식

9월 4일 오후 2시 1천 3백리 낙동강 발원지인 태백시 황지동 황지에서 백두산 천지물과 황지물의 합수식이 열렸다. 이날 천지물과 황지물의 만남은 한·중 합작 자동차운전학원설립을 위해 중국 하북성 성도 석가장을 방문했던 홍인표씨가 한민족의 평화를 염원하는 뜻에서 천지의 물을 가져와 이뤄졌다.



## ■ 태백 무료 궁도교실 열려

태백시 궁도협회는 9월 9일 오후 4시 태백시 상장동 상장중학교 옆 연무정에 서 궁도무료교실을 열었다.

수강생 1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오는 12일까지 속개될 궁도무료교실에선 궁도예절과 활쏘기 요령등을 교양했다.

## ■ 연화산 산신제례 올려

태백시 황지1동 주민들은 9월 11일 오전 11시 연화산 산신당에서 홍순일 태백시장등 지역주민 3백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지역주민의 안녕과 만수무강을 기원하는 연화산 산신제례를 지냈다.

연화산 산신제례는 태초부터 내려오는 민간신앙으로 매년 음력 8월 10일 산신에게 제물로 소를 잡아 제를 올리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 ■ 태백 전국사진공모전 당선작 발표

태백시 문화예술단체 협의회는 지난 7월 공모했던 제 7회 태백전국사진공모전 입상작을 발표했다.

△금상=눈꽃축제(전현식·서울)

△은상=검용소(안영식·태백) 대화(엄학률·태백)

△동상=농부(송영부·동해) 산상에서(권용후·태백)

## ■ 「어제·오늘·내일」 발간

태백시 근로청소년복지회관이 태백시민의 정서함양과 건전한 여가선용을 돕기 위한 「어제·오늘·내일」이란 홍보책자를 발간, 시민들에게 배포했다.

1천2백부가 제작된 양면 12쪽 분량의 이 책자는 근로청소년복지회관의 운영 실적과 향후 운영계획등의 내용이 실려있어 시민들이 회관을 이용하는데 편리하



도록 꾸며져 있다.

이책에는 85~96년까지 근로청소년과 주부등 수강생의 작품을 수록한 어제의 결실과 97년도의 보람된 오늘, 98년도 추진계획을 실은 희망찬 내일, 문예활동, 회관시설 이용안내등 다채로운 내용을 수록하고 있다.

## ■ ‘태백시의 역사와 문화유적’ 발간

태백시는 9월 23일 지역의 향토사 연구서인 「태백시의 역사와 문화유적」 1천부를 발간, 전국 도서관 등에 배부했다.

「태백시의 역사와 문화유적」은 3백63쪽 분량으로 태백시의 유적과 전통 건축양식 민속자료등이 소개됐다.

## ■ 태백 제1회 노인의 날 행사 열려

제1회 노인의 날 행사가 10월 2일 오전 11시 진폐복지회관에서 홍순일 시장, 김홍수 시의회의장등 기관단체장과 노인회원등 3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경로효친사상을 고취하기 위하여 처음 마련된 노인의날 행사는 모범노인과 모범경로당에 대한 시상이 실시되는 기념식에 이어 황지적십자부녀회가 주선하는 경로잔치를 베풀어 노인들에게 즐거운 하루를 보내도록 했다.

## ■ 태백시 캐치프레이즈 선정

태백시는 21세기를 향한 캐치프레이즈로 「아름다운 고원도시 발전하는 관광태백」을 선정했다.

지난 6월부터 2개월동안 관광휴양도시를 상징할 수 있는 캐치프레이즈를 시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모한 결과 최우수는 「아름다운 고원도시, 발전하는 관광태백」 우수는 「수려한 자원, 깨끗한 도시 태백시의 자랑입니다」 장려는 「관광



땅 미래의 희망 2천년대의 태백으로」가 뽑혔다.

## ■ 제16회 태백제 열려

제16회 태백제가 10월 3일 전야행사를 시작으로 막이 올랐다.

10월 4일 오전 태백종합경기장에서는 개회식과 함께 마스게임, 농악시범등 식전,후 행사가 화려하게 펼쳐졌다.

특히, 이번 태백제는 풍물야시장까지 열려 태백시민들의 호응이 매우 좋았다. 또한 10월 4일 오후에는 한마음신험 대강당에서 시조명창 손명자씨 초청공연이 있어 우리가락의 흥을 돋우었다.

## ■ 태백산 천제 올린다

단기 4330년 10월 3일(개천절) 오전 11시 태백산 정상 천제단에서 많은 시민들이 참가한 가운데 천제가 진행됐다. 태백산 상상봉 천제단에서 거행된 천제는 태백산천제위원회(위원장:김강산)에서 주최 태백라이온스클럽에서 주관한 범민족적인 제사로서 민족의 통일과 민족의 미래 영원한 인류의 평화를 구하고자 올려지고 있다.

이날 태백산 정상에는 전국각지의 뜻있는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룬 가운데 영신굿 강신 진설 참신 주유 헌작 고천 송신 소지 순으로 의식이 행해졌고 배달 민족이면 종파 종교와 상관없이 누구나 참가가 가능하다는 이 태백산 천제는 한 민족은 하나임을 고하는 제사인만큼 전국적인 행사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 ■ 태백 용연동굴 개장

10월 31일 오후 2시 홍순일 시장을 비롯 각급단체장들과 일반관람객등 1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장되었다.

개장식에선 동굴관리사무소 현판식, 동굴제막식과 함께 무궤도 관광열차인 트



램카 시승식을 갖는등 각종 부대행사가 펼쳐졌다.

전국에서 가장높은 해발 930m에 위치한 용연동굴은 대형 종유석·석순을 비롯 동굴산호 석화 유석 베이컨사이트 등 석회동굴 2차생성물이 산재해 있어 동굴관광을 만끽할 수 있다.

총연장 1천8백84m의 수평동굴로 높이와 폭이 30m, 길이 1백50m의 대형광장을 포함, 4개의 광장이 있으며 국내 동굴로는 처음으로 분수와 폭포 등 4개의 인공시설을 설치, 자연미에다 인공미를 가미한 것이 특징이다.

### ■ '97년 제2기 태백문화학교 수료식

문화체육부 지정 제2기 태백문화학교수료식이 12월1일 태백문화원에서 있었다. 국악교실을 비롯 도자기, 칠보공예, 가요교실등 총 7개 강좌를 실시한 이번 수료식은 150여명이 수료했다.

이번기에는 국악교실의 반응이 매우 좋았다.

### ■ 문화학교수료생들의 작품전시회

태백문화학교 수료생들의 작품전시회가 12월 2일 오전 10시 태백문화원 강당에서 열려 12월 5일까지 전시됐다.

이번전시회에는 칠보공예 50점, 종이접기 40점, 도자기 40점등 태백문화학교 수료생 작품 130여점이 전시되었다.

### ■ 경제살리기 알뜰바자회 열려

태백시 여성단체 협의회는 12월 12일 오전 10시 황지 연못에서 지역과 국가 경제살리기 운동의 일환으로 알뜰바자회를 열었다.

이날 바자회에선 중고 가전제품이나 가구 의류등이 판매되어 수익금 전액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기탁됐다.



## ■ 청소년 문학의밤 열려

한민족방언시학회 초청 제4회 태백시 청소년 문학의밤이 12월 20일 오후 6시 한마음신협예술관에서 개최됐다.

특히, 이번 문학의밤 행사는 시낭송회를 통해 관내 중·고등학생들이 문인들과 직접만나 대화를 통해 문학을 접하는 기회를 가졌다.

## ■ 시민위안잔치 개최

KBS태백방송국 개국 13주년을 기념하는 송년 태백시민위안잔치가 12월 22일 오후 2시 KBS태백방송국 공개홀에서 열렸다.

박상규씨의 사회로 진행되었던 이날 공연에는 가수 김국환, 전유나, 이진관, 전미경씨등이 출연했으며 태백시민들의 반응도 매우 좋았다.

정리 : 이명숙



# 태백지역 향토문화축제의 관광상품화 방안

-태백산 천제를 중심으로-



채 용 식

태성전문대학 특수관광산업과 교수  
행정학박사(관광정책 전공)

## 목 차

### 제1장. 서 론

제 1절. 문제의 제기

제 2절. 연구 목적 및 방법

### 제2장. 향토 문화 축제 개관

제 1절. 향토 문화의 개념

제 2절. 축제의 개념

제 3절. 향토 문화 축제의 현대적 의미

제 4절. 향토 문화 축제의 기능

### 제3장. 향토 문화 축제의 현황 분석

제 1절. 주요국의 향토 문화 축제 개관

제 2절. 한국의 향토 문화 축제 현황

제 3절. 태백지역 향토 문화 축제 현황과 문제점

-천제를 중심으로-

### 제4장. 태백지역 향토 문화 축제 관광상품화 개발 방안

제 1절. 향토 문화 축제 관광상품화의 의의

제 2절. 태백지역 향토 문화 축제의 관광상품화 방안

### 제5장. 결론



## 제1장. 서 론

### 제1절. 문제의 제기

고도로 발달된 후기 산업사회에서 현대인들은 물질적 풍요와 여가 시간의 증대로 점차 생활의 질(Quality of Life)을 가치있는 활동으로 추구하게 되었다. 더욱이 생활의 질 향상은 관광을 통해 시도되었으며 현대인들은 단순히 보고 즐기고 소유하는 관광활동의 즐거움에서 벗어나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과 탐구 그리고 대상물에 대해 이해하고자 하는 문화적 관광활동으로 그 욕구가 증대되고 있다.

민속, 문화, 음악, 무용, 신앙 및 향토축제 참가 등의 동적인 문화 관광자원은 무기력하고 타성에 젖은 靜的 觀光(static tourism)에서 벗어나 관광객에게 신선하고 흥미로운 관광활동을 제공해 준다는 점에서 현대 관광의 새로운 형태로 등장하고 있다.

한 국가 및 지역의 생활 수준 정도는 당해 지역 사람들의 정치 수준, 경제 수준은 물론 문화 수준을 판단하며 특히 문화 수준의 척도로서 여가·관광지표를 평가하여 그 나라 및 지역의 관광수준을 쉽게 알 수 있다.<sup>1)</sup>

특히 산업화와 근대화가 급속히 진행되었던 구미 각국에 있어서는 문화 관광이 중요한 생활의 일부가 되고 있기 때문에 현대에 있어 어떻게 전통적인 문화자원을 개발할 것인가 하는 것은 관광의 관심거리가 되고 있다.

우리 나라는 박물관, 역사적 건축물 등 많은 역사적 매력물과 민속음악, 예술

---

1) 김홍운, “한국전통민속극의 관광상품으로서의 개발연구”, 성곡논총 제2편, 1991, p. 167.



무용 같은 문화적 매력물이 풍부한 문화적 유산을 가지고 있다.<sup>2)</sup>

그러나 문화 관광자원이 풍부함에도 불구하고 도시화와 산업화 과정에서 많이 훼손되고 있으며 계속적으로 발굴, 정비 및 복원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더욱이 한국의 문화 관광자원 개발은 전 세계적으로 賦存資源의 문제가 크게 대두되어 자원을 무기화하는 추세와 관광객들의 특별 관심 여행(Special Interest Tourism)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짐에 따라 논의가 본격 진행되었다. 그 이전의 관광자원 개발은 자연 관광자원을 정비·개발하고 유형문화재에 대한 보존과 개발 및 이들 관광자원의 이용에 필요한 편의시설과 보완시설의 개발에 역점을 두어 왔다. 부분적이지만 무형문화재와 향토 축제에 대한 관광자원 개발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어 왔지만, 관주도의 경제 발전 성장 시대에는 문화자원에 대한 개발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의지가 매우 소극적이었던 것이 주지의 사실이다.

한 국가 및 지역의 고유한 문화 관광자원은 훌륭한 관광자원으로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를 이용하여 그 나라 및 지역의 국토성, 역사성, 민족성, 지역성 및 생활상이 반영되는 독특한 관광자원을 개발함으로써 세계 각국 및 각 지역은 자기들 문화의 우수성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문화 관광자원 중 태백지역의 향토축제 문화자원을 적극 개발함으로써 대내적으로는 급증하는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관광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우리 지역 문화에 대한 재인식의 기회를 부여하고, 대외적으로는 독특하고 고유한 한국적인 문화의 우수성을 국가 차원에서 홍보하여 한국에 대한 이미지 제고는 물론 태백의 지방화 시대를 실현할 수 있는 자주 재원확보 방안으로 그 우선 순위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활성화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

2) Key Sung Chon, "Tourism destination image modification process marketing implications", Tourism management, 1991, Vol. 12, p. 70.

3) 이장춘, 관광자원론(서울 : 대왕사, 1990), p. 76.



## 제2절. 연구 목적 및 방법

이를 달성하기 위한 본 연구의 구체적 목표는

첫째, 문화관광과 문화 관광자원 개발의 논리를 고찰하여 향토문화축제의 상품화 방안을 모색한다.

둘째, 태백지역의 향토문화축제의 현황분석에 앞서 우리 나라 전역 및 외국의 향토문화축제 개발사례를 분석하고 향토문화축제 개발의 문제점을 도출, 상품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셋째, 태백지역 향토문화축제의 문제점을 바탕으로 향후 향토문화축제의 방향성과 구체적인 대안을 모색한다.

본 연구에서 도입된 연구 방법은 제1차적으로 문화관광자원 및 향토축제와 관련된 국내·외의 제자료를 수집·정리하여 문헌 조사와 내용 분석을 실시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기술적 방법(descriptive method)을 도입하였으며, 또한 연구 자료의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해당 관청을 직접 방문하여 조사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담당자와의 면접조사도 병행 실시하였다.

## 제2장 향토문화축제 개관

### 제1절. 향토문화의 개념

“문화란 태어나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살면서 습득되어지는 것으로서 각 문화는 상호 관계를 갖고 있으며, 어떤 문화에 부딪치면 다른 문화에 영향을 준



다. 그리고 이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공유되어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가치관, 지식, 신념 체계 그리고 생활의 패턴”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 선조들은 예부터 이러한 문화를 사회계층에 따라 계문화로 나누기도 했지만, 오늘날 현대 문화와 더불어 과거부터 전해지는 전통문화로 각 지역에서 현존하며 계속 발굴, 창달되고 있다.

일본의 세이쇼우손씨는 “지역문화란 각각 고유한 특색을 갖고 있으며, 지역 문화가 갖고 있는 독자성은 역사라고 하는 시간의 종축과 지역간의 비교가 가능한 공간의 횡축을 두고 보지 않으면 해명할 수가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여기에서 전자는 지역문화의 전통의 문제이고 후자는 지역문화 개성의 문제<sup>4)</sup>를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지역문화의 전통이란 지역의 생활양식 또는 행동 동기를 지역 주민들이 자각과 긍지를 갖고 전승시켜 가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다. 따라서 지역 전통문화는 당해지역에 뿌리를 내린 지역색이 넘치는 생활문화의 부흥과 창조가 그 기반을 이루고 있다. 그러므로 지역색이 풍부한 개성있는 지역을 창조하기 위해서는 지역 주민들의 풍요한 삶을 영위할 수 있게 하는 시간과 공간에 대한 디자인이 요구된다.

시간과 공간의 구상을 실현시키고 주체적이고 적극적인 참여와 활동을 유발시키는 기반이 되는 것이 바로 향토문화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향토문화는 당해 지역사회를 구성하는 지역 주민들의 일상적인 삶속에서 생겨나며, 일상적인 생활문화가 그 중심이 된다. 또한 이것은 자신들의 생활을 보다 충실하고 윤택하며, 인간다운 삶이 되도록 주민 모두가 주체적으로 참가하고 창조해 가는 지역문화<sup>5)</sup>이다.

---

4) 井上俊, 「地域文化の社會學」, 日本世界思想社, 1984, p. 34

5) 咸碩鐘, “觀光對象化를 통한 郷土文化祭의 活性化 模型 開發에 關한 研究”, 漢陽大學校 大學院, 博士學位 論文, 1993, p. 32.



## 제2절. 축제의 개념

축제에 관한 정의를 살펴보면 다의적으로 해석되고 있다. 축제는 인간성 상실과 소외의 사회에서 인간애를 확인하고 살아있는 존재로서 자신을 느낄 수 있으며 일상적인 질서의 중압으로 시들어버린 잠재의식에 생명감과 활력을 공급해 줄 수 있는 것이다. 우리는 여기서 축제의 현대적 의미를 다시 발견한 것이다.

우리 나라의 이은봉씨에 의하면, “축제는 제의의 한 형태로 예술, 문화 및 놀이적인 의미가 가미되어 있다.” 고 했다.<sup>6)</sup> 즉, 축제는 넓은 의미의 祭儀의 한 형태로서 구조적으로는 비종교적인 제의성과 예술놀이적인 요소를 함께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축제는 이러한 일과 놀이, 즉, 생산과 유희의 연결고리로서 상호 보완과 규제기능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일하는 인간에서 놀이하는 인간(Homo Ludens)으로 뒤바뀌지는 것은 바로 축제라는 매체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따라서 축제는 생활공동체 구성원들이 노동과 속박에서 벗어나 풍요를 신에게 기원하며 벌이는 제의나 동시에 춤과 노래를 통해 자연스런 감정을 털어놓는 잔치며 놀이마당<sup>7)</sup>이다.

## 제3절. 향토문화축제의 현대적 의미

축제의 의미 파악은 사회의 역동적인 구조적 틀에서 파악해야만 그 의미가 가능하며 이러한 축제는 역사적 측면에서 전통축제와 현대축제로 공간적 측면에서

---

6) 이은봉, 「놀이와 축제」, 도서출판 주류, 1982, pp. 30-31.

7) 張正龍, “江陵端午祝祭의 傳承意味論”, 우리문화연구회, 1994, pp.



는 지역축제와 초지역적인 특별축제로 구분된다.

전통축제는 그 제의시기, 제의 지역, 제의 담당층, 제의 목적, 연행 방식, 참가자의 성별에 따라 여러 가지 명칭으로 불리워 왔으며 혼용된 명칭도 많다.

또한 전통축제는 주로 전통적인 지역축제로서, 개화기 이후 흔히 향토축제로 지칭되어 왔다. 향토예술, 향토예능, 향토민속놀이 등과는 상통하는 개념이다<sup>8)</sup>. 따라서 “향토문화축제”는 해당 지역 사회를 구성하는 지역 주민들의 일상적인 생활문화가 중심이 되어 이어져 오는 전통있고 개성있는 제의적 놀이마당의 성격을 띤 문화행위라고 정의할 수 있겠다. 이 향토문화축제는 일 년 중 어느 때 특정한 날을 정하여 몇 일을 놓고 즐기는 것으로 이루어지며, 궁극적으로 그 지역 사람들끼리의 존재를 서로 확인하는데 있다고 볼 수 있다.

#### 제4절. 향토문화축제의 기능

축제는 너와 나의 벽을 허물고 갈등과 반목의 고리를 풀어 “우리”라는 하나로 결집시키는 마당의 기능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축제 기능을 크게 분류해 보면 다섯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sup>9)</sup>

첫째, 억압된 인간의 감정과 행동 표현의 기회를 제공한다. 축제는 평상시에 억압되고 간과되었던 인간의 감정과 행동을 표현하는 기회가 된다. 이러한 축제의 기능은 우리 인간에게 많은 점을 일깨워 주는 것이다. 따라서 전통적이고 역사성있는 축제는 과거와 현재를 인간들에게 이어주고 현재의 축제 행위로부터

---

8) 서연옥, 「향토축제의 가능성과 미래」, 방일영문화재단주최 세미나초록집, 1994, p. 20.

9) 한국관광공사, 한국민속축제 관광상품화방안(서울 : 한국관광공사, 1990), pp. 13-14.



미래를 기약하게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둘째, 인간 본연의 가치를 발견하게 한다. 노동은 우리의 생활을 영위하는 수단은 될지언정 목표는 될 수 없는 것이다. 축제 기간동안 일상의 일손을 멈추고 잠시나마 전통과 환상속에 잠기게 함으로써 인간의 고귀함을 일깨워준다. 또한 축제는 역사의 연속성을 느끼게 하며 한 단계 높은 인간의 위치를 찾기 위해 다시 노동의 현장으로 돌아가게 한다.

셋째, 사회 비판성을 갖고 있다. 역사적인 한계성을 탈피하지 못하는 사회적 구조나 사회적 신분의 허망함을 일시적이거나 폭로하여 준다. 또한 축제는 표면적으로만 건설하고 질서 정연해 보이는 경직된 산업사회에 생명력을 불어 넣어 주고 인간의 생에 대한 긍정을 촉진시켜 준다.

넷째, 사회적·종교적 목적의 활동 수단이 된다. 개발도상국에 있어서는 지역이나 국가에서는 축제가 하나의 공동사회를 이끌어 가는 사회적 또는 종교적 목적의 한 활용 수단으로써의 역할을 다하고 있다.

다섯째, 문화교류의 가교역할을 하고 있다. 지역간·국가간에 관광객 등의 인적·문화적 교류와 병행하여 축제는 인간들의 새로운 의식, 새로운 관계 및 새로운 혁신 등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

## 제3장. 향토문화축제의 현황분석

### 제1절. 주요국의 향토문화축제 개관

세계의 각국과 민족은 그들만의 고유한 축제를 가지고 있다. 과거 전통적인



축제들은 산업화와 더불어 본래의 의미와 성격, 기능이 퇴색되어 하나의 볼거리와 상업주의적 양태로 변질된 것도 많다.

인도·대만 등과 같은 동양문화권에서는 고대 제의적, 종교적 성격의 축제가 아직도 많이 잔존하고 있지만 유럽이나 미주는 대부분이 산업, 예술, 문화 행사적 성격의 축제로서 대규모로 기획 실시되는 행사도 있고 산업축제적 성격의 박람회도 개최하고 있다. 또한 세계적으로 유명한 전통을 가진 축제도 있고, 각 지역의 생활을 기반으로 한 지역 단위의 축제도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외국의 이러한 축제들에 대한 관광상품화 전략은 해를 거듭할수록 내실화를 다져가고 있고 세계 각국에서 많은 관광객이 발길을 잇고 있다. 이러한 축제들은 향후 특별관심여행(SIT)으로 개인 및 소규모 집단들에 의하여 각광받는 목적지로 더욱 부각될 것이다.

## 1. 구주지역

구주지역에는 각종의 축제 및 문화 예술행사가 대단히 많으며, 기독교 문화를 바탕으로 크리스마스 부활 등 기독교적인 행사가 대대로 거행되는 것이 그 특징이다.

그 외에도 전통적인 성격의 행사, 음악과 문화예술, 전통무용, 연극, 스포츠 행사, 산업박람회 및 전시회 등이 그 주종을 이루는데 중세부터 시작된 지방행사에서부터 세계적으로 유명한 큰 규모의 음악과 문화축제가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된다. 현재 세계적인 칸느영화제나 베를린 제즈페스티벌, 음악페스티벌은 작은 규모의 향토축제가 해를 거듭함에 따라 자생력에 의해서 성장한 것들이다.

### 가. 주요 축제

#### 1) 음악 축제

축제는 집단적, 공동체적 성격으로 공통점은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것이며 20



세기 후반 현대과학, 기술의 발달 및 모든 사회계층의 자유로운 교류 추구 경향으로 급속한 변화를 겪어 왔으며, 2차대전은 중요한 변화를 초래하게 되었다.

첫째, 수적인 면의 확산화이다. 축제의 대부분이 주로 관광객을 끌기 위함이거나 특정 도시나 시골 지역의 이미지 개선과 상업 발달을 꾀한 것일지라도 유럽에서는 자신이 사는 곳을 잠깐 벗어나면 누구나 금방 마을이나 교회, 성(城) 주위에서 벌어지는 축제를 볼 수 있었다. 이렇게 확산된 주된 이유는 전쟁으로 지친 사람들이 새로운 대화의 길을 열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며 교통과 통신의 발달로 지역내 및 지역간, 대륙간에 여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이런 여행의 증가가 곳곳에 새로운 축제가 생겨날 수 있는 바탕이 된 것이다.

둘째, 축제의 성격 변화이다.

정통 클래식 프로그램을 내용으로 하는 음악축제에 현대나 초현대적 성격을 혼합하여 관중의 참여를 유도하고 대중과 음악가, 비평가들 사이의 공동 토론이 포함되고 재즈와 팝에 까지 개방된 것이 현대축제의 특징이다.

셋째, 모든 사람, 모든 것이 손쉽게 접촉될 수 있도록 그 참여 활동이 자발적이거나 조직적이거나 상관없이 어느 곳에서나 최대한의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축제의 경향이 있다. 고도 산업화의 사회에서도 카니발은 있다. 즉, 일상 생활에서의 소규모 행사와 정치적, 무역 단체의 대규모 행사 등이 축제로서 펼쳐지고 있다.

넷째, 축제의 조직자와 애니메이터의 역할 변화이다.

폐쇄된 공간의 제한성에서 벗어나 지역과 전도시(全都市)의 활용에 관심을 두어 거리와 광장, 공터가 무대가 되고 지역과 공간의 모든 장소에 문화적 기능을 부여하여 다용도의 자유로운 장소와 시설속에서 관객과의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다. 여기서 애니메이터(animater:축매)란 문화활동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고 창조와 수용을 보다 활성화시켜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것으로 '활성화'와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다섯째, 젊은이들이 미디어적 우상에 사로잡힌 현대 사회에 있어 대중 참여



문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젊은이들, 젊은 전문가와 학생, 아마추어와 대중의 참여이다.

## 2) 영화제

영화는 20C 산업, 상업, 광고, 기술종합의 여러 가닥을 한데 모아주는 매체로서의 이미지가 강하다. 2차 대전 이전부터 실험적이며 전위적인 영화가 선보이기 시작했으나 대전 후에야 확립되었다고 할 수 있다. 1950년에 일반적 형태의 영화제인 칸느, 에딘버러, 칼로비, 베리영화제를 시작으로 1951년 베를린 영화제, 1953년 산세바스티안 영화제, 1959년 모스크바 영화제 등이 생겼던 것이다. 근본적으로 영화는 전문화가 무한히 가능하므로 매년 각 전문 영역에서 새로운 영화제가 생기고 있는데, 다큐멘터리, 뉴시네마, 영사슬라이드, 만화영화, 코메디, 과학 이야기와 환상 이야기, 종교, 신앙, 농업, 스포츠, 관광, 교육, 어린이 등 일년에 약 150개의 영화제가 세계 도처에서 펼쳐진다. 그 규모도 대단하며 칸느 영화제는 3만 여명의 참가자가 모인다. 개도국에서도 공연예술보다는 정보·교류·평판에 더 효과적인 영화제를 개최하기 시작했는데 테헤란 영화제가 그 예이다.

3)기타 재배농산물, 꽃, 와인과 스포츠 행사, 각종 경주대회가 있어서 정말 유럽의 달력은 축제와 행사가 빠질 날이 없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축제와 행사는 대부분이 유럽 역내의 관광객이 참가하는 경우이고 미주나 아시아, 아프리카 등 원거리 지역에서 한 축제를 참가할 목적으로 패키지 상품으로 판매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단지 유럽 여행 계획시 이런 축제의 행사 일정을 고려해 조정은 할 수 있다.

## 2. 미주 지역

### 가. 미국

#### 1) 특징



미국의 축제는 크게 전국 단위의 축제와 각 주가 개최하는 축제로 대별할 수 있다. 미국은 짧은 역사로 인해 전통 민속축제는 별로 없지만 명절적 성격의 축제, 각종 현대적인 행사로서 연주회, 박람회 등이 수없이 개최되며 특히 기독교 문화에 역사적 사건·인물들과 크게 관련되어 있다.

첫째, 콘서트와 음악 페스티벌이 많다.

대도시나 중·소 도시든 간에 거의 모든 도시가 교향악단을 가지고 있어 연중 연주회가 끊이지 않을 만큼 프로그램이 많으며 이들은 대부분 야외에서 연주회를 하는 것이 특이한데 전적으로 예술공연만을 위한 국립공원인 The Wolf Trap Farm이 있을 정도이다. The Ohio Hills Folk Festival, The Grand Ole Opry 등의 축제와 중서부지역의 Polka Festival, Heidi Festival과 Swedish Day 등의 음악축제가 유명하다. 그 외에도 음악 애호가들이 모이는 유명한 야외음악 축제인 Monadnock Concerts, Trangle Wood Festival이 있고 재즈(Jazz)와 블루스(Blues) 연주회가 다수 있으며 종교음악합창제, 오페라, 중국식 오페라 등의 음악행사가 계속 이어진다. 이러한 것들을 모든 신문이 일요일마다 문화행사란에 실어 장소와 시간 등을 안내한다.

둘째, 아메리카 인디언과 그들의 전통악기와 관련된 음악회, 경연대회 및 전통 민속품의 전시회 등이 있다.

셋째, 각 지역 주요 농산물, 꽃 및 특산물과 관련된 박람회나 페스티벌이 많다. 딸기, 가재, 수선화, 단풍나무, 벚나무, 튜립 등 각 계절의 주요 축제나 특산물 축제가 유명한 정원이나 공원, 특산물 생산지나 집합 장소에서 개최된다.

넷째, 원주민인 인디언 관련축제가 초창기 서부 개척시대의 생활상과 관련된 축제가 다수 있다.

다섯째, 행사나 축제가 한 지역단위로 개최되므로 주최자는 관련 기관, 단체 등이며 전국적인 큰 규모라기 보다 그 지역민과 또한 직접 관련이 있는 사람들의 축제라고 할 수 있다.

여섯째, 어떤 행사이든 폐쇄된 공간(공원, 특수 행사장)에서 진행되므로 입장



료나 행사 참가비가 있으므로 내용이 더욱 알차게 이루어진다.

일곱째, 중서부 지역의 주(州)에서는 8월 중순의 주 박람회(State Fairs)를 개최하여 갖가지 농업과 관련된 행사 및 전시, 경매 등을 한다.

## 2) 관광상품화 현황

현재까지 미국에서는 전국 단위의 축제 및 각 주 마다의 축제를 상품화한 실례나 특별한 전력을 찾아볼 수는 없다. 주로 지역 주민들과 축제의 주요 테마와 관련된 사람들과의 「모임의 場」으로의 성격을 가진 현대적 행사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레이건 대통령의 미국 재발견이라는 관광정책의 슬로우건이 제창된 후 외래 관광객 유치로 목적으로 관광관련 잡지나 신문기사에 자국의 향토 문화 축제 행사 일정과 내용을 상세히 실고 있다.

## 나. 캐나다

캐나다 축제의 특징은 유럽 각국의 풍습을 알리는 다양한 축제나 행사가 풍부하며 각 지방이나 도시 단위의 향수와 전통이 강조되고 있다. 축제의 개최시기는 대개 봄에서 가을까지 집중되어 있지만 겨울 페스티벌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 3. 아주지역

## 가. 일본

### 1) 특징

일본은 마쓰리(제사, 축제, 페스티벌)의 나라이며 일본인은 축제기분을 매우 즐긴다. 조상신이나 영웅신에게 경의를 나타내는 민간 신앙적 요소가 짙은 것들로서 주소 神社, 宮, 절(寺)에서 펼쳐지고 대부분 풍작과 풍어를 비는 의식에서 유래하며 1천 여년의 오랜 전통을 가진 역사성, 제의성이 있는 축제이다. 미쓰리는 일본의 역사를 나타낸다. 또한 일본인은 계절의 꽃구경을 즐겨 각 계절의 꽃에 맞추어 각지에서 마쓰리와 같은 행사가 벌어진다.



주최는 市나 縣이 관광협회와 공동으로 맡고 있어 각 현마다 관광정보 안내지를 발행하는데도 용이하다. 즉 지방자치제로 중앙의 간섭이 거의 없으며 지역민의 단합과 그들에게 맞는 문화적 요소를 누리면서 전통정신이 도외시되지 않고 각 축제마다의 뚜렷한 주체의식이 면면히 이어오고 있다.

## 2) 관광상품화 현황

첫째, 엔고의 영향으로 주춤해진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타개책으로 눈축제 및 박람회 등을 개최하여 소득효과를 높이고 있다.

둘째, 최근 들어 정부와 민간자금으로 전통문화보존기금을 설치 운영하여 문화청과 지방자치단체가 전통문화보존 및 새로운 문화창조에 관계되는 활동자금을 지출하고 있다.

셋째, 외국 관광객에게 독창적인 일본 문화의 소개로 자국 문화를 이해시키고자 하는 문화관광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이는 관광 외화적자인 일본이 경제적 이익보다도 장기적인 전망에서 무역 마찰 해소와 자국에 호의적인 분위기를 형성코자 하는 효과를 기대하여 일본관광진흥회(Japan National Tourist Organization)의 “Explore Japanese Culture”라는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획기적인 캠페인을 전개한 바 있다.

넷째, 또한 세계 도자기의 역사화 현황, 미래 전망, 문화와 기술의 교류를 기하고 미래의 도자기와 생활관계 탐구 및 도자기 문화를 고안, 창조하기 위하여 91년 4.20-5.26(37일간) 시가현 신라꾸쵸의 도예의 숲에서 세계 도예제를 개최하였다. 도예의 숲은 국민 휴양지, 도자기의 국제적 교류장이고 도자기 창조, 연수, 전시 등 다양한 역할을 하는 곳이다. 구체적 행사로는 도자기 심포지움, 일본과 세계의 도자기전, 노야 페스티벌 등 다채롭게 실시되었다.

다섯째, 일본에서 개최되는 주요 향토문화축제로는 하까다 돈따구(博多 Zondag), 지다이 마쓰리(時代祭り), 아오이 마쓰리(葵祭り) 기온 마쓰리(祈園祭り), 텐진 마쓰리(天神祭り), 아이젠 마쓰리(愛染) 등이 있다.



## 나. 홍콩차이나

### 1) 특징

홍콩차이나는 연간 계속하여 축제와 음식 관련 및 문화적 행사와 스포츠 행사를 개발, 실시하고 있는데 전통적인 축제의 특성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는 것은 거의 없고 대부분이 현대적 특성의 기획행사이며 전통 세시풍속에 바탕을 둔 축제라 하더라도 현대적인 행사가 가미되어 더욱 유명해진 것을 볼 수 있다. 많은 행사들이 홍콩 관광협회(HKTA) 회원업체들에 의해 개최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각종 축제 및 행사가 고유의 축제의 의미와 기능을 다한다기보다는 관광객 유치에 위한 관광상품화의 일환으로 치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2) 관광상품화 현황

첫째, 동남아 및 구미 각지의 투어 오퍼레이터들이 축제를 패키지 상품화하여 연중 또는 당해 기간 중 특별 판매하고 있다.

이를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서 주요 외국 여행 출판물에 축제 안내 페이지를 돌린다거나 일본의 여행사들에게 홍콩의 축제를 판매하도록 협상 직접 배달 및 전화판매를 한다던가, 동남아의 Travel Journal와 신문들에 축제 개최 시기를 게재하고 여행사들이 공동으로 다양한 축제 패키지 상품을 판매, 선전한다던가, 또한 축제 행사의 홍보 효과를 거양하기 위해 해외의 기자단을 초청·기사화를 유도하고 있다.

둘째, 협회에서는 축제의 내용 및 행사 일정을 알려주는 책자를 제작하여 국내·외에 배포하며 축제 및 행사도 직접 기획 주최하는데 음식축제와 각종 문화 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서 갖가지 홍보선전을 동원한다.

## 다. 태국

### 1) 특징

태국은 전통적인 특성이 강한 다양한 축제문화를 간직하고 있다. 지역단위로 개최되는 각종축제는 불교 및 종교적 성격, 역사, 보석, 동물 등을 테마로 하고



있다. 이러한 향토문화축제에는 춤·민속음악·일반의 고양된 정신·음식·미인 선발대회가 포함되며, 화려한 색깔로 장식하여 태국민들의 밝고 낙천적인 국민성을 엿볼 수 있다.

대부분 종교적인 의례행사가 주를 이루는데 고유의 전통성보다는 국가적 차원에서 관광산업 행사의 일환으로 실시하여 화려한 걸장식에 치중하여 축제 본래적 기능은 퇴색된 경향이 있다. 또한 매우 독특한 문화양상을 볼 수 있는 소수 민족들의 소규모 축제 행사가 많은 것이 특징이다.

## 2) 관광상품화 현황

태국의 주요 수출 산업이 관광산업이므로 국가적 차원의 행사 개최가 대부분이며 관광청과 지방사무소가 이들 축제를 주최하기도 하며 유명한 축제는 이미 관광상품 코스에 포함되어 있으며 관광객을 위한 다양한 행사 내용이 있다.

## 라. 대만

### 1) 특징

5천년의 문명을 가진 중국은 연중 전통적인 명절행사가 펼쳐지고 있다.

대만에서는 이 명절들의 대부분을 화려하게 매우 격식을 갖추어 맞이하며 春節(舊正), 仲秋節 같은 전국적 규모의 큰 축제 이외에도 백여개의 소규모 지방 명절이 있어 각 도시와 기타 지방 수호신에게 바쳐지고 있다. 이 군소명절은 “拜拜” 축제라 불리며 세련된 사원의식과 밤의 호화로운 잔치가 베풀어진다. 대부분의 축제는 농경문화에 바탕을 두므로 농사일과 깊은 관련이 있다. 경작기와 수확기 그리고 농사일 중간에 있는 짧은 농한기 등에 맞춰 전통축제가 펼쳐지며 아직 거의 다 음력을 기준으로 한다.

대만인은 단일 종교신을 믿지 않고 조상, 여러 종류의 신 및 마귀조차도 숭배하며 유교·도교·불교의 혼합적 특징의 민족종교를 가지고 있으므로 향토문화 축제 행사의 종류도 더 다양한 것이다.

### 2) 관광상품화 현황



첫째, 민속 관광자원의 육성과 내국인들의 참여 유도로 외국인 관광객 유치 증진에 기여할 목적으로 대만 교통부 관광국 주관 및 각 기업체와 사찰 후원으로 관광축제를 개최하고 있다. 이는 1978년부터 대만 최대 명절인 구정기간에,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기획하여 국제적 시선을 끌 수 있는 행사로 이용하고 있다.

둘째, 향토문화축제 주간에는 숙박비와 관광명소 입장료에 할인요금이 적용된다. 고대 중국민속공연, 예술의 전시 및 경연대회, 그리고 공원과 백화점 등의 화려한 랜턴 점화와 등(燈)을 단 차퍼레이드(Lantern Float Parade)도 무척 아름다와 관광객들은 환상의 분위기로 젖어들 수 있다.

셋째, 향토문화 축제들은 각종 관광프로슈어에 게재하여 관광객의 대만으로의 여행시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며 국제여전(國際旅展)을 통해 국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였고 행사기간에 해외 언론인 초청 및 각 매체에 대대적인 광고게재 등으로 관광객 유치 연계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각종 관광 산업체 참여로 민속예술전과 연등제, 요리 전시회, 민속 예술공연이 무역 전시장이나 中正記念堂 등에서 펼쳐진다.

## 제2절. 한국의 향토문화축제 현황

### 1. 한국적 의미

우리 나라에서 사용되고 있는 향토문화축제라는 개념 정의는 정형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일반적인 전래부터 내려오던 당제나 동제와 같은 민속축제, 해방이후 특히 1970년대 후반부터 80년대를 통하여 정부 주도로 행해진 지방의 여러 제천적 행사 등을 총칭한 광의의 개념으로 해석될 수 있다.



## 2. 향토문화축제의 의의와 기능

향토문화축제는 각종 문화행사를 통해 지역사회 구성원 등을 하나의 공동체적 삶의 공간으로 묶고 존재 확인 및 공동체 의식을 강화시켜 준다. 또한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자기 고장에 대한 자긍심을 심어주고 전통에 대한 이해를 높여 문화적인 단절감을 극복시켜 주는데에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향토문화축제가 갖는 기능은 다양하게 파악될 수 있지만 그 중 가장 중요한 기능이 전통문화의 보존·계승·지역문화의 문화정체성 확립, 지역 주민의 공동체 의식제고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오늘날의 향토문화축제는 지역사회의 한마당 큰잔치이며 지역문화의 총화로서 부각되고 있다.

## 3. 향토문화축제의 범위

첫째, 고대로부터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행하여 온 전통적 축제와 둘째, 1970년대 80년대에 걸쳐 정부의 주도하에 이루어진 정책적 축제 및 셋째, 지역사회의 활성화와 관광의 진흥, 상업가의 번영 등을 목적으로 행해진 1980년대의 현대적 축제 등이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상기에서 살핀 세가지 범위내에 포함된 넓은 의미에서 태백지역의 태백제 행사 중 천제 향토문화축제를 대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 4. 우리 나라 주요 향토문화축제의 사례

상기에서 고찰하였듯이 향토문화축제는 크게 민속향토축제와 종합향토축제로 분류되는데 전자는 전통적 축제로서 대체로 해당지역의 역사적 인물이나 사건 또는 전승되어 온 민속놀이 등을 보전하기 위하여 오래동안 면면이 유지되어온



것인데 반해, 종합향토축제는 문화 전반의 행사와 체육행사를 합친 개념으로 포괄적인 지역과 많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축제이다. 본 연구에서는 해당지역에 오래동안 전승되어 온 많은 볼거리 행사로서 위상을 정립한 향토문화 축제의 사례와 지역 주민의 화합과 인화단결을 도모할 수 있는 대표적인 우리나라의 향토문화축제<표-1참조>를 강원지역에서 개최되는 춘천 인형극제, 강릉단오제 및 정선 아리랑제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sup>10)</sup>

#### 가. 춘천 인형극 축제

1995년 문화자치도시로 선정되는 영예를 얻은 호반의 도시, 춘천시는 현대축제인 인형극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도시이다. 춘천에는 소양제가 있으나 외지인들에게는 별로 알려지지 않았지만, 주제를 가진 국제축제인 인형축제를 개최하여 명실공히 한국의 인형축제로 그 위상을 정립하고 있다.

인형극 축제는 사실상 춘천과는 별다른 인연이 없지만 호반의 도시 춘천에서 애니메이션 타운을 만들고 마임축제를 열면서 인형극 축제를 위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춘천이 인형극 축제를 하기 위한 문화적 환경을 조성하였다.

또한 다채로운 이벤트 행사를 밀도있게 계획함은 물론 체계적인 홍보전략을 수립하여 춘천이 축제를 통한 세계화를 실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춘천의 인형극 축제는 이제 국제인형극단의 주요한 관심사로 부상하였고 한국 인형극 문화를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역할을 톡톡히 수행하고 있다.

#### 나. 강릉 단오제

1967년 국가지정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강릉단오제는 전통문화를 충실히 계승 발전시키고 향토축제화한 결과 가장 한국적인 향토축제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단오는 원래 중국의 명절이지만 우리 나라의 전통적인 수릿날 축제는 이미 동예 부족국가의 사람들에 의해 10월에 무천행사가 열렸던 것과 관계되는 음력 5월의 축제이다. 이러한 전통성을 지닌 단오 축제는 주야로 음주가무하던 예국

---

10) 문화체육부, 한국의 지역축제(서울 : 문화체육부, 1996), p. 132.



사람들의 축제를 오늘날까지 계승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동시에 고유한 지역성을 토대로 하여 세계적 축제로 발돋움해 나아가고 있다. 따라서 강릉단오제는 향후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연구와 홍보, 보존 관리 뿐만 아니라 전략적으로 관광 상품화하여 현대적인 축제요소를 가미한 우리 나라 고유의 독특한 향토문화축제로 발전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다. 정선 아리랑제

정선에서 개최되는 아리랑 축제는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익히 알고 있으며, 우리 나라 아리랑의 원조격인 정선 아리랑은 한국을 경험하고자 하는 내외국인에게 자랑스럽게 내세울 만한 우리 민족의 한과 얼이 정교하게 조화된 노래말로 이루어진 고유의 축제이다.

정선의 이리랑 축제는 실질적인 소리 축제로 발전해 나아가기 위해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 왔으며, 지역 방송사에서도 아리랑 경창대회를 개최하는 등 추진위원회에서도 아리랑 축제 발전 방향 모색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따라서 정선의 아리랑 축제는 보다 짙은 지역의 문화와 향토성을 가미한 축제로 발돋움해야 할 것이다.

<표 -1> 대표적인 향토문화축제

개최일자	향토제 명칭	행 사 내 용
1월   정월보름	은산별신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최장소:충남 부여군 온산면 온산리</li> <li>· 내용:물봉하기, 조라술행사, 집긋, 진대베기, 꽃받기, 당제, 상성제후</li> </ul>
	여주 얼 담교놀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최장소:경기도 여주군 점동면 원부리</li> <li>· 내용:세종대왕의 무덤인 영릉에서 매년5월과 10월에 세종대왕 숭모제전, 세종문화 큰 잔치가 개최됨</li> </ul>
	당진 기지시줄달리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최장소:충남 당진군 송악면 기지시리</li> <li>· 내용:약400년전부터 시작된 민속놀이로서 재난방지 와 증산의 의욕을 키워주는 행사이며 줄다리기와 깃썰기, 윷놀이 등이 개최됨</li> </ul>



개최일자	향토제 명칭	행사내용
정월보름	고싸움 놀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남 광산군 대촌면 칠석리</li> <li>· 내용:남자를 상징하는 동부와 여자를 상징하는 서부의 두패로 갈라져서 싸움을 벌임. 마을주민들과 함께 어울려 협동의식과 봉사정신을 근본으로 함. 주요 행사내용은 싸우기 전의 노래, 싸울 때 부르는 노래 및 싸워서 이긴 후에 부르는 승전가 등이 있다.</li> </ul>
	진도영등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최장소:전남 진도군 고군면 회동마을과 의신면 모도마을</li> <li>· 내용:1년에 1회에 거쳐 바다가 갈라지고 갯벌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를 기념하기 위해 강강술래, 진도들 노래, 씻김굿 등의 향토문화 축제행사를 펼침.</li> </ul>
	지리산약수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최장소:전남 구례군 지리산 노고단</li> <li>· 내용:國泰民安과 時和年豐을 기원하는 제의적 성격의 축제이며, 약수제례와 궁도대회가 개최됨</li> </ul>
	서해안풍어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최장소:인천 소래포구</li> <li>· 내용:동해안의 풍어굿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으나 서해안의 풍어굿은 1981년부터 발굴·재현되었으며 용왕굿, 꽃창굿, 배연신굿 등의 순으로 진행됨</li> </ul>
	안동민속축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최장소:경북 안동</li> <li>· 내용:1971년부터 이어져 온 향토문화축제로서 주요 행사로는 뽕다리 밟기, 화회별신굿놀이, 처전놀이 등 지역의 고유한 민속놀이를 중심으로 진행됨</li> </ul>
	밀양 아랑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최장소:경남 밀양</li> <li>· 내용:정조를 지키다가 억울하게 죽은 아랑의 전설을 사명대사의 충의와 김종직의 지덕을 기리는 축제로 확대되었으며, 축제기간 중 각 사당에서 채화봉송하고 밀양백중놀이, 용호놀이 등 민속놀이를 공연함</li> </ul>



개최일자	향토제 명칭	행사내용
음력5월  백중날	강릉단오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강릉시 남대천 백사장</li> <li>· 내용:국태민안과 풍년, 풍어를 기원하는 제의에서 비롯되었으며 단오굿은 부정굿, 축원굿, 조상굿, 제석굿, 성주굿, 군웅굿, 심청굿, 칠성굿, 지신굿, 손님굿, 제면굿, 탈굿은 물론 관노탈놀이, 씨름, 그네 및 농악 등의 민속행사가 개최됨</li> </ul>
	삼척죽서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최장소:강원도 삼척시</li> <li>· 내용:재앙을 없애고 복을 부르며 풍작 풍어를 기원하는 전야제의 행사로 삼원제를 지낸 다음, 기줄다리기를 놀이를 진행하면서 축제행사를 진행함</li> </ul>
	남원 삼동굿놀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최장소:전북 남원군 보절면 괴양리</li> <li>· 내용:아들을 순산하여 병들지 않고 과거에 급제하며, 농사짓는데 복을 기원하는 민속행사로써 3성의 동자로 하여금 지네를 밟아준다는 풍속에서 유래하여 기세배, 당산제, 우물굿, 삼동서기, 지네밟기, 마당밟기 등의 순으로 진행</li> </ul>
	우륵문화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최장소:충북 충주시 문화회관</li> <li>· 내용:우륵의 정신을 되살리고 향토문화의 육성 및 주민의 화합을 주된 내용으로 소오룡굿과 탄금대 방아타령 및 목계별신제 등이 공연됨</li> </ul>
	제주 영등굿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최장소:제주시 탑동</li> <li>· 내용:제주도의 무속이자 향토축제이며 영등신이 해녀가 채취할 것들의 씨를 뿌려줌으로 신을 기쁘게 하려는 주제로 진행됨 · 전남 해남지방</li> </ul>
	강강술래 향토축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용:아낙네들이 손을 잡고 발을 맞추어 빙빙 돌면서 부르는 노래로서 민속축제로 진행</li> <li>· 개최장소:서울 용산구 용문동</li> </ul>
	남이장군대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용:남이장군의 용맹과 충절을 기리는 제사로서 동민들의 지역공동체 의식을 높이는 향토축제</li> </ul>



### 제3절. 태백지역 향토문화축제 현황과 문제점

#### - 천제를 중심으로 -

##### 1. 개황

민족의 영산인 태백산은 천제를 통해서 민족적 이념을 되살리고 민족의 시원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신성한 지역이다. 환인의 아드님 환웅이 하늘에서 삼천 명의 무리를 이끌고 신단수 아래 신시를 연 곳이 바로 태백산이다. 태백산 천제는 신라시대 이래 국가에서 관원을 파견하여 치른 제의로 한민족의 밝음지향 이상과 부합되며 한민족을 배달민족 또는 백의민족이라 부르는 까닭도 이러한 광명을 지향하는 우리 민족성과 일치한다. 특히 1,567m의 태백산에 단군성전과 천제단이 세워져 있고 태백산을 중심으로 산제와 산맥이기 및 무속행위가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오랜 역사성을 짐작케 하며, 오늘날의 천제는 태백산 천제위원회에 의해 유지·보전되고 있으며 더욱이 국가지정민속자료로 지정되어 오랜 역사성과 민속학적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태백산 천제는 시대와 역사는 변모해왔지만 그 고유한 의미와 내용은 퇴색되지 않고 있으며 강신, 참신, 주유, 고천, 송신 및 소지의 순서로 진행된다. 이처럼 태백산 천제행사는 신앙과 관련된 내용이 주된 행사인 바, 태백지역의 독특한 민간신앙으로 일반화 될 수 있는 전통성을 지켜 오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태백산 천제가 민족적 정기를 수호하고 국가적 제의로 거듭나 태백지역 고유의 향토문화축제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전통적인 요소와 현대적인 요소가 가미되어 조화롭게 구성됨은 물론 모방불가의 유일무이한 축제행사가 되도록 다각적인 대책이 요구된다.

##### 2. 태백지역 향토문화축제의 문제점



상기에서 '개괄한 내용을 분석해 볼 때 태백지역의 향토문화축제에 관한 문제 점을 크게 향토문화축제 개최관련 사항, 향토문화축제 관광상품화 관련사항 등으로 대별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가. 향토문화축제 개최·관련사항

##### 1) 개최 주최·주관처의 문제

대개 태백시와 위원회가 주최·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관 주도의 행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향토 축제 분위기라기 보다는 마치 못해 치르는 관례행사 또는 동원행사로 인식하여 매년 천편 일률적이고 특색없는 행사로 반복되고 있으며, 우리 나라에서 유일무이하게 유지·발전되어온 천제는 지역 주민들은 물론 외지인들과의 밀착된 축제행사로써 외면되고 있다.

##### 2) 축제 평일 개최로 인원 동원상 애로

태백지역 향토문화축제인 천제를 중심으로 한 태백제와 관광축제인 철쭉제·쿨시네마페스티벌 태백산 눈축제는 10월과 6월·8월·1월에 개최되고 있어 이 시기는 산업근로자들의 참여가 사실상 불가능하며, 더욱이 우리 지역 고유의 민속놀이인 사시랭이, 갈풀썰이, 외나무다리놓기 등과 같은 전통적인 행사와 조화롭게 구성되지 못하여 자발적인 지역 주민의 참여 욕구를 저하시키는 물론 많은 외지인들의 유치에 실패하고 있다. 또한 행사 참여 학생이나 공무원들도 매우 바쁜 시기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행사 조직 및 준비와 운영에 있어서 무리가 뒤따르거나 미흡한 점을 지적할 수 있다.

##### 3) 개최 장소의 분산에 따른 참관상 애로

태백제(천제)는 행사 장소가 등산을 통해 다다르기 때문에 산행하지 않는 일반인이나 관광객은 태백지역만이 갖고 있는 유일하고 독특한 천제축제에 직접 참여하고 경험할 수 없다는 단점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천제가 신라시대 이래 국가에서 관원을 파견하여 치른 제의로 한민족의 밝음지향 이상임은 물론 명실상부하게 민족적 이념을 되살릴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지역 주민 대다수의 자



발적인 참관과 외지에서 온 관광객들에게 더욱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축제로 거듭나야 한다. 그러므로 태백의 유일무이한 향토문화축제인 천제가 볼거리인 문화행사로 각광받기 위해서는 당골광장이나 다른 문화공간을 확충하여, 현재 태백산 정산의 천제단과 똑같은 실물크기의 모형물을 제작하고 상설공연장화 한다면 많은 사람들을 유치하여 관광객들에게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할 수 있으며, 태백시 지역 경제에 기여함을 물론 더욱이 개최 장소의 집적화로 축제의 시너지 효과와 참관에 따른 애로사항을 극복할 수 있다.

#### 4) 향토문화축제에 대한 비중의 약화

가) 향토문화축제 개최시 많은 후원단체의 지원이나 협조가 필수적이다보니, 해당 축제의 가장 중심이 되고, 핵심이 되어 하는 천제의식을 비롯한 갈풀설이나 사시랭이와 같은 지역의 전통행사가 주된 내용이 되어 지역 주민과 관광객들에게 많은 관심과 흥미를 유발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태백제 행사는 이러한 요소의 비중을 약화시키고 있는 반면, 후원단체 관련 행사내용이나 체육행사가 가미되어 본질에서 어긋난, 즉 질적 깊이가 없는 행사로 전락하여 향토문화축제의 고유성을 잃게 하고 있다.

나) 태백시의 천제는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민속행사임에도 불구하고 체육종목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가칭 시민체육의 날 행사와 동시에 개최하는 등 정책적, 인위적인 성격과 혼재되고 있어 지역의 문화성·역사성에 근거한 향토문화축제로서의 빛과 위상이 퇴색되고 있다.

#### 5) 준비간 부족에 따른 행사내용 미흡

##### 가) 행사 진행 미흡

태백산 천제위원회가 있으나 태백제 행사 전체를 주관하고 있는 태백시 행사주관부서의 능력행정과 태백제추진위원회 행사 준비위원이나 그 산하 기획소위원회 기타 관련 인사들이 행사 개최 막바지(2-3개월) 전에 구성되어 준비행정에 차질이 오고, 상설기구의 조직규모와 인적 구성이 제대로 정비되어 있지 못해 짜임새 있는 행사 진행에 어려움이 있다.



#### 나) 향토문화축제에 대한 설명·안내서 부족

○태백산의 천제는 우리 한민족의 민족적 정기를 보여주고 하늘과 인간을 연결시켜 주는 전통적인 제의행사로써 보수적이고 어려운 제례의식과 한자어로 되어 있어서 그 내용이나 형식, 방법, 절차 등이 극소수 전문가 이외에는 잘 모르고 있어서 지역 주민은 물론 일반인들도 막연히 바라보고만 있을 뿐이며, 자세히 알려주는 전문가 또는 설명 안내 책자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최근에 성행되고 있는 관광의 흐름인 참여 지향적·적극적인 활동 및 특별관심여행과 비교해 볼 때, 천제는 지역 주민은 물론 관광객들에게 쉽게 동화되고 조화될 수 있는 현대적인 요소를 가미하여 유니크한 볼거리를 제공해야 하고, 현대 관광객들의 취향과 기호에 맞는 상세한 안내브로셔를 제작해야 할 것이다.

○특히 전통성이나 보수성 및 경직성이 강한 향토문화행사의 보존회 또는 보존회 소속 전문인사 중에는 해당 민속놀이 및 제의, 제례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절차를 일반인에게 알리는 것을 원하지 않는 인사와 분야가 있다. 즉 예를 들면 유교나 불교 관련행사 및 무형문화재 기능 보유자 등에서 찾아 볼 수 있다.

#### 다) 향토문화축제의 관련 홍보 미흡

태백지역 전체에 대한 대외 홍보가 미약하고 특히 축제 지역에 대한 관련 홍보매체의 질적·양적 부족은 물론이고 홍보채널과 홍보체계 구축의 미비로 많은 어려움을 노정하고 있다.<sup>12)</sup> 태백산 천제를 알리는 현수막과 포스터는 어느 정도 마련되어 있으나, 향토문화축제 개최 장소나 상세한 내용 등을 알려줄 수 있는 관광안내소나 안내판, 게시문, 표지판 등의 준비가 부족하며, 대도시 관광시장을 공략할 수 있는 태백산 천제 향토문화축제 홍보 진흥책과 유명 여행사를 통한 축제 마케팅 연계 전략이 수립되지 않아 많은 문제점을 초래하고 있다.

#### 라) 편의시설, 임시 간이시설 부족

---

12) 채용식, “태백시의 시정홍보 활성화 방안”, (강원개발연구원, 강원 포럼, 1997. 11월)



태백산 천제 향토문화축제 행사시 관심있는 지역 주민과 외지인들의 일시적 참여가 집중되다 보니 축제 참가 관광객들을 위한 편의 및 임시 간이시설이 부족하고 주차시설 등이 소홀하여 안전사고와 같은 제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다.

#### 6) 행사 구성 및 내용의 문제

태백산 천제는 지역주민들의 자발적 참여가 부족하고 유교식 제의, 제례는 주민들과 현대인들에게 동떨어진 행사로 거리감을 주고 있는 데다가, 축제행사 내용의 천편일률성, 연례행사성 및 주민의 무관심 등으로 흥미를 유발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천제에 관심이 많은 지역주민과 외지인들에게 타지역의 향토 축제와 차별화된 행사구성과 내용을 수립해야 하나 그렇지 못하여 매년 천제를 찾는 재방문자(Repeter) 창출에 실패하고 있다. 더우기 전통적인 행사요소 이외의 스포츠행사요소의 가미에 대해서는 철저한 재고가 요청된다.

#### 7) 주민의 참여도 및 지역여건의 문제

주민들의 천제 행사에 대한 참여도가 낮은 연유 중의 하나는 천제 행사내용이 지역주민들의 기반이 되었던 화전민 생활상과 탄광촌 문화 등에 기반을 둔 기층 서민 문화에 자리잡지 못한 점과 X세대인 청소년들과 향토문화축제 행사와 특별관심여행의 취향을 가진 관광객들에게 고루한 행사자체로 인식되고 있어 기피하고 있기 때문이다.

#### 8) 관광객을 위한 편의 시설 부족

태백산을 찾는 관광객을 위한 교통편의시설의 부족과 택시요금 체계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 특히 매년 외지에서 천제 축제를 보기 위하여 참석하는 관광객에 대한 편의시설이나 참여 유도를 위한 사전준비의 부족 등이 지적되고 있는 실정이다.

### 나. 향토문화축제 관광상품화 관련사항

#### 1) 향토문화축제 전문기구의 필요성

태백시는 문화관광상품과 향토문화축제의 개발을 위해서는 관광과 문화가 접



목된 관광관련기구의 확충과 관광업무를 관장할 수 있는 전문가의 확보가 절실히 요구되며, 전문기구의 확충으로 향토문화축제상품을 비롯한 제관광상품을 개발하여 지역의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지역주민의 정주의식을 함양하여 지역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시킬 수 있다.

## 2) 축제홍보진흥책 미흡

향토문화축제의 대부분이 음력으로 행해지므로 매년 그 개최일자가 달라진다. 이로 인해 축제일을 국내·외에 사전홍보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태백산 천제는 양력 10월 3일로 개최일이 확정되어 있는 향토축제이지만 대외 홍보진 흥전략의 수립과 우수한 여행사와의 연계 마케팅 전략이 확정되지 않아 외지인 들에 대한 축제참여에의 기회를 부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국제화· 지방화 시대를 맞아 경쟁력 높은 천제를 만들기 위해서는 해외에도 적극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적어도 1년전부터 한국관광공사의 해외지사나 해외공 관을 통해 지속적인 선전 홍보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진흥책을 강구 하여야 하고 태백산 천제 축제의 관광상품화가 차별화 될 수 있는 홍보채널을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 3) 행사주최 및 관련기관간 상호 유기적 협조체제 구축 미흡

태백산 천제위원회, 태백시 태백제 행사주관부서 문화공보실, 태백문화원 및 각 문화단체 등 향토문화축제 주체 및 주관단체에서는 태백산 천제 축제가 지역 주민은 물론 전국민의 호응과 관심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 독특한 향토문화축제 로 거듭나 보다 많은 내·외국인들이 참관할 수 있도록 하는 관련기관간 유기적 인 협조체제 및 축제의 홍보채널 구축이 필요하다. 현재는 인력 및 예산 부족 등으로 당면한 행사처리 이외에 대내·외적인 홍보 등 천제 축제의 관광상품화 를 위한 기반조성이 매우 미약한 실정이다.

## 4) 축제 평일개최에 따른 타지역 주민 참관 애로

태백산 천제 축제개최시에 현지 공무원이나 학생들이 많이 동원된다는 것을 전제로 공휴일이나 일요일 등을 가급적 피하고 전야제를 비롯한 축제행사 개최



일이 평일로 정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기타 외지인들은 축제참여욕구가 많아도 평일에 천제 축제가 개최되는 태백지역까지 방문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어려운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다.

#### 5) 향토문화축제상품에 대한 수요자 층의 협조

가) 대도시 및 중·소도시 대다수 시민들이 각기 생업에 종사하다보니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아직까지는 향토문화축제에 대한 관심이 저조하다고 볼 수 있고, 천제라는 향토문화축제상품에 대한 예상 수요층을 감안해 볼 때, 소위 지식층(화이트칼라) 및 X세대층들이 우리의 옛것에 대한 가치를 외면하고 현대적인 레저스포츠나 여가활동에 많은 시간과 경비를 투자하고 있어 중산층과 서민들을 대상으로 한 천제 축제의 내용과 구성에 치밀한 계획을 수립해야 함은 물론 축제에 대한 호응도를 고양시킬 만한 종합적인 선전·홍보체계 시스템이 절실한 실정이다. 따라서 작금의 천제 향토문화축제에 대한 지역주민과 국민적 관심도가 제고되어 있지 않은 현실을 잘 직시하여 천제를 보기 위해 찾아올 수 있는 잠재 관광시장을 면밀히 분석하고 미래 수요자층을 확보할 수 있는 고도의 관광진흥전략이 필요하다.

#### 6) 향토문화축제상품 공급(판매)여건 불비

태백산 천제를 향토문화축제로 상품화하기 위해서는 문화관광상품시장의 확보와 향토문화축제상품을 취급하는 판매망의 구축이 매우 중요한 전략이지만 우리나라의 여행사들 대부분이 국내의 향토축제상품에 대하여 소극적 태도를 견지하고 있으며, 향토문화축제상품을 여행사들이 취급하려면 막대한 홍보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이는 영업수익 감소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 여행업의 현실이다. 따라서 몇몇 여행사를 제외한 나머지 국내여행업체들이 이러한 홍보비나 영업상의 채산성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축제상품취급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관광기업형태는 머지 않아 불식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향토문화축제상품 판매를 위한 책임있는 채널 부재로 향토문화축제상품을 실제 판매할 때, 판매자인 여행사측과 해당 축제 주관 단체와의 연결을 맡아



하는 책임있는 채널이 없고 경우에 따라서는 여행사측은 해당 축제 주최측과는 무관하게 판매영업을 할 소지가 있어 당초의 향토문화축제 관광상품화 취지에 부합되지 않을 수도 있다.

#### 7) 향토문화축제의 관광상품화를 위한 문화관련재정의 미비<sup>13)</sup>

태백산 천제 향토문화축제의 관광상품화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중앙정부의 문화체육부, 한국관광공사 및 태백시의 절대적인 예산 및 지원체계가 정립되어야 하며 축제전문가인 고급인력에 대한 확보가 관건이 된다. 하지만 현재의 태백산 천제 축제는 상기의 내용과는 현격히 판이하며 태백시 지방정부의 열악한 재정 지원 규모와 축제전문가의 부재로 재정운영의 취약성·비탄력성 및 양질의 축제 행사로서의 내용과 구성이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 제4장. 태백지역 향토문화축제 관광상품화 개발 방안

### 제1절. 향토문화축제 관광상품화의 의미

Salah Wahab은 Tourism Management(1975)에서 관광상품화를 관광객이 집을 떠나 경험하는 모든 대상을 상품으로 변형시키는 것이라고 광의적인 개념으로 정의하고 있다. 협의의 개념으로는 특정행위의 대상을 관광객의 기호나 취

---

13) 서울특별시, 서울도시문화발전방안(서울 : 서울시, 1995), p. 209.



향, 욕구에 부응하게끔 상품화하는 것<sup>14)</sup>으로 볼수 있다.

향토문화축제는 해당지역의 전통과 역사 및 신뢰성을 알게하며 행사의 주최자와 관광객과의 쌍방 커뮤니케이션(two way communication)이 함께 공유될 수 있는 건인력이 매우 높은 문화관광자원이다. 이러한 향토문화축제를 관광상품화하여 매력있는 관광자원으로 개발하고 관광 효용의 극대화를 기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과제라 아니할 수 없다.<sup>15)</sup> 정부기구 축소화 방안으로 정부조직이 개편되어 1954년 이래로 교통부에서 주관해 오던 관광업무가 1994년말 문화체육부로 이관되는 대전환을 맞이하더니, 1998년 출범하는 새정부에서는 다시 문화관광부로 개편되어 관광현상에 대한 중요성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따라서 정부는 문화와 관광을 접목시켜 멀티업국을 지향하고 외래관광객에게 수준높은 한국관광의 경험을 제공하고 우리 문화의 세계화 실현을 위해 문화 관광상품 개발을 추진하였으며 그 실적은 다음과 같다.<sup>16)</sup> 또한 관광산업을 국가의 전략산업으로 그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관광산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여 국가의 기간산업으로 성장시키기 위해, 현재 우리나라의 관광행정 및 관광정책을 주무하고 있는 문화체육부를 문화관광부로 확대 개편하여 관광담당 차관보를 두는 것을 골자로 한 새로운 案이 집권당에 의해 추진된 바 있다.

## 제2절. 태백지역 향토문화축제의 관광상품화 방안

태백산 천제 향토문화축제의 관광상품화 방안에 대해 향토문화축제의 이벤트

---

14) 김홍윤 “우리나라 전통놀이를 관광자원화하는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관광학회 「관광학 연구」 제 12호, 1988, p. 71.

15) 안경모 “향토문화축제의 관광자원화 전략에 관한 연구”, 광운대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1994, p. 111.

16) 교통부, 1991년도 관광동향에 관한 연구보고서, 1995, pp. 249-275.



상품화, 향토문화축제의 루트설정 및 향토문화축제 개최관련방안을 중심으로 고찰기로 한다.

## 1. 향토문화축제의 이벤트상품화

지방경영시대의 새로운 지역개발 전략은 무엇보다도 지방자치제도의 효율성과 독자성이 존중되고 경제적 효과, 사회·문화적 효과를 거양함은 물론 지역주민들의 입장과 이해가 우선되어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자연환경의 효율적 보존효과가 있고 높은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지역관광개발과 향토문화축제 이벤트상품화는 향후 지역발전의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sup>17)</sup>

지역개발전략으로서 관광이벤트에 대한 상품화는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지역산업구조의 개선에 촉매제로 기능할 수 있다.

관광이벤트 상품화는 4계절 축제 등 새로운 관광수요 창출을 위한 관광행사를 개최하고 강원지역 관광의 활성화는 물론 탄광지역에서 고원관광휴양도시로 탈바꿈을 시도하고 있는 태백지역을 건강하게 발전시키는데 대단히 주요한 전략의 하나가 될 수 있다. 특히 매년 시행되고 있는 태백산천제를 비롯하여 철쭉제, 태백산쿨시네마페스티벌, 한강대제, 태백산눈축제와 향후 개발이 가능한 태백산 새해 해돋이 등반축제, 고원한우소고기 부페, 고원오지마을축제, 발원지축제(물축제), 산나물캐기축제, 산열매따기축제, 고원약초시음축제, 고랭지 김치대축제, 별축제, 영재축제, 당골무속신앙축제, 화전민속축제, 광부축제, 고원야생화축제, 고원노천까페축제, 역전축제, 목공예대축제, 온천축제 및 카지노 페스티벌 등 전통색 짙은 향토문화축제와 현대적 요소가 강한 축제행사를 이벤트 상품화하여 수도권과 경주, 제주 등에 편중되어 있는 외래관광객 및 내국인의 태백유치를 의도적으

---

17) 사)지방행정연구소 “자치단체 경영과 이벤트:지역개발전략으로서의 이벤트”, 자치행정, 1994, 11, pp. 62-63.



로 추진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를 위한 구체적 고려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차별화된 향토문화축제를 이벤트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 축제는 원래 자연발생적인 문화의 소산이므로 그 지역의 향토성과 문화성 및 생활상을 철저히 반영하지 않으면 안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개최되고 있는 향토문화축제는 거의 획일화된 내용과 진행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관광객의 관심과 흥미를 유발하는데 많은 제약점이 되고 있다. 따라서 태백지역을 소재로 하고, 태백지역만이 가지고 있는 축제요소를 개발·관광상품화하고 태백관광의 체질을 개선함과 아울러 태백관광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함으로서 21세기 풍요로운 태백건설에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지역주민과 관광객, 주최자와 주민·관광객이 서로 하나가 되어 신명나는 한마당의 관광이벤트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해야 한다. 특히 태백지역은 사회 기반시설을 비롯, 도시경관과 도시이미지, 관광객에 대한 지역주민의 환대정신, 관광안내홍보책자 등 관광이벤트 행사가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는 관광환경을 하루속히 개선시켜야 할 것이다.

셋째, 태백산 천제향토문화축제는 전통적인 제의, 제례 및 민속놀이 등 지역주민의 고유한 문화행사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현대적인 문화요소를 지닌 볼거리행사를 가미하고 미래태백의 고유문화를 창달해 감으로써 그 가치와 효용은 매우 크게 될것으로 판단된다.

즉, 태백산 천제향토문화축제의 관광이벤트 상품화는 지역의 향토성과 문화성을 근간으로 하여 전통문화행사가 주된 내용이 되고 현대 대중문화의 Program이 부대행사로 구성될 때 관광객에게 더욱 유익하고 재미있는 관심거리가 될것이다.

넷째, 부대의 지원행사가 다양하고 다채롭게 펼쳐지는 이벤트로 기획되어야 한다. 부대지원행사로는 주로 천제 축제행사와 관련된 기념품과 태백지역의 토산품, 향토음식을 맛보게 함으로써 태백지역에 대한 정감을 한층 높이게 해야 한



다. 그러므로 각종의 음식에 대한 위생적 취급, 포장지의 고급화, 토산품·공예품 품질의 고급화 등 수준 높은 지역 음식 브랜드 상품화를 유도해야 한다. 특히 태백산 천제는 태백지역의 유일한 특산물인 목공예단지나 화훼·약재단지, 황지 연못과 검용소 등의 발원지 관광자원, 용연동굴과 구문소를 비롯한 자연자원, 콧 등치기국수를 비롯한 향토색 짙은 향토음식 그리고 산간 화전민 생활상과 탄광촌 문화를 적절히 조화시킬 때 더욱 매력있는 향토문화축제 상품으로 발전해 갈 것이다.

다섯째, 축제의 장은 가급적 수송수단이 용이한 지역으로 천연적인 공간을 활용하고 관람여건과 진행시설은 현대적 최첨단시설을 갖춘 이벤트 장이 되도록 해야 한다. 양호한 접근성과 관람공간마련을 전제로 할 때 태백의 유일무이한 향토문화축제인 천제가 볼거리인 관광문화행사로 각광받기 위해서는 당골광장이거나 다른 문화공간을 확충하여, 현재 태백산 정상에 천제단과 똑같은 실물크기의 모형물을 제작하고 상설공연장화 한다면 많은 사람을 유치하여 관광객들에게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게 되고, 태백시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함은 물론 더욱이 개최장소의 집적화로 축제의 시너지 효과(sinergy effect)와 참관에 따른 애로사항을 극복할 수 있다.

## 2. 향토문화축제의 루트 설정

태백산 천제향토문화축제를 보다 더 매력있는 문화관광자원으로 개발함은 물론 지역의 관광효과를 제고시키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타지역의 축제와 상호 연계시킨 태백산 천제의 향토문화축제 루트를 두가지 유형으로 설정하면 다음과 같다.

가. 제 1코스 : 철원(태봉제) - 화천(용화축전) - 인제(합강문화제) - 강릉(소금강창학제) - 동해(무릉제) - 삼척시(죽서제) - 태백산 천제

나. 제 2코스 : 홍천(한서문화제) - 원주(치악문화예술제) - 횡성(태풍문화제) -



### 3. 향토문화축제 개최관련방안

#### 가. 행사개최일자의 확정

태백산 천제 축제는 대내·외적으로 알려지고 관광상품화 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축제행사개최일자가 사전에 확정되어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천제 축제행사일자는 매년 10월 3일 양력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관계기관과 주최 측이 사전협의를 통해 조정할 필요가 없다. 우리나라의 거의 모든 일상생활, 제도, 여가문화가 양력기준으로 정착되어 있고, 특히 외래관광객에게 소개, 상품화 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모든 축제는 양력기준으로 공시·소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의미에서 특정요일을 기준으로 매년 개최되는 태백산천제 축제행사기간 설정은 축제의 관광상품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서양의 경우 카니발, 예술제 등과 같은 유명축제는 이같은 축제 요일기준으로 기간을 미리 선정하여 지켜짐으로서 많은 관광객들을 유치하고 있다.

#### 나. 관련기관별 홍보방안강구

태백시는 물론 태백문화원, 지역소재 각 문화단체, 정부관련부처, 한국관광공사, 해당 지방 시·도 당국, 강원도 관광협회 등 유관기관과 언론기관들이 태백산 천제 향토문화축제를 전국단위로 홍보·소개할 수 있도록 양질의 홍보매체를 제작하고 다원적인 홍보채널을 구축하여 전방위 홍보전략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 1) 태백시

- 지역의 주요 관광지를 소개하는 관광안내 팸플렛 및 브로슈어 등을 다량 제작하여 축제지역내 역, 터미널, 쇼핑센터, 관광지 입구, 숙박 및 요식업소에 비치 활용토록 한다.

- 태백산 천제 향토문화축제에 관한 제반 보도자료 등 홍보물을 중앙 및 지역



매스컴에 제공, 언론·보도기관이 축제 개최 이전부터 홍보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 행사장소에 설치되는 현수막이나 홍보물은 행사특성에 맞게 CIP로써 디자인되어야 하며 특히 난전에 설치되는 천막도 행사분위기에 맞게 조화있게 통일된 색상으로 단장될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행사장소에는 대형 멀티비전을 설치하고 행사마다 해설방송을 곁들이며 국민복지관광측면에서 장애인을 위한 시설, 즉 농아나 맹인을 위한 수화해설과 점자 안내판도 제작되어야 한다.

## 2) 축제준비 및 주관단체

- 태백산 천제 축제일정 및 내용을 소개하는 축제안내서를 다량 제작하여 지역 관내는 물론 서울 등 주변 대도시의 이해관련 집단에 사전 배포하여 충분한 홍보활동을 전개한다.

- 축제안내서는 지면을 늘려 관내 및 관외의 기업, 단체 등의 광고를 많이 게재토록 유도하여 안내서 질을 높여 활용도를 제고시킨다.

- 지역유관기관과 협조하여 태백산천제 향토축제 안내서를 외부 관광객들이 이용할 만한 주요 장소나 건물, 숙박업체 등에 반드시 비치토록 한다.

## 3) 공보처, 언론 및 방송기관

- 축제 개최시 태백지역의 언론, 방송매체는 물론, 전국규모로 방송국에서는 뉴스시간대 및 기타 시간에도 수시로 소개 방영하고 신문사에서는 신문의 문화란을 최대 활용하여 집중 홍보토록 한다.

- 우리의 고유한 민속향토문화에 대해 국민적 관심과 흥미를 유발할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강화하며, 구체적으로 TV 스포츠 광고, 라디오 또는 TV에 한국의 민속축제에 대한 좌담회, 강연회 실시 등의 프로그램을 유도한다.

## 4) 문체부, 관광공사, 관광협회

- 민속향토축제 상품을 취급하는 여행업체 등이 활용할 수 있는 관련 브로슈어나 팜플렛을 많이 제작 제공한다.

- 영어 및 일어 등 외국어로 번역한 민속축제 안내 브로슈어를 해외에도 배포



하여 외국관광객 유치에 활용토록 한다.

· 민속향토축제행사 및 태백지역 관광명소를 담은 비디오나 슬라이드를 제작 배포 활용한다.

#### 5) 교육기관

요즘 청소년들의 향토문화축제에 대한 관심도는 서구의 대중문화에 밀리는 추세다. 이러한 현상은 그동안 향토문화축제가 청소년층에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에 대한 교육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본다. 다시 말해서 태백산 천제 축제행사의 성격이 주로 장년층의 공감대에 맞게 편중되어 있으며, 쉽게 동화되고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행사프로그램의 빈곤에 연유하고 있다고 판단되며, 청소년을 지도하는 교육기관에서도 우리의 고유한 전통문화에 관한 교육이 거의 전무한 상태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태백시 관내의 교육기관에서는 태백산 천제향토문화축제에 관한 중요성을 항시 교육하여 우리지역에 대한 애郷심을 갖도록 사전에 충분한 계도가 절실히 요구된다.

### 다. 관광객유치여건 제고방안

#### 1) 공연자료 전시관 시설확충

태백산 천제향토문화축제 공연장 또는 주변에 공연자료 전시관을 건립, 축제 행사와 관련된 각종 소품이나 자료 등을 상세히 전시함으로써 행사관람전에는 그 관심을 고조시키고, 관람후에는 축제 행사를 좀더 깊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이와 같은 시설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우선 현재의 천제축제행사를 개최하고 있는 태백산 정상의 천제단과 동일한 실물 크기의 모조 천제단을 당골광장이나 다른 문화공간을 확충하여 건립한다면, 상시 관광객들에게 시연이 가능케하고 관광객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공연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볼거리·놀거리를 제공함으로써 천제 축제를 통한 많은 편익을 창출해 낼 수 있다.

#### 2) 기념촬영센터 건립



태백산 정상의 천제단을 모조품으로 건립하여 천제향토문화축제를 상연하는 관람장내 또는 그 주변에 기념촬영센터를 건립하여 이곳에서 향토문화축제에 사용된 의복이나 용품을 관광객들에게 대여, 직접 착용케 함으로서 어설피게나마 본인이 직접 그 행사를 시연케 함으로써 그 순간만이라도 관광객 자신이 천제 축제행사의 주인공이 된 듯한 느낌을 갖게 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추억으로 담아갈 수 있도록 사진이나 비디오 촬영을 해줌으로써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수 있는 희귀하고도 색다른 체험의 장소가 되게 한다.

### 3) 전문가이드 양성 및 배치

천제 향토문화축제란 태백지역 문화의 총아이며 대표적인 이미지로써 태백지역 역사와 시대적 의미를 새롭게 부각시키고 있다. 그러므로 관광객들로 하여금 천제 향토문화축제가 잘못 인식이 될 때 태백지역이 받는 이미지는 실로 엄청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연히 발생할 수 있는 손상을 미연에 방지하고 또한 천제 축제 그 자체를 고부가효용가치로 포장하여 관광객으로 하여금 향토적인 문화정취를 더욱 실감있게 遞減토록 하는데는 전문축제가이드 제도가 필요하리라 본다. 더욱이 과거에는 관광 그 자체는 보는 것만으로도 별 무리가 없었으나 이제는 보고, 느끼고, 직접 이해되어짐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각 행사장 또는 전시관에 향토문화축제에 대한 높은 관심과 이해를 도와주는 전문향토가이드 및 문화가이드가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가적으로 전문축제·문화가이드 양성학교를 설립하여, 우리나라 각 지역에서 개최되는 축제행사에 관한 정확한 이론과 공연실습 교육을 병행한 후, 국가자격시험을 거친자를 전국 각 지역 행사장에 배치하여 안내케함으로서 한차원 높은 축제를 감상할 수 있도록 한다.

### 4) 향토목공예단지 및 팔도특산물 종합센터 운영

향토문화축제가 개최되면 의례히 난전과 같은 상권이 형성되는데 그 상권의 구심체가 주로 타지역 상인으로 짜여진다. 그러다보니 실제로 축제행사에서 벌어



들인 자금은 행사가 끝남과 동시에 그 지역에서 빠져나가고 만다.

따라서 우리지역 경제회생을 위해서 지역 상인이나 사회단체에게 우선적으로 난전을 운영케하고 우리지역 고유의 특산물인 향토목공예 단지를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타지역 상인들을 위해서는 팔도특산물 종합센터를 제 3섹타 방식으로 운영토록 배려한다면 태백지역에 많은 혜택을 부여하게 될 것이다. 여기서는 관광객들에게 항시 문제가 되고 있는 바가지 요금이나 불량상품을 방지하기 위한 편익제공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인정하는 상표를 붙이도록 하고 그 상표가 갖고 있는 규정을 어길시에는 블랙리스트를 작성하여 공표하므로 사전에 관광객과의 마찰을 방지한다. 그리고 이곳에서는 향토문화와 관련된 기념품이나 특산물 향토음식만을 판매케 한다.

#### 5) 향토문화축제 취급 전문여행사 지정

문화체육부는 향토문화축제 관광상품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신용있고 건실한 여행사 중에서 몇개를 향토문화축제상품 취급 전문여행사로 선정, 관광상품화 대상 향토문화축제를 관광상품으로 취급토록 행정지도를 하도록 해야 하며 이들에 대한 지원책을 강구토록 해야 한다.

#### 6) 동일지역의 축제와 같은 기간에 개최토록 유도

축제내용의 충실화를 기하기 위해서 동일지역에서 열리는 축제는 가능한한 같은 기간에 열리게 함이 타당할 것이다. 태백산 천제도 10월에 개최되는 인근의 아리랑제와 죽서제 등과 같은 향토문화축제와 같은 시기에 개최되기 때문에, 천제 축제행사내용을 다채롭게 구성하고 볼거리를 제공한다면 지역축제행사 분위기를 한층 고조시켜 국내·외 관광객 유치에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 라. 기업체 및 공공단체의 공공마케팅 연계

‘90년대 소비자들은 상품을 살 때 기업이미지까지 주입하고 있다. 기업들은 기업이미지를 높이기 위해 여러 가지 공익활동 지원에 관심이 많으며 기업이미지 제고 방안으로 이에 대한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기업들은



그동안 마지못해 해왔던 공익사업들을 마케팅사업의 하나로 안착시켜가고 있다. 이른바 공익마케팅(Cause Related Marketing)이다. 기업이 이윤만 챙기는 것이 아니라 수익 일부를 사회로 환원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추세를 잘 활용하여 관내소재 기업들로 하여금 태백산 천제향토문화축제를 지원케하면 향토문화축제의 홍보활동은 기업의 공익홍보활동과 그 맥을 같이 하면서 전국적이고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본다. 즉, 기업들의 홍보활동을 빌린다면 축제행사 홍보는 더욱 효과적이면서도 홍보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sup>18)</sup>

## 제5장. 결 론

관광은 현대사회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될 생활의 필수품으로 등장하고 있다. 특히 경제성장에 따른 관광수요의 급증과 관광을 통하여 자국과 타국의 문화를 이해하려는 문화적, 교육적 욕구충족 경향은 관광문화창출의 필요성을 대두시키고 있다. 그러나 각종 문화관광자원이 전국에 산재하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광자원의 개발이 미흡하여 급증하는 국민의 관광수요에 대처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문화관광자원을 세계인의 의식속에 올바르게 인식시켜 주고 후세들에게 선조들의 전통문화를 가르쳐줌으로써 우리문화에 대한 관심과 애착을 심어주어야 할 의미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개발이 미흡한 실정이다.

---

18) 안경모, 전개논문, pp. 134 - 146.



이런 점에서 볼 때 태백지역 주민의 정서와 고유한 문화, 전통, 역사 및 생활상에 부합되고 지역문화의 특성을 기반으로 한 태백지역 향토문화축제의 개발방안은 중요한 우선순위를 부여받을 수 있다고 본다.

95년 6월 실시된 지방선거로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가 개막되었지만 지역사회가 당면한 해결하여야 할 과제들이 대단히 많다. 지방행정 서비스의 낙후성, 지역경제의 불건전성, 지방재정규모의 취약성 및 지방문화행정의 부재 등 민선지방자치단체의장과 지방의회가 해결해 가야 할 수많은 일들이 산적해 있다. 본고에서는 지방화시대의 본격적 전개와 함께 태백지역문화의 활성화방안을 향토문화축제의 관광자원화 및 관광상품화 측면에서 모색하였다. 이러한 논의의 전개는 지역주민의 공동체의식을 함양시키고 이를 통한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고부가가치의 창출과 고용효과를 높일 수 있는 지방정부의 발전과제를 향토문화축제의 상품화방안으로 제기하였다.

이러한 향토문화축제의 관광자원화 및 관광상품화는 지역사회와 지역주민들의 지역적 정체성(Identity)을 확보하는데 커다란 도움이 될 것임에 틀림없다. 과거 중앙정부차원에서 주도되었던 것과는 달리 앞으로 태백지역의 특성을 대표하는 향토문화축제는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로 더욱 폭발적인 증가추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지역사회를 담보로 하는 향토문화축제는 지역사회가 참여적이고 민주적인 분위기를 가질 때 더욱 깊은 생명력을 내릴 수 있다고 보며 여러 세대를 거듭하면서 지속되어 지역주민들 자신들의 정체성을 확인시켜 줄 마음의 젖줄이 된다.

또한 대외적으로는 외래관광객과 타지역 주민들에게 자신들의 지역문화에 대한 독특성과 자긍심을 보여줌은 물론 상호간에 일체감을 공유하게 되어 이해의 증진과 교류의 폭을 확장해 갈 수 있다. 특히 지역주민의 정주심의 함양과 열악한 지역경제의 회생을 위해 각종의 관광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태백시는 이러한 독특한 태백지역 유·무형의 향토문화축제를 관광상품화하여 고소득을 올릴 수 있으며 해당지역의 문화를 통해 지방화, 세계화를 추진해 갈 수 있는 動



因으로서도 충분한 역할과 가치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더우기 많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고도의 전략사업으로서 향토문화축제의 관광상품화는 우리 지역에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 참 고 문 헌

- 교통부, 1991년도 관광동향에 관한 연구보고서, 1995.
- 김홍운, “한국전통민속극의 관광상품으로서의 개발연구”, 성곡논총 제 2편, 1991.
- 김홍운, “우리나라 전통놀이를 관광자원화하는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관광협회 「관광학연구」 제 12호, 1998.
- 문화체육부, 한국의 지역축제, 서울 : 문화체육부, 1996.
- 사) 지방행정연구소, "자치단체 경영화 이벤트 : 지역개발전략으로서의 이벤트 자치행정, 1994, 11.
- 서연옥, 「향토축제의 가능성과 거래」, 방일영문화재단주최 세미나초록집
- 서울특별시, 서울도시문화발전방안(서울 : 서울시, 1995).
- 안경모, “향토문화축제의 관광자원화 전략에 관한 연구”, 광운대 대학원 박사학위청구논문, 1994.
- 이장춘, 관광자원론, 서울 : 대왕사, 1990.
- 이은봉, 「놀이와 축제」, 도서출판 주류, 1982.
- 張正龍, “江陵端午祝祭의 傳承意味論”, 우리문화연구회, 1994.
- 채용식, “한국의 향토문화축제에 대한 상품화 방안”, 지방자치경영연구소, 지방자치경영연구, 제 1권 제 2호, 1995, 겨울.
- - - -, “태백시 시정홍보 활성화 방안”, 강원개발연구원, 강원포럼. 1997. 11월
- 咸碩鍾, “관광대상화를 통한 향토문화제의 활성화 모형개발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1993.
- 한국관광공사, 한국민속축제 관광상품화 방안, 1990.
- Key Sung Chou "Tourism destination image modification process marketing implications" Tourism management, 1991, Vol. 12.



## 태백의 소리 發現과 名物 창조를 위한 「太白의 鐘」 설치 제안



태백시청 이 명 진

### 1. 들어가는 말

97년은 문화유산의 해다. 우리의 것을 찾아 전승하고 우리의 문화유산을 재발견함으로서 지역의 정체성을 나타낼 상징적인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 즉, 태백다운 역사성을 만들어 가는 기회인자로서 오늘의 시민 모두에게 기억에 남는 군점(均點)될 수 있는 문화향수(文化享受)의 매체를 찾고 현대 도시에서 결핍되기 쉬운 시민 연대의식의 고양차원에서 『太白의 鐘』 설치가 필요하다.

종이란 소리를 내는 금속기구로서 예부터 집합 및 각종 행사에 널리 사용되어 왔다. 그러나 오늘날 종소리를 듣기란 매우 어렵다.

굿판에서 무당들의 방울소리, 산사(山寺)에서 악업을 씻기 위한 범종, 교회에서 예배시간을 알리기 위해 교회 종을 울렸지만 오래전의 일이다. 그러나, 종소리의 느낌만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 속에 살아 있다.

경종을 울릴 일이 세상에서 그렇게 쉽게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므로!

종소리를 마음으로 들어보면

-가슴을 뒤흔들어 설레게도 하고



- 백찬 감동에 가슴 뭉클하게도 하며
- 무한한 희열을 느끼게도 하고
- 긴 여운을 따라 태초의 적막에 이르게도 한다.

세계에는 여러 가지 유형의 종이 수없이 많지만 그 중 우리 나라 종은 우리 종만의 특징이 뚜렷해 세계 최고의 종으로 알려져 있고 학명으로도 조선종이라고 고유명사화 돼 있다.

## 2. 鐘의 의미

종은 고대에는 종교의식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었다.

고대인들은 종소리는 신명(神明)을 놀라게하고 동화시키며 일정한 곳으로 인도하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했다.

종소리는 惡神들에게는 고통스러운 소리인데 비해 善神들에게는 인간들의 정중한 초대 및 안내의 소리라 믿었다.

또한 최초의 종소리는 죽은 자에 대한 경의의 표시로서 원시시대 인류는 인간의 죽음에 대해 종소리를 울렸는데 의식의 중요한 시점을 알리는 신호였다.

한편 기독교에서는 신도보호의 상징물로 인식 시키기 위해 교회 꼭대기에 종을 매달았다. 기독교인은 금속 소리를 엄숙한 음악으로 승화시켜 교회 종소리로 자리 매김 했고 교회의 종이 초자연적인 힘을 갖고 있다고 믿었다.

로마카톨릭에서는 종이 천국과 하나님의 목소리를 상징한다고 【오전, 정오, 오후 3회에 걸쳐 종을 3회치는 3종경(三鐘經)의식】 했고 러시아정교(17~18C 모스크바)에서의 종은 교회종루에서 예배전과 예배 중, 매일 낮과 새벽에 울렸고 폭설경고, 사람들의 장례식, 결혼식, 축제 등에 불러 모으고 경축일과 재난, 승전보를 알리는데 사용했다.

기독교뿐 아니라 불교에서는 종소리는 악업을 소멸시키는 힘을 상징했고 사찰



에서 범종을 울려 사람을 모이게 하거나 시각을 알렸다. 또한 종소리(Bell Sound)는 이세상의 사물가운데 최초로 창조되었다는 창조력을 상징하며 형태 상으로는 둥근 천장 모양을 나타내며 하늘의 세계, 곧 천상의 세계를 상징하고 새로운 삶의 세계를 위한 보이지 않는 비밀의 소리, 새로운 우주의 탄생을 위한 에너지를 표상하무로서 새로운 세계가 창조되는 현상을 암시한다고 믿었다.

나아가 종소리는 인간의 뇌(腦)의 감지음향(感知音響)에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으며 종과 文學, 종과 詩, 종과 歌謠 등 많은 분야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현재는 구세군의 자선냄비의 종소리, 사찰에서의 범종 타종, 보신각종 타종 등에서 겨우 들을 수 있다.

### 3. 鐘의 사용분야

#### (1) 무속, 민속적인 면

- 종소리는 신명(神明)을 인도하는 역할을 한다는 믿음의 기대로 주술적인 힘이 있는 의기(儀器)로서 기우(祈雨)나 풍작을 빌 때 울렸다. 또한 제사나 연회를 베풀 때에도 종소리를 내어 청정을 표상하고 악령과 사심을 쫓는 일에 쓰였다.

#### (2) 풍습적인 면

- 종은 동서고금을 통해 때와 곳을 알리는 상징으로서 공통점이 있고 종소리는 시간의 매듭을 알리면서 공간적인 신성성을 확보하려는 암호로 표상되고 인간에게 성스러움을 불러 일으켜 각성하게 한다고 믿었다.

고대중국에서는 지배자들이 선종의 영묘(靈廟)에 제사를 지내거나 공식연회 등을 행할 때의 의식구(儀式具)였다. 孔子家語에 종소리는 치는 사람의 뜻에 따라 소리가 다르다고 하고 노(怒)해서 치면 그 소리가 사람의 마음에 따라서 종



소리도 변하므로 마음을 진실되게 가지면 종소리도 진실되게 들린다고 하였다.

### (3) 동양의 종교적인 면

- 불교에서 종소리는十方無量土(十方無量土)에 울려 퍼지기 때문에 군생(群生)을 각성시키고 종소리로 지옥중생을 구제하여 악업과 고통을 멈추게한다고 믿었다. 한편, 종소리는 긴 여운과 맥놀이가 끊어질 듯 살아나고 살아났다가 다시 끊어진다. 이는 중생의 마음을 교화하고 또 중생의 기원을 상징한다 했다.

### (4) 서양적인 면

- 구약성서에서는 금방울과 석류가 풍요를 나타내는 것이라 하였고, 또 종은 축사(逐邪)를 상징했다. 중세의 서양에서는 종이 이민족과 해적의 침입, 전쟁 등을 알리는데 쓰였고, 폭풍이나 페스트 등의 악마를 몰아낼 수 있다고 하였다. 종에는 독자적인 생명과 의식이 있어 성인(聖人)이 오거나 범죄가 일어나면 스스로 울린다고 믿었다.

교회에서는 신을 부르는(招神)데 쓰였고 천상과 지상을 음향으로 연결하는 구실을 했고, 초기 그리스도교에서는 그리스도의 부름에 종소리로 응답했다. 근대인들이 교회의 종소리를 들으면서 느꼈던 관념은 《세상을 평화롭게 만드는 소리》라는데 있었다.

## 4. 太白의 종(鐘)의 설치필요성

어느 지역에서나 고을과 토착인의 마음속에 내재되어 있는 상징물은 오랜 세월 살아오는 동안 마음과 마음으로 이어 내려오는 문화의 양금이다.

지방과 민족의 고유한 전통문화 속에는 그 민족이 오랫동안 공유해온 “상징의 숲”이 있다. 다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지역민의 보편적인 상징의 뿌리가 무엇



일까.

단군신화에 환웅이 태백산에 하강하여 신단수를 중심으로 신시(神市)를 열 때의 산은 민족의 발생과 정착의 근거라는 상징성을 지닌다. 특히, 太白山은 신이 하강한 산으로 신을 모시는 성역으로서 산악숭배(山嶽崇拜)의 기저가 되고 있다. 그래서 太白山天祭는 하늘과 가장 가까운 곳, 하늘과 교통하는 곳의 상징성을 띤 산마루제단을 통해 은혜에 감사하고 제화초복(際禍招福)을 기원한다.

개벽 곧 천지창조의 시작을 상징하는 태초에서부터 선택 받은 땅 태백의 울림을 상징할 수 있는 상징의 울타리는 **【鐘】** 이라 할 수 있다.

빛나지 않음과 빛남의 대응은 우주적인 울림을 가지고 거룩한 황홀감을 불러 일으킨다. 태백의 문화유산에 기념비적 독창성의 불씨를 지피는 일로 “시작하는 의미를 동시에 담고 번영과 평화, 발전을 상징하는 종소리의 재현과 발현”은 태백현대사의 새로운 이정표로 세워 볼만하다.

① 매년 한해의 마지막 날 밤에 온 세상에 울려 퍼지는 제야의 종소리는 범종을 울려내는 소리로서 악업을 소멸시키는 힘을 상징한다고 믿었던 우리 고유의 풍속이다.

우리의 조상들은 종소리에 부처님의 진리나 자비를 담아 온 나라에 퍼지게도 하였고 역사에 기록될 만한 대왕(大王)의 공덕과 위업을 담아 그것을 온 나라에 퍼지게 하여 호국의 수단으로 삼기도 하였으며 중생들은 부처에게 종을 만들어 시주하므로서 소원을 빌기도 하였다. 종소리는 높은 세계의 뜻을 아래로 전달할 수도 있고 아래세계의 뜻을 높은 세계로 전달할 수 있는 神具였다. 조선 개국공신의 한 사람인 楊村 權近이 지은 鐘銘序文에 鐘閣을 짓고 종을 달게 된 데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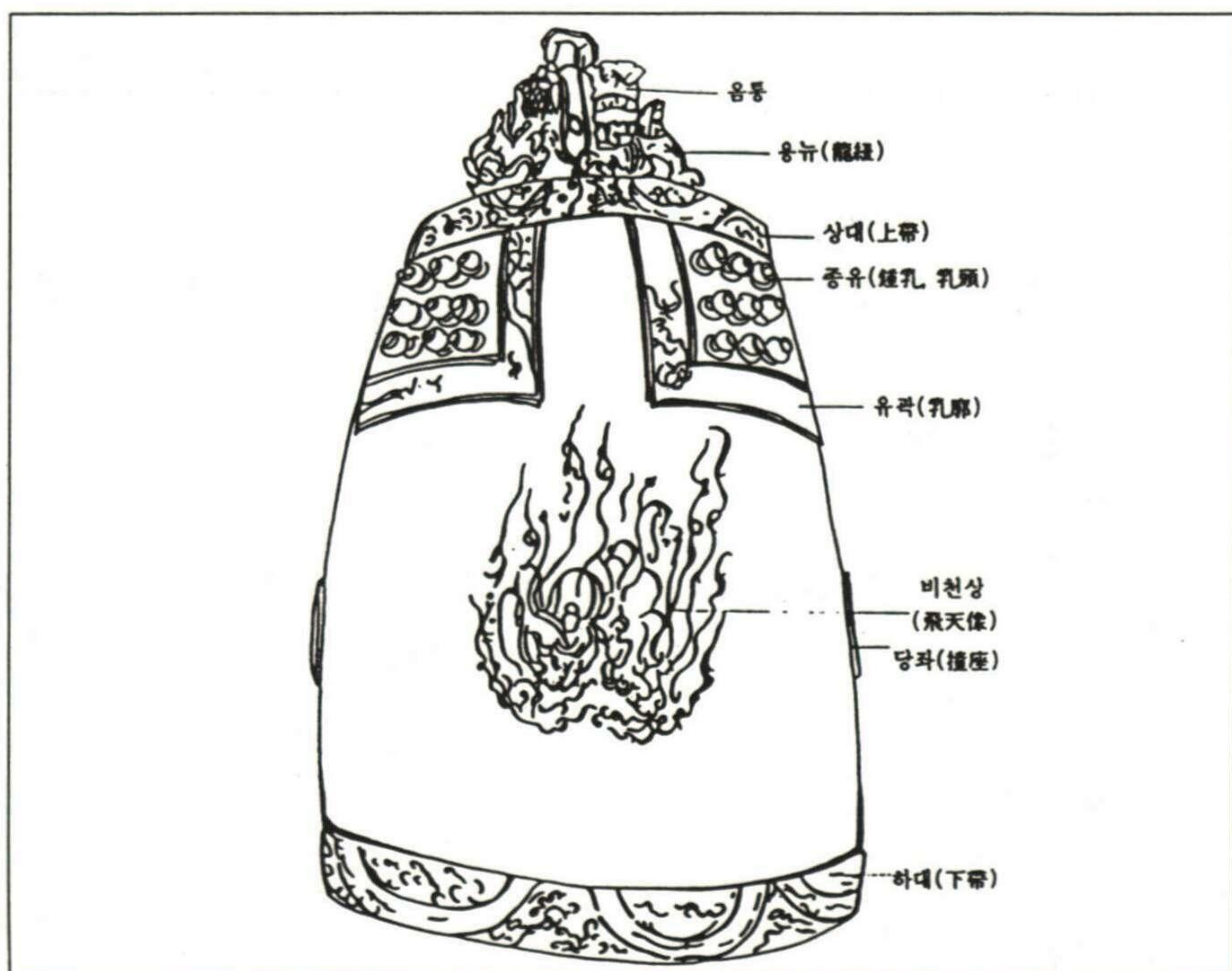
- 새 王朝의 개국이라는 큰 功業을 후세에 전하려는 뜻과
- 아름다운 종소리를 들을 때마다 후세 사람들의 이목을 깨우치게 하며
- 넓은 도시와 큰 고을(通都大邑)에서 새벽과 저녁에 종을 쳐서 백성들의 일하고 쉬는 시간을 엄하게 하였다고 적고 있다.

② 제야의 종소리는 낡은 것은 모두 물러가고 새것이 도래하는 희망과 행복



의 암시로 받아들였다(영국시인 테니슨). 보신각종을 서른 세번 타종하는 것은 저승에 사는 악마로부터 이승의 모든 사람과 부처님에 이르기까지 그 모두가 33체라는 불교적 관념에 기인하고 있다.

③ 현재 전국에서 제야의 종 타종행사를 갖는 곳은 이미 잘 알려진 대로 서울 3.1공원의 보신각종으로 텔레비전 등 방송매체를 타고 전국에 방송되고 있다. 크게는 부산 용두산공원 부산대종(부산 시민의 종), 대전 엑스포공원 내 대전 시민의 종, 경북 영덕 강구면 삼사해상공원의 경북대종(국내 최대의 종)이 있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매년 제야의 종 타종식을 행하고 있다. 우리시도 【태백의 종】을 설치하여 시 상징물로 역사성을 재현시키므로써 태백의 소중한 문화 자산을 가꾸고 일깨워주는 소리재현마당으로 태백의 유현(幽玄)한 멋을 세계인의 가슴속에 심어주는 영혼의 울림마당으로 태백시의 시작을 삼라만상에 고(告)하고 하늘에 알리는 告天을 상징화 하는데 있다.





## 5. 太白의 鐘 설치안

- (1) 鐘 銘 : 太白의 鐘(가칭), 시민공모로 선정 바람직  
 (2) 제작모형 : 한국종(학명)을 대표하는 Korea Bell(한국형 신라범종)  
 (3) 설치장소 :

구 분	장 소	여 건 판 단
< 제1안 >	구무소자개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남에서 태백으로 들어오는 관문, 도강산맥의 상징성</li> <li>· 자개문: 子時에 열리고 丑時에 닫히는 역사성과 이 상향의 관문으로서 태백의 상징성 표현 유리</li> <li>· 과거 구리생산지인 통점과 유래부합</li> </ul>
< 제2안 >	소도 당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蘇塗, 국토의 모산 기원터로 최적</li> <li>· 태백산 천제단과 相生표출 가능</li> <li>· 太白山의 歷史성과 天祭의 告天과 부합</li> </ul>
< 제3안 >	黃池 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낙동강의 발원지 : 황부자전설과 역사성 부합(불교)</li> <li>· 테마파크조성여건과 시민화합의 마당으로 최적지</li> </ul>

### (4) 太白의 鐘 제조내용

- ① 유 형 : 동종(銅鐘)으로서 유려한 모양새로 조각양식의 기법을 가미한 紀銘鐘
- ② 종표면 : 우아하며 아름다운 조각문양
- ③ 銘 文 : 생천사천의 太白山 朱木의 상징성을 반영한 1000자 명문으로 제작 연대와 더불어 종을 만들게 된 연유와 인명, 태백시민이 평화롭고 만세복락을 누리기를 바라는 기원을 담아 몸체에 새김
- ④ 鐘의 규모
- 높이(150 ~ 200) : 1.67m
  - 둘레(2 ~ 5) : 2.2m



- 입지름(0.6 ~ 1.8) : 0.7m
- 두께 : 아래쪽 12cm, 위쪽 3cm
- 무게 : 5톤

※ 양식적인 특징 : 우아하고 안정된 외형을 지니고 소리도 매우 은은하고 맑게  
제조

※ 鍾樓 : 2층 五閣(東西五間 10.4m, 南北四間 8.32m의 直角四邊形의 건물)  
사방의 조망이 壯快한 훌륭한 展望臺

⑤ 鐘의 제조 : 鐘의 기본설계, 음향설계, 문양설계, 음향조절 등을 하여 모  
형제작에서 부터 모형중 시범을 거쳐 수행

#### 《각부명칭》

- 용두(龍頭) } 음통표면에 문장양식
- 음통(音筒) }
- 천판(天板) : 종신의 상부에 있는 종의 덮개부
- 상대(上帶) : 종신의 상부주위에 돌린 띠로 아름다운 문양 장식
- 유곽(乳廓) : 4개소에 배치한 형장식부 내부에 9(3X3)개의 유두
- 유 (乳) : 9개의 乳
- 당좌(撞座) : 종을 당초문(唐草紋), 보상화문(寶相華紋)의 섬세한 문양  
대(紋樣帶)형성
- 비천상(飛天像) : 종의 표면에 장식배치한 상징 天人像
- 하대(下帶) : 종의 최하부에 돌린 띠로서 아름다운 문양으로 장식

#### ⑥ 鐘의 소리

한국의 소리 맑은 太白의 소리로 發現되도록 하고 영혼의 울림소리가 조  
화를 이루면 천지(天地)도 이에 화응(和應)한다고 했다. 환상적(신비함)이  
고 매혹적(매력적)인 소리로 극상화시킬수 있도록 함.

#### ⑦ 재 료 : 구리종(銅鐘)

- 조성 : 구리(Cu) 80%, 주석(Sn) 13%, 기타 약간의 아연 인성분등



※종의 강도(強度)와 경도(硬度)의 최적상태는 주석이 15%내외로 함유되었을 때이다.

## 6. 鐘의 타종(打鐘)

### (1) 타종 시기

- 제야(除夜)의 타종(설날 그믐날 밤 자정)
- 시민축제일 개막 타종
- 시 개청일 타종
- 체전성화채화일 타종

### (2) 참 여

- 시민, 단체장, 시의회, 지역리더 등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시민화합의 장

### (3) 운영근거 마련 : 태백의 종 타종을 위한 <훈령제정> 시행

## 7. 나오는 말

시민의 결속과 기원, 소망, 번영의 싹으로 복합기능의 중심매체화하는데 있어 종의 의미는 응축된 민초의 숨결이며 의식이다. 따라서 태백의 종은 21세기의 도시, 태백의 공동체실현과 전통적인 가치를 표상하는 소망을 기원(소원성취)하고 지역의 발전과 시민의 안녕을 기원하므로서 태백의 시작을 삼라만상과 하늘에 고하는 고천(告天)의식의 실행주체로서 상징화 부각으로 전통의 맥(脈)을 잇고 한국적 특성과 전통이기도한 의식주의(ritualism)의식의 형식을 빌어 집단적 정체성이나 연대감, 대중의 문화적 표출을 관리하기 위한 공표의 중요성을 공식화하는 수단으로 이용함으로서 자치시대 시민의 동참과 결집력을 모으는데 일조



하게된다.

또한 제야의 타종을 우리 지역에서도 실행할 수 있으므로 해서 태백의 상징성을 높여 나가는 매개체역할을 담당하으로써 새해 소원 성취와 안녕기원의 동참의식을 흐르게 한다.

나아가 우리의 숨은 문화의 根源을 밝히고 우리조상들이 살아온 역사, 예술, 종교를 함축한 《태백의 얼》 선양사업으로 추진 후세에 값진 문화유산으로 남겨 우리 후손들이 뿌리를 이어 나가면서 긍지와 희망에 살수 있는 매체로 남기는데 큰 의의가 있다.

전통의 재 해석은 과거 현재를 연결하고 미래를 음미하는 심미적 문화의 테마로서 향기부연에 정적기여도가 높기 때문이다.

#### ■ 참고문헌

- 동아원색세계대백과사전 동아출판사 1992.
- 범종 대원사 1995
- 한국의 종 염영하 서울대학교출판부

※ 본 줄고는 태백시지방공무원제안에 응모했던 일반행정분야 자유제안 내용임을 밝혀둔다.



## 바람직한 축제 모형에 관한 제안



태백시 문화계장 배일환

IMF의 한파는 국가 경제는 물론 이제 막 자리를 잡아가는 지역 축제를 자칫 낭비성 행사로 매도하여 축제 발전에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낳고 있다.

고원의 관광휴양도시를 건설해 나가는데 있어 축제는 관광 기반 시설의 미흡함을 보완해 줄 뿐 아니라 다양한 시민 참여의 장을 마련해 주는 관계로 관광입도(觀光立都)에 있어서 없어선 안될 필수 요소라 할 것이다.

오늘날 IMF의 한파가 몰아친 배경에도 우리 것보다는 남의 것이 더 좋다고 여기는 정신의 나약함도 한 몫을 차지 하였을 것이므로 진정 우리 것의 우수함을 찾고자 하는 축제야말로 IMF의 한파를 헤쳐나갈 수 있는 무기며 우리 정신의 구심점이 되어 고부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문화산업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태백의 축제 생성과정과 특성을 살펴 개선의 여지를 찾아내고 지역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 1. 시 개청 후 생성된 축제들



축제하면 아마도 대부분의 태백 시민은 가장 먼저 태백제를 연상하게 된다. 이는 역사나 규모 면에서 가장 오래되고 큰 향토 축제이기 때문이다.

헌법에 문화권이 신설된 직후에 시가 개청된 관계로 그 이듬해부터 전통 민속의 계승과 주민 화합을 목적으로 하는 태백제가 관주도로 개최되어 제례, 민속, 체육, 예술이 어우러진 종합축제로 성장하여 왔으며 9회( '90년)부터 문화원에서 천제를 재현하여 태백제의 역사성이 더욱 부각 되고 있다.

그리고 1986년 태백산에 만개한 철쭉꽃을 소재로 한 태백산 철쭉제가 순수 민간 주최(산악협의회)로 열리게 되었는데 이는 지역홍보를 목적으로 한 최초의 관광축제가 되었으며 지역경제의 주축이던 석탄산업이 사양길로 접어들면서 관광개발만이 유일한 대체산업으로 인식되던 '93년부터 태백산 눈축제가 개최되어 본격적인 관광축제로 자리 매김을 하였고 그 후속 타로 올해( '97년)는 하절기 축제인 한강대제와 쿨시네마 페스티벌이 속속 개최되어 춘하추동 사계절 고르게 축제가 마련되었으며 앞으로 더욱 다양한 축제가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

<표1 : 태백의 축제>

1997. 12월 현재

축 제 명	주 관 단 체	최초개최(회수)	사업비규모	축 제 성 격
태 백 제	태 백 문 화 원	1982 년(16 회)	200 백만원	주민화합(추)
태 백 산 철 쭉 제	산 악 협 의 회	1986 년(12 회)	32 백만원	관광축제(춘)
태 백 산 눈 축 제	눈 축제위원회	1993 년( 4 회)	45 백만원	관광축제(동)
한 강 대 제	태 백 문 화 원	1997 년( 1 회)	6 백만원	관광축제(하)
쿨시네마 페스티벌	태 백 시	1997 년( 1 회)	45 백만원	관광축제(하)

## 2. 태백축제의 특성과 문제점

### ① 자연을 소재로 한 기후취약형 축제

태백의 축제는 태백산이 주무대로 대부분 축제에 동반대회가 약방의 감초처럼 등장하며 태백산의 눈, 꽃, 시원한 바람 등 자연 그 자체가 축제의 소재로 이용



되고 있다.

한강대제는 태백산의 영역을 벗어난 축제로 앞으로 축제무대의 다양화를 예견케 하고는 있으나 발원지 물의 축제라는 자연소재의 영역은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태백의 축제가 자연을 소재로 하다보니 축제비용이 많이 들지 않는 장점은 있으나 기후에 매우 민감해 진다.

눈이 없는 눈축제, 꽃이 없는 철쭉제, 비 내리는 야외 영화축제는 축제로서 가치를 잃는다.

따라서 축제기간의 택일은 축제에 매우 중요한 요소이며 축제기간뿐 아니라 행사준비나 홍보에 변수로 작용하고 축제기간이 고정되지 아니하여 관광객의 참가 의지를 항상 유동적인 상태에 놓이게 한다.

## ②홍보성 축제

태백의 축제생성 과정을 살펴보면 축제의 목적은 분명해진다. 그것은 고원의 관광휴양도시라는 명칭에 걸맞지 못한 관광기반시설의 취약한 현실을 보완하여 관광객을 유치하고 그들로부터 지역 소득을 창출해 나가는데 있다 할 것이다.

그러나 지역의 축제역사가 짧은 관계로 지역소득 창출보다는 지역 알리기에 치중하고 있으며 단순히 관광객수의 증가여부로 축제의 성공여부를 가름 짓고 있다.

일례로 태백산은 영산으로 널리 알려져 있고 해발고도에 비해 등반이 용이하여 외지 등산객들에게 당일코스로 매우 인기가 높아 축제에 관계없이 많은 등반객이 다녀간다.

따라서 당일코스 관광객을 단 하루라도 체류시키거나 돈을 쓰고 가도록 축제의 기획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나 오히려 등반대회 참가자에게 입장료 조차 받지 않고 있는 것은 홍보성 축제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은 아닌지?



### ③문화적 개성이 취약한 축제

태백의 축제 내용을 보면 다른 곳의 축제와 유사한 점을 많이 발견할 수 있다.

태백에서만 볼 수 있거나 즐길 수 있고 살 수 있는 거리가 없다면 축제는 개성을 잃게 되고 개성이 없는 축제는 경쟁력을 잃고 만다.

태백은 산악지대인 관계로 전통민속이나 문화재가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어 개성 있는 이벤트 개발을 어렵게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개성을 살리는 것은 내용이지 물량이 좌우하는 것은 아니다.

특히 우리가 늘 보면서 별것 아니라고 여기는 것이 밖에서 보면 뚜렷한 개성으로 부각될 수도 있으므로 우리주변에서 그것도 지역의 역사와 문화에서 우리의 개성을 찾아 독창성 있는 축제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 3. 축제의 개선방안

### ①치밀한 축제기획을

축제는 지역경제에 두 가지 효과를 미치게 되는데 하나는 축제준비에 따른 내부 소비의 증가요, 다른 하나는 관광객 유치에 따른 소비자의 증가와 일시적 고용창출의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기획단계에서부터 축제와 소득원을 연계시켜야 하며 수지분석을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결산과정에서 예산을 어떻게 집행했는가 보다는 지역에 떨어진 소득이 무엇이었는지를 분석하여 차기 축제기획에 반영하여야 축제의 투자가치를 확인할 수 있으며 그래야 행사가 아닌 관광산업으로 인정 받고 과감한 투자가 뒤따를 수가 있는 것이다.

### ②태백의 역사와 문화가 살아있는 전천후 축제를

태백산이 축제의 주무대가 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



태백산이란 명칭은 개국신화와 연계성이 있으며 천제의 역사가 오래되어 지명도가 높고 자연 형상도 수려할 뿐 아니라 축제를 열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축제의 내용을 보면 천제를 제외하고는 태백산의 역사와 문화가 반영된 이벤트가 없다.

등잔 밑이 어둡다는 속담처럼 태백의 역사와 문화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관계로 정작 이것을 상품화하려고 하지 않고 태백산의 자연 형상 위에 다른 지역에서도 하고 있는 이벤트로 축제를 기획하여 지역의 개성을 살리지 못할 뿐 아니라 기후에 취약한 단점을 갖게 된다.

삼국사기에 “逸聖尼師今五年十月北巡親祀太白山”이라는 기록으로 보아 태백산에는 신라시대(AD 138년)에도 이미 국가단위의 제의가 있었음을 알 수 있는데 국왕이 멀리 이곳까지 와서 천제를 올린 이유는 무엇일까?

태백산의 자연경관 때문만은 아닐 것이다. 오천년 역사 속에 우리민족을 하나로 결속시켜준 천신숭배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왕이 친히 왕림하여 제를 올렸을 것이다.

일례로 해방당시에는 천제를 자정에 올렸다고 한다. 이것을 태백산 쿨시네마 페스티벌에 적용하면 자연 속에 영화감상이란 단순성을 야간산행이란 색다른 이벤트로 확대발전시켜 하절기 등산을 가능케 할 것이다.

또 하나는 백두산의 천지에 비유되는 황지연못을 태백산과 연계시켜야 한다.

북으로는 태백산맥이 백두산을 거쳐 대륙에 이르고 남으로는 낙동강이 남해를 거쳐 태평양에 이르게하는 그 오묘한 지리의 위치성을 강조하여 축제 참가자를 시내로 유인하면 그들의 소비를 더욱 촉진시킬 계기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 때는 전 상가에서 특별 할인판매를 하여야 할 것이고 시민들은 덤으로 염가혜택을 받게 되므로 전시민적 공감대가 형성되리라 본다.

그리고 태백산은 주간에 역사와 문화를 바탕으로 한다면 황지연못은 야간에 첨단 과학이 동원되어야 할 것으로 상인들이 부담하여 형형색색의 조명 쇼를 했



으면 한다.

### ③수익형 축제를

비록 축제 참가자가 적을 지라도 수익성이 높고 그들을 또 오게하는 요소가 있다면 그 축제는 성공한 축제가 될 것이다.

또 수익을 높이려면 그들을 체류시키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그러자면 매일 색다른 이벤트를 펼치거나 과감한 관광개발을 통해서 머무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하겠으나 그러기에는 많은 투자와 오랜 시간이 요구된다 하겠다.

그러므로 적은 투자로 체류형 축제를 만들려면 직접 체험을 통한 즐길 거리를 만들어 내야하고 지역에 부족한 관광기반시설은 인근 시군과 연계하되 잠은 태백에서 잘 수 있도록 유도해 내야 한다.

## 4. 수익성 축제의 실례

이상의 개선방안에 맞추어 당장 개최할 수 있는 축제를 기획하여 보자.

### ①축제 소재 선정

· 우리 주변의 전통 놀이나 풍습

고대 : 천제(퇴우)

현대 : 새해 맞이 겨울 태백산 등반과 하산 시 썰매타기를 즐기는 풍습

### ②참가 대상과 주제 선정

· 시 기 성 : 1월은 겨울방학 기간이고 한 해를 여는 첫 달

· 참가대상 : 가족단위 관광객 유치 용이



· 주 제 : 가족사랑 나라사랑

· 수 단 : 가족단위 천제, 산악용 썰매타기, 태백한우 야외 숯불구이 등

### ③소득창출 요소

#### ■ 천제단

천제단은 그 누가 뭐라 해도 태백을 상징할 수 있는 최상의 상품이다.

그 옛날 국왕이나 지방수령이 관장하던 천제를 가족단위로 올릴 수 있는 프로그램화 한다면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태백에 오게 할 수 있다.

거기다가 사용료는 무료로하여 새해의 부푼 설계와 소박한 가족의 소망을 빌도록 한다면 무의식 속에 태백은 성지라는 이미지를 부각시키게 되고 그렇다면 년년이 성지순례형 방문이 이루어질 것이다.

#### ■ 태백 한우

손쉽게 관광객들에게 자랑스럽게 내놓을 수 있는 향토상품은 무엇보다도 태백의 한우고기로 태백의 한우가 다른 지역과 맛의 차이가 확연한 것은 자타가 공인하는 사실이나 그 비결은 아직까지 베일에 가려있다.

옛부터 태백산에서 천제를 올릴 때 소를 제물로 공양하여 왔으므로 하느님께서 태백의 한우 맛을 특별하게 해주신 것이므로 이를 상품화 하자.

그것도 실내가 아닌 야외에서 바닷가에서 횃감을 직접사서 초장이나 마늘, 고추, 야채를 필요한 만큼 사서 싱싱한 회를 값싸게 먹듯이 직접 숯불을 피워 먹도록 하면서 감자나 고구마, 밤도 같이 구워 먹을 수 있도록 하면 멋진 추억거리로 기억되지 않을까?

#### ■ 오궁썰매

한우와 더불어 지역 고유의 특산품은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오궁썰매다.

인체보호기능과 방향조절기능이 있으며 자연을 해치지 않은 천연 그대로의 국



내 최장의 눈썰매 스톱을 이용할 수 있는 이 상품은 가족의 화목을 만들어 내는 요술방망이가 될 것이다.

#### ■ 기타

가족단위 천제는 무료지만 유일사에서 태백산을 올라가는 경로를 용정을 거쳐 도록하여 정한수를 제물로 하도록 유도하여 이때 정한수를 담아가는 특별한 용기를 만들어 팔자.

그리고 소지 때 사용할 한지도 상품화 해보자

당골광장에서는 쥐불놀이, 연날리기, 떡메치기 등을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여 희망하는 시민이 장사를 할 수 있게 해주자.

또한 야간 눈썰매장 운영. 황지연못 조명 쇼를 개발하여 시내관광을 유도하고 이에 맞춰 상가에서는 축제맞이 대 바겐세일을 실시하여 소득을 올린다.

가족단위 문화탐방코스로 석탄박물관, 단군성전, 태백산 석장승, 눈조각전을 준비하자.

#### ■ 연계관광코스

태백에서 1박 후 연계 관광코스로는 관내의 용연동굴과 검룡소, 구문소 관광순환코스와 동해바다를 거쳐 덕구의 따뜻한 온천을 자매 결연을 통해 광역 체인화한다.

#### ■ 홍보방법

축제의 안내서만 보면 축제의 의미, 참가방법 및 요령, 소요비용 등을 알 수 있도록 비교적 상세한 안내문을 만들어 사전에 선정한 타 지역 학교나 향우회를 통해 우편홍보를 하고 PC통신을 통한 예약문화를 조기에 정착해 나간다

그리고 요일별로 지역의 날(예:경상북도의 날)을 정하여 단체로 축제참여를 유도하자.

또한 풀 코스를 완주했을 경우 기념증서를 수여하면 그 증서자체가 홍보물이



될 것이다.

자 이것을 축제 참가자의 입장에서 일기식으로 써보면 이렇게 될 것이다.

아들 녀석이 학교에서 가족 사랑 축제 안내서를 갖고 와서 가자고 떼를 쓰고 있다.

98년 1월 18일이 우리 고장의 날이라고 하니 이웃집과 같이 태백의 축제에 참가해야 겠다.

다사다난 했던 정축년을 보내고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여 유서 깊은 태백산에 올라 새해 설계와 가족의 소원을 빌어보아야 겠다.

열차표와 민박을 일찌감치 예약해 놓고 모처럼 여행인 만큼 기분 좋은 가족나들이를 위해 돈도 찾아 놓자.

가족들의 소박한 꿈을 안고 체력도 측정해 볼 겸 열심히 산에 올라보리라. 그리고 마치 일성왕이 된 기분으로 엄숙히 천제를 올리리라.

천제가 끝나면 뒤풀이로 신명나는 산악용 눈썰매를 타고 순식간에 당골광장의





로 향하리라

당골광장에는 눈조각전도 열리니 가족사진을 찍어 가족사진콘테스트에도 출품  
해 보리라

입선만 되면 '99년도 카렌다'에 우리 가족의 사진이 실리게 된다니 이 얼마나 영광스런 일이 아닌가

세계최대 규모의 석탄박물관 구경도 하고 그 유명한 태백한우 맛을 즐겨본 후  
황지연못의 화려한 조명쇼를 관람해 보자.

그리고 낚선 곳에서 하루밤을 보내면서 오늘날 우리를 있게한 단군의 신화를  
아이들에게 들려주면서 대륙으로 대양으로 뻗는 기상을 키워주리라

그 다음날 아침 풀코스 완주 기념증서를 받아 들고 동해바다를 거쳐 덕구 온  
천에 들려 온천욕을 하고 나서 집으로 돌아와야 겠다. 아이들은 기념증서를 제  
방에 걸어놓고 친구들에게 자랑하겠지 또 혹시 모를 일이다. 행운이 찾아 온다  
면 기념증서에 적힌 번호로 추첨하는 행운권 추첨에 당첨되면 이 모든 경비를  
뽑고도 남을 것이다.

어쨌든 98년은 좋은 일만 생길 것 같은 예감이 든다.



## 관광산업은 굴뚝 없는 공장



宋炳玉

地方行政同友會長

### 1. 관광 산업은 일차산업이 아니다.

우리 속담에 ‘금강산도 식후경’이란 말이 있다.

아무리 좋은 구경거리도 밥을 먹고 난 후라는 뜻인데 배고픈 사람에게는 눈요기 보다는 배고픈 허기를 면한 후에야 구경거리가 있다는 이야기다.

누가 ‘눈물 어린 빵을 먹어보지 못한 사람은 인생을 말하지 말라’는 말이 생각난다.

인생에 있어서 제일 급하고 귀한 것은 아마도 배를 채우는 것이리라.

배가 고프면 아무 일도 못하는 것이다.

배가 불러야 옷생각, 집 생각도 난다.

구경을 한다는 것은 눈요기다. 눈에 좋은 경치가 들어오면 그것을 느끼고 즐길 수 있는 것은 두뇌가 한다.

두뇌 속에서 ‘배가 고프다’ 그러면 우리의 오감(시각, 미각, 후각, 청각, 촉각)이 따로 작동하게 되는데 배가 고프면 이 다섯가지 감각이 작동을 중지하고 배가 고프니 이것부터 해결해야 한다는 지령이 나온다. 그래서 금강산도 식후경



이란 말이 나온 것 같다.

사실 금강산(실제로 가보지 못했지만)은 세계의 명산임에 이의를 달 사람이 없다.

산이야 세계에 크고 웅장한 산이 얼마든지 있다. 높으기로는 히말라야의 에베레스트산일것이고 남북으로 길게 뻗어 사계절의 전경을 지닌 산은 북미의 록키 산맥일 것이다.

넓기로는 시베리아의 광활한 산과 들이다. 아름다운 계곡도 미국의 ‘그랜드캐년’에 비할 거대하고 웅장한 계곡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자연이 만들어 낸 산과 계곡 그리고 기기묘묘한 봉우리들이 펼쳐지는 전경은 아마도 이 지구상에는 금강산보다 더 조화롭고 기묘한 장관은 찾아보기 어려울 것이다. 분단된 이 땅에서 가보지 못한 우리는 그림과 영상으로 밖에는 볼 수 없었지만 인근에 위치한 설악산을 보면서 짐작이 가고도 남는다.

이런 장관도 배고프면 뒷전으로 밀리기 마련이다. 북한은 지금까지 소위 혁명을 완수해야한다면서 인민을 통제하여 ‘부르조아’적 사상을 용납할 수 없다면 서 그들의 혁명적과업수행을 위해 관광산업을 개발 육성하지 않았다. 그보다는 관광산업을 개발하면 외국문물이 쏟아져 들어와 그들의 폐쇄사회가 들쳐 날까 봐 관광산업을 개발하지 못한 것으로 생각된다. 것처럼 아름다운 관광자원을 사장시킨 것은 그들의 과오이지만 앞서 말한 경제가 아직 인민을 배고픔에서 해방하지 못한 것도 한 원인일 것이다.

배급을 타서 연명하다가 그마저 제때에 배급 받지 못한 북한인민에게 금강산 구경이 가당이나 하겠는가.

이제 그 금강산을 개발하자고 우리가 제의를 해도 그들은 개방이 두려워 선뜻 동의를 못하고 있는 것이다.

가난과 배고픔에서 탈피하지 않고는 관광이 중요하지 않다. 관광은 배고픔에서 탈피해야 구경가서 먹고 놀고 즐겨야 할 수 있다. 관광산업은 일차산업은 아니다.



## 2. 관광은 향락산업에 눈 뜨다

국민소득이 낮고 가난했을 때는 관광산업은 생각도 못했다. 뭐니뭐니 해도 토질이 비옥하고 지하자원이 풍부한 것이 경제적 요소로 꼽혔다고 본다.

적어도 2차대전까지만해도 각국은 군사력을 증강해서 부족한 자원을 확보하려고 했다. 그것이 곧 제국주의라고 지정하고 있다.

경제는 1차산업을 확보하느냐가 중했다. 그래서 영국, 프랑스, 스페인, 네덜란드, 포르투갈 같은 유럽의 국가와 아메리카와 독일까지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해외로 진출했다. 그들이 하나같이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침략과 전쟁을 일으켰지 관광자원을 확보하려고 한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석유와 석탄등 에너지를 확보하기위해 중동과 오스트랄리아를 점령했고 고무와 펄프를 확보하기 위해 아시아 동남아를 점령했던 것이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합병한것도 관광자원을 확보하려 한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자원을 확보하려 했고 이어서 대륙과 연결되는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침략이었다. 그들은 한국을 점령하고 만주와 중국대륙을 장악한후 아시아를 확보한 뒤 태평양을 자기들의 손에 넣을 계획이었던것이다.

그러나 2차대전이 끝나고 냉전시대가 사라진후 세계는 자원쟁탈전을 탈피하기 시작했다. 모든 나라가 이념경쟁에서 달라경쟁시대로 바뀌어 가게됐다.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전쟁을하던 시대에서 경제를 통해 달라를 확보하면되는 시대로 변했고 국민은 더욱 잘살게 되면서 배고픔에서 해방되게 이르렀다.

우리 속담에 '말타면 마부 두고싶다' 란 말이있다. 이제 배부르고 등드시면 생각나는게 놀고 즐기고 싶어지는게 인지상정이다.

사람들은 먹을것에 집착하던것이 놀고 즐기고 싶어졌다. 무료를 달래고 즐기고 싶어지는것이 관광과 향락산업에 눈을 돌리게 됐다.

먹을것을 원대로 먹어보고 입을것도 원대로 입어봤다. 이제는 자유롭고 편안하게 즐기며 놀고 싶어졌다.



### 3. 관광산업은 볼거리, 먹거리, 놀거리를 함께 갖추어야 한다.

처음에는 관광이란 단순한 구경을 하는 것이었다. 눈으로 보고 즐기는 것이다. 그러나 시간이 흐름에 따라 단순한 볼거리만 가지고는 성이 차지 않았다. 왜냐하면 볼거리 하나만 가지고는 한번 와서 보고나면 또다시 오기가 쉽지 않거나 기피한다.

여기에서도 먹는다는 본능을 가미해서 관광산업을 육성하자는 생각이 떠오른 것이다. 그래서 경치가 좋은 곳에는 반드시 먹거리장이 생기게 됐다.

구경하고 먹는것으로도 부족해서 다음에 생긴것이 놀거리이다.

눈으로 보고 입으로 먹는것만으로는 성도 안차지만 장소와 먹거리를 제공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돈을 벌 수 없다는 생각에서 놀거리 즉 썰거리도 만들어 놓고 놀고 쉬어가면서 돈을 뿌리도록 덫을 놓게된것이 바로 놀거리, 썰거리를 만들어 놓게된 것이다.

이게 바로 호텔, 콘도에다가 각종 유락시설을 만들어 놓게 된 것이다.

그래서 만들어진것이 놀이동산에다 오락, 스포츠시설을 갖추는가하면 카지노까지 설치하게 한 것이다.

볼거리는 한번보면 기억속에 충분히 담아 둘 수 있다. 먹을것은 사실 계속하기보다 특수한 것을 선호하기 마련이다.

놀고 쉬는것은 한번 끝나면 다시 해보고싶은 계속성이 있다.

가령 스키장이나 수렵장이나 테니스 골프장 같은것은 계속하고 싶은 생각이 떠오르고 카지노같은 도박장에서 돈을 잃고 따는데도 재미가 있기 마련이다.

우리가 아무런 내기나 돈을 걸지 않고 즐기는 오락이라도 사람들은 돈을 걸고 내기를 하거나 돈을 따고 잃는 재미는 사람들을 끌어드리기 마련이다.

그래서 관광산업이란 단순한 구경거리만 가지고 관광객을 오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제 옛날이야기다.

사람들이 못보던 경치를 보면서 하루 종일 체류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구경도 하고 먹고 마시면서 놀이로 즐기고 쉬고 재미도 본다면 쉬고 묵어가는 관광지가 된다.

#### 4. 관광산업은 체류형으로 이끌어야!

관광산업이 단순한 볼거리만 갖고는 일과성, 통과형이 된다. 아무리 좋은 관광 자원도 두번, 세번 열번은 볼 수 없다. 그러나 먹거리 쉴거리 놀거리가 충분하면 다시 찾고 머물게 된다.

필자가 서구 여러나라를 돌아보고 동남아 여러나라를 돌아 보았다.

서구쪽은 안정된 자원을 잘 활용하고 있었으나 동남아 쪽은 아직 초보단계로 보았다.

태국은 휴양지 '파타야' 를 보았는데 이 파타야에서 산호섬을 가는 바다 한 복판에서 관광객에게 보여주는 놀이가 'M16' 을 쏘게 한다던가 낙하산에 사람을 매단후에 공중으로 튕겨 올라가게하는 따위를 제공하는것을 보았다.

필리핀 '팍상한' 계곡의 폭포를 구경하기 위해 좁은 협곡의 개울을 거슬러 올라가는데 카누 같은 배에 사람을 태우고 밀며 올라가서 폭포에 몸을 씻게 하는데 관광산업으로 좀 부족한 것 같았다. 마카오에서는 주변 경관보다는 카지노가 유명했는데 지금도 마카오 관광산업에 효자노릇을 하는것 같았다.

이밖에 향락산업이 꽤 관광객을 불러드린 방콕도 최근에는 '에이즈' 바람에 지장을 주는것 같았다.

내가 가본 나라중에는 역시 다시한번 가본다면 러시아를 가고 싶다.

광활한 대평원, 끝없는 삼림단지에 잘 정돈된 조경수, 웅장한 헤르미타주 박물관 등 유적지를 비롯해서 볼거리들이 많았다. 아마도 자유세계와 70여년을 격리된 채 살아온 문물이라고 생각됐지만 문화를 아끼고 보존해 온 러시아 국민들에게도 인상이 깊었다.

정적이면서 혁명의 세력들이 주도해 온 나라치고는 문화의식이 상당히 높은것



으로 감지했다. 뽀트르 대제상이나 푸시킨, 차이코프스키, 톨스토이 동상들이 그 대로 보존되어 있고 박물관에는 옛날 로마노프 왕조의 유물이나 그들이 학살한 니콜라이 황제의 유물까지도 가지런히 보존된데는 감탄을 금치 못했다.

시장경제에 아직 익숙지 못한 그들은 돈보다는 순박한 인심이 나그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다. 외국관광객에게 팔것이 별것 없던 때 마음만이라도 주고 싶어하는 아가씨들의 얼굴엔 귀여운 소녀같이 마치 시골 순이같은 생각이 지금도 가슴 한구석에 남아 있으니 이것이 아마 다시 보고싶은 관광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갖게된다.

다음으로는 핀란드였다.

5월 중순이었는데 금요일이었다.

이나라도 금요일이면 도시가 철시다.

쇼핑도 안되고 예약을 안하면 식사도 못 사먹는다. 주 3일이 공휴일이다.

도시는 대부분이 우리나라 '오피스텔' 같은 것이다. 직장생활을 위한 주거이고 생활은 주말 3일간을 자기 고향집으로 가서 조용히 지낸다. 호수가 3만여개가 넘는 호수의 나라라서 집집마다 보트나 요트가 없는집이 없다. 이웃을 가도 보트를 타야 손쉽다. 집은 호반의 아담한 그림같은 집이다. 정원에는 테니스장이나 놀이터가 있고 가족이 함께 즐기며 지낸다. 낚시를 하거나 요트를 타거나 그들은 주말을 즐기고 있었다.

일요일 교회를 갔더니 교인은 성가대와 목사뿐이다. 교인이 없었다. 교인은 모두가 자기 본택(별장이라고도 함)으로 갔으니 남아서 교회 나올 사람이 없었다. 오늘 서구 각국에는 교회와 성당에 차고 넘치는 교인들이 안보였다.

파리의 유명한 롯데르담 성당이나 독일 쾰른 성당도 주일 미사에 교인이 없었다. 사제들만이 미사를 올리고 성당안에서 관광 기념품을 팔고 있었다.

국내여행에는 우리나라 우등 버스같은 고급 버스를 타고 여행을 하면서 버스 안에서 잠도 자고 취사도하고 화장실도 보고 쉬고 즐기기도 했다. 이러니 쉬어가는 체류형 관광지는 또 기대를 잃게 되는것 같았다.



그러나 북구라파 사람들은 겨울에는 지중해 쪽으로 휴양을 떠난다고 했다. 여름철에는 스웨덴이나 핀란드쪽으로 휴양을 온다고도 했다.

그렇다 관광지가 이제는 볼거리 만으로는 안된다. 서양의 개념으로 휴양지가 돼야 한다.

## 5. 태백은 고원관광 휴양지

이제 관광산업의 총아는 휴양지라야한다. 보고 먹고 마시며 놀고 쉬는 쾌적한 곳이라야 한다.

강원도는 옛부터 관광명소가 많다. 송강 정철이 읊은 관동팔경 뿐만 아니라 내지 팔경도 얼마든지 있다.

그러나 쾌적한 휴양지는 얼른 손꼽을곳이 없었다.

태백은 우선 해발 6백m에서 1500m에 있는 고원이다.

한여름에는 시원함을 느끼고 밤이면 추위 한기를 느낄정도다. 인공바람인 '에어콘' 이 필요없는 산바람속에 모기없이 쾌적한 잠을자고 산채밥에 식사를 하고 나면 가히 신선이 됨직하다.

낮에는 40분이면 동해바다에서 수영을 즐기고 저녁이면 태백산에서 잠을 자면 된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안된다. 더 많은 유락시설이 마련돼야 한다. 그래야 사람들이 찾아와서 즐길수가 있기 때문이다. 숙박시설, 유락시설이 더욱 많아야한다. 겨울에 스키장, 이밖에 골프장같은 시설이 들어서고 카지노도 들어선다.

태백시에 따르면 관광휴양분야 14개사업에 공공 4백85억원, 민자 6천9백95억원등 총 7천4백80억원의 예산이 투입할 것이라고 한다.

또한 지역특화사업으로 공공 97억원 민자 7백40억원 등 모두 8백37억원이며 15개 도시환경정비사업에는 공공 2천 7억원 민자 5백13억원 등 모두 2천5백20억원을 투입하는데 전체 사업비가 1조 8백37억원이 투입한다는 것이다. 이



중 8천 2백48억원이 민자로 투입돼 오는 2005년에 완공 목표를 세워 놓았다.

그러나 97년 들어닥친 IMF한파가 엄습해서 국가 경제는 초 긴축상태에서 구조조정을 강요받고 있는 실정에서 태백산 관광개발에 재정적 투자가 우선할지는 심히 불투명하다고 보여진다.

더구나 80%이상이 민자유치로 이뤄져야하는데 재벌의 구조조정이 임박하여 살아남기도 어려운 실정에서 관광지 투자에 나설 사업가가 있을지는 의문이 아닐수 없다.

앞에서 말한것처럼 '금강산도 식후경' 이란 속담을 반추해보면 태백산 고원 관광휴양단지조성은 IMF에서 탈출한 이후로 미루어야 하는것이 불을 보듯 확실한데 이곳 주민들의 우려가 크다

모처럼의 기회가 정부의 의지로 추진되고 기업가의 선호사업으로 추진될것을 기대했지만 우리의 현실은 또 물거품이 안될지 걱정이 앞선다.

진정 관광산업은 굴뚝없는 공장으로 황금알을 낳는데도 실현이 어려울것 같다.



## 石炭紀

김 정 수  
태백문화학교 강사

산야에 지천으로 널려있는 땔감을 두고 굳이 땅속을 뒤져 땔감을 마련할 필요는 없었겠지만 석탄(무연탄)은 나무나 쉼에 비해 우선 마디고 연기가 나지 않는다는 이점 때문에 적군이 쳐들어와 성문을 닫아 걸고 농성할 때 사용했다는 기록이 조선조말 평양지(平壤誌)에 있다. 연료 이용기술이 모자라서 민간연료로 보편화되지 못하고 이처럼 군사용품으로 가끔 쓰였다고 하니 아쉬운 점이 없지는 않지만 별 관심도 갖지 않은 채 버려지다 시피 했던 무연탄의 효능을 일본인들이 먼저 알아차리고 눈독을 들이게 되는데서부터 우리의 무연탄 수탈역사가 시작된다.

1905년 러시아의 주력 발틱함대가 북해-대서양을 거쳐 아프리카 남단을 돌아 인도양-남지나해로 해서 극동의 요새인 블라디보스토크항으로 가기위해 대한 해협을 항진하고 있을 때 우리나라 남단 진해항에 정박해 있던 일본함대가 전격적으로 기습하여 대승을 거두게 되는데 이때 사용한 함정의 연료가 바로 무연탄이었다는 것이다.

연기가 나지 않아 적 함대가 접근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지 못한 러시아 함대는 전쟁다운 전쟁은 해보지도 못하고 대부분의 함정이 타괴되고 불과 몇 척만이 도주했다는 것이다. 이때 사용한 무연탄은 베트남에서 수입한 것인데 프랑스가 베트남을 식민지로 삼아 진주해 옴으로써 일본이 이 무연탄을 입수하지 못하게



되자 한반도의 무연탄에 비상한 관심을 갖게 된다. 당시 평양부근 대동강 동남쪽 사동(寺洞)이란 지역에 지천으로 묻혀있는 양질의 무연탄이 바로 일본 해군성에서 겨냥한 표적이 된 것이다.

한편 일본은 한반도를 대륙진출의 교두보로 삼고 전쟁준비를 진행시키고 있었던 만큼 가장 기본적 군수물자인 철, 석탄, 금 등이 한반도 전역에 풍부하게 부존되어 있다는 사실은 전략적으로 매우 유리한 조건으로 판단하였고 이때부터 우리의 지하자원은 일본의 전쟁물자 조달을 위해 수탈당하기 시작하게 된다.

일제가 석탄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삼척지역에서 석탄을 본격적으로 개발하기로 한 것은 북한지역보다 10여년 뒤인 1936년경부터이다. 조사결과 삼척지역에 질 좋은 무연탄이 무진장으로 매장되어 있다는 것을 간파한 일본인 기업가 나이토구마키(内藤熊喜)는 극도로 열악한 개발여건에도 불구하고 일본정부를 설득하여 도로 철도 항만을 개설하고 수천명에 달하는 인원을 모집하여 탄광개발에 박차를 가한다

드디어 1941년부터 태백지역에서 석탄을 싣고 묵호항으로 수송하기에 이르고 태백 - 도계 - 삼척 - 북평 - 묵호의 산업벨트를 형성하게 된다.

장성 도계 지역에서 생산되는 무연탄은 탄질이 우수하여 연료탄으로 뿐 아니라 카아바이트, 카보란담, 석회질소, 탄화규소 등 화학공업과 제철 제강 등 공업 원료로도 활용되었고 이러한 관련산업이 삼척과 북평지역에 급속도로 확산 발전하기 시작하였다. 나이토는 서해안의 경인 공업지역에 비견되는 북삼공업지역을 구축하여 내륙의 풍부한 지하자원과 삼림자원, 연안해역의 수산자원까지 수탈할 야심을 불태우며 맹렬하게 활약한 인물이다.

태백지역 개발을 거론할 때마다 우리가 잊을 수 없는 또 한사람이 있는데 그는 지질학자 모도키타쿠지(素木卓二)이다. 그는 토오쿄 대학 지질학부를 졸업한 후 조선 총독부소속의 지질기사로 부임하여 태평양전쟁이 끝날때까지 거의 대부분을 우리나라에서 근무하면서 수많은 조사보고서를 써서 발표했고 특히 석탄지질에 대하여서는 그가 우리나라를 떠난지 50년이 지난 오늘에도 그가 만든 지



지도가 교과서처럼 인정 받을 정도로 유명하다.

그는 태백 삼척지역이 본격적으로 개발되기 전부터 3년간이란 기간동안에 지질조사를 실시하여 5만분의 1 지질도를 작성 조선 총독부에 보고하였다.

그는 말을 타고 안내인과 잡역부 몇을 데리고 조사도구와 함께 육혈포로 무장하였다. 우마차의 길조차 없는 험준한 산악지대 끝없는 수해(樹海)와 암벽을 누비며 일본인 특유의 끈기와 열성을 발휘한다.

북으로 삼척 강릉, 동으로 호산 울진, 남으로 춘양, 서로 영월까지는 전국으로 연결되는 자동차 도로가 개설되어 있었지만 그 안으로는 겨우 우마차가 통행할 수 있는 험한길 뿐이었고 동리와 동리를 연결하는 길은 우마차의 통행조차 힘든 소로였으며 더구나 계곡을 따라 수많은 징검다리와 외나무다리는 우기나 폭설기에 길이 끊기기 일수여서 통행은 물론 식량 공급이 안돼 엄청난 불편과 고통을 겪어야했다.

이같은 심산유곡을 헤집고 다니며 지질을 조사한다는 것은 교통이 발달하고 모든 것이 편리한 지금 같아도 힘든 작업인데 60여년전의 이곳 정황을 생각하면 다만 놀라울 따름이다. 그러나 구석구석 그의 발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었다는 사실은 그가 만든 지질도가 입증해 주고 있다.

결국 그는 천신만고 끝에 드디어 이 지역의 자원수탈에 필요한 중요한 기초자료를 만들어 내게 된다.

그리하여 그는 이 지역 석탄지질의 제1인자로 인정받기에 이르고 나이토사장은 그를 탄광개발업무에도 참여케 했으며 상무, 전무 취체역을 거쳐 부사장으로까지 승진시켰고 전쟁이 끝난 후 본국으로 돌아가 1971년 80세를 일기로 생을 마친다.

삼척개발(주)이 탄광개발에 착수한 것은 1936년 4월 자매회사인 삼척철도(주)와 동시에 각각 5000만엔(지금시세로 환산하면 약 5000억엔)의 자본금을 투자하여 그해 9월 철도부설공사를 시작하면서 부터였다. 탄광개발은 도계지역부터 시작되었고 평안도와 함경도 지방에서 탄광경험이 많은 기능공들이 뽑혀왔고



보조공들은 인근지방의 농민들이 대거 차출되어 와서 석탄을 캐내기 시작했다.

홍전리에서 캐낸 석탄은 도계까지 가공삭도로 운반되었고 도계에서 묵호까지 42km의 철도는 1939년 5월에 완공되어 본격적인 출하가 시작되었다.

문제는 장성지역의 개발이었다. 도계에서 통리로 도로가 개설되기까지 탄광개발을 위한 철재, 시멘트, 모래, 기계류 등 물자의 운반은 모두 인력으로 해야했기 때문에 조선인 근로자들이 엄청난 고행을 감당해야 했다.

장성지역 개발은 먼저 철암갱부터 시작되었고 그 뒤로 장성갱, 금천갱 순으로 개발되었으며 1941년 8월 철암까지 철도가 연장개통되자 철암갱과 장성갱 사이에 3km가 넘는 전차운반갱도가 뚫리고 장성 금천구역에서 생산되는 석탄이 철암역으로 운반되었다.

철암에서 통리까지 철도로 운반된 석탄은 표고차 400m하부의 심포리까지 달아 내리는데 여기에는 15도경사의 인크라인을 만들어 600마력짜리 대형권양기로 철도화차 1량(40톤)씩을 달아 내렸다.

심포리에서 나한정 사이에는 스위치 백식 철도로 고차 문제를 해결하는 특이한 방식을 이용하여 도계역까지 석탄을 수송했다.

한편 통리에서 심포리사이에서 철도승객들은 일단 하차하여 보행으로 약 1km의 경사길을 오르내리는 불편을 감수해야 했다. 이런식의 통행은 그후 1963년 5월 통리-심포리간 8.5km의 황지본선 공사가 완료되어 개통을 볼 때까지 계속되었다. 통리와 심포리에 열차가 도착하면 짐꾼들이 성시를 이루었고 가끔 노약자를 지게로 옮겨다 주고 돈을 받는 진풍경도 눈에 띄었다.

일제는 점점 전쟁물자가 달라자 장성지역에서의 생산독려가 극에 달하였고 생산량도 연간 약 50만 톤에 이른다. 1200명의 근로자들이 밤낮없이 작업하여 이만한 석탄을 캐낸다는 것은 지금도 힘든 일인데 당시의 열악한 조건을 감안하면 근로자들이 얼마만큼 혹사당했나를 알 수 있다.

장성은 일제수탈의 생생한 현장이었다. 계산동 양지바른 언덕에는 일본인 간부들이 사는 사택과 일본아이들만 다니는 소학교가 들어섰다. 사택은 방 셋에 욕실



과 화장실이 달린 독립주택도 있었고 독신자 합숙소, 4세대 연립주택들을 넓은 대지 위에 건축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였다 그러나 화광동과 협심동 지역에는 방 하나에 부엌이 딸린 약 4평짜리 광부용 연립주택 70여동이 빼곡히 들어서 있었다.

1개동에 10세대가 살았고 화장실은 한동에 하나씩 붙어있고 불편하기가 짝이 없었다. 광부주택 중앙 광장에는 감시 초소가 있고 이 초소에는 조선인 노무계 감시원이 상주하면서 광부들의 동태를 일일이 감시했으며 강제로 출근을 독려했다. 출근시간이 가까워오면 하루에 세번씩 사이렌 소리가 길게 울려 퍼지고 초소감시원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마치 사냥터에 개 설치듯 골목골목을 누비며 출근을 독려했다. 수많은 근로자들의 공포와 저주의 대상이 된 조선인 앞잡이들이었다. 이처럼 일본인들은 교묘한 수단으로 사택촌에서 조선인 집단 사회를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으로 대립시켜 반목을 조장함으로써 그들은 힘 안들이고 이이제이(以夷制夷)식 술수로 지배력을 강화했다.

조선인 광부들에게 더욱 견딜 수 없는 모욕적 대우는 작업후의 목욕 문제였다. 갯 부근에는 목욕장이 없어 광부들은 갯내에서 나오는 길로 막바로 흑인보다 더한 새카만 물골로 콧구멍만한 숙소로 돌아와서 가족들을 대해야 하는데 가족들의 심정이 어떠했을까 더구나 살을 에는 듯한 엄동설한에 비좁은 부엌 한구석에서 탄가루를 씻어내고 잠을 자야하니 옷이고 이불이고 온통 석탄때로 검게 물들어있다. 몸을 붙이고 잠을 잔 부인의 살갗에도 검댕이가 묻어 목욕장에서 놀림감이 되었다는 탄광촌의 이야기는 웃지 못할 탄광촌의 풍속도였다.

일본 큐우슈의 후쿠오카에 살고있는 에구치씨는 57년 전에 이곳 장성탄광에서 안전담당 계원으로 약 3년간 근무하다가 일본군에 징집되어 태평양 전쟁에 참전했던 금년 86세의 노인이다. 그는 80노구를 이끌고 실로50년만에 젊은 시절 한때의 추억을 더듬으면서 이 곳을 찾아왔다. 마치 죄를 범한 사람이 범행장소를 되찾아보는 심리적 관행처럼, 주위사람들의 간곡한 만류로 그는 반세기 동안을 미루어 오다가 대단한 용기와 결단으로 방한을 결심하게 되었다는 것이



다. 오로지 전쟁물자 공급에만 혈안이 되어 광부들의 안전이나 권익문제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던 어쩔 수 없는 당시의 상황을 의식했음 인지 그의 말투는 지나치게 신중했고 자신의 솔직한 의사표시도 인색하다 할 정도로 절제된 것이었다. 그 당시 광부들의 생활상이나 갯내의 상황 특히 갯내사고 사례같은 이야기가 우리의 관심사였는데 안전을 담당한 감독자였던 그는 그런 이야기는 일체 입밖에 내지 않았다. 우리가 듣는 바로는 그때 당시의 광부들의 생활상이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정도로 처참했다고 하는데 그런 그때의 상황은 일언반구도 없이 말끝마다 이렇게 변해 있을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는 것과 그 당시의 탄광개발 여건이 몹시 나빴다는 이야기만을 되풀이할 뿐이었다. 노인을 탓해야 부질없는 일이다 그때일을 소상하게 아는 이는 이제 거의 없고 안다고 해도 희미한 기억이나 소문으로 들어 아는 정도여서 답답할 따름이다.

민족의 영산 태백의 언저리에 태고의 울창했던 숲의 침적(沈積)으로 배태된 석탄, 수수만년 이 태백의 태반 아래에서 유현(幽玄)한 꿈을 키우며 환희의 출생을 기다리고 있던 우리의 석탄, 우리의 옥동자가 아니었던가? 마치 기진한 산모를 밀쳐버리고 아기를 빼돌린 못된 산파 때문에 낭패를 당한 집안처럼 말도 한 마디 못하고 죽도록 고생만하면서 캐낸 석탄이 주인도 모르게 전쟁 물자로 수탈 당하는 사실을 그저 무지무력의 소치로 어쩔 수 없이 당하는 역사적 운명이라고 치부하기엔 너무 억울하고 어이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수탈의 역사이기는 해도 광복과 더불어 그때를 출발점으로 하여 우리의 석탄은 빛을 발하기 시작했고 국가경제가 어려울 때 톡톡히 효자노릇을 했다. 불과 반세기만에 또 다시 찬밥신세로 전락해버린 오늘의 석탄, 충충이 퇴적한 지층처럼 영육으로 점철된 석탄의 역사를 돌아보며 착잡한 심경으로 석탄기(石炭紀, 실은 우리의 석탄은 페름기 지층 속에 있다)의 바랜 화석들을 더듬어본다.

※석탄기: 지질시대의 시대구분 중 고생대의 다섯번째의 시대 유럽에서는 이시대의 지층 속에 많은 석탄이 들어있어 이 이름이 붙여짐 페름기는 고생대 최후의 지질시대로 우리나라의 무연탄층은 이 지질시대에 형성되었음.



## 고원약초 테마파크



장성일(강원일보 기자)

매봉산 기슭인 태백시 창죽동 산 1-2일대 1백55만여평에 올해부터 동양에선 최대 규모를 자랑하게 될 약초와 야생화 허브 공원이 조성된다.

지난해 12월 탄광지역 종합개발 사업으로 추가 선정된 매봉산 허브공원은 비교적 개발비가 적게 드는데다 수익전망도 밝아 시선을 끌고있다.

부지 매입비를 포함, 총개발비가 1백55억원으로 대다수 탄광지역 종합개발 사업들에 비해 절반에도 못미쳐 우선 개발하기가 쉽다.

특히 매봉산 허브공원 조성 예정지는 대부분 면적이 국공유지여서 토지 보상이 지연돼 개발 계획이 차질을 빚을 염려도 적다.

소유자별 토지 면적은 국공유지가 94.7%인 1백46만8천여평인데 비해 사유지는 5.3%인 8만 3천여평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캐나다 부처드 공원등의 선례에 비춰볼때 매봉산 허브공원은 대형탄광에 못지 않은 경기부양효과까지 기대되는 매력만점의 대체산업이다.

부처드 공원은 공원면적이 36만평에 불과하지만 월평균 10억여원의 입장료 수입을 올리며 밴쿠버 섬 일대의 경제를 선도하고 있다.

석회석 폐광지를 복구, 조성된 부처드 공원엔 신혼부부등 월평균 8만여명씩의 관광객이 입장, 공원내 오솔길은 날마다 북새통을 이루고 있다.



밴쿠버섬에 고립되어있는 부처드 공원에 비하면 35호선과 38호선 국도에 인접해 있는 매봉산 허브공원은 나무랄데 없는 교통여건을 갖췄다.

승용차등 자동차를 타고 올 관광객들을 위해 진입도로의 노폭을 15m로 넓게 하고 공원입구에 2천평 규모의 주차장이 개설된다.

더욱이 매봉산 허브공원은 부처드 공원에비해 공원 면적이 훨씬 넓은데다 약초와 야생화의 향기 관상가치등이 월등, 기대가 크다.

해발 1천m대의 매봉산 기슭은 여름 기온이 서늘한 고지대인만큼 약초와 야생화의 향기 색감 건강미등이 어디에도 견줄데 없이 뛰어나다.

야생화는 아니지만 태백시 일원에서 재배되고 있는 안개꽃과 백합등 꽃들은 도매가로 쳐 여타 지역산보다 2배이상 비싼 값에 거래되고 있다.

또 매봉산 허브공원은 한강의 발원지인 검용소와 강원도 유일의 자연생태계 보호지역인 금대봉 일대와의 지척의 거리에 있어 관광가치는 배가되고 있다.

자연생태계 보호지역에 인접, 동식물등 자연생태계 또한 보호가치가 높지만 매봉산 허브공원은 환경친화형 개발이어서 환영받고 있다.

환경파괴율을 최대한 줄이기위해 공원내에 시설될 식당 상가 휴게소 전시관등 건축물들은 모두 통나무를 사용, 짓도록 설계됐다.

이처럼 규모뿐 아니라 질적인 면에서도 동양 제일의 허브공원으로 자리매김될 매봉산 허브공원에선 총 2백81종의 향료 식물을 볼 수 있게 된다.

종류별로는 황기 당귀 천궁등 약초류 40종과 동자꽃 개불알난 하늘나리 구절초 창포등 야생초화류 1백41종이 선을 보일 계획이다.

이들 향료 식물들은 약초공원 약초목장 자연농원 산림욕장 약초관광지 등지에서 갖가지 형태로 상품화돼 관광객들의 넋을 빼놓게 된다.

15만여평의 약초공원에선 약초가 재배되는 모습과 향기를 즐길수 있으며 20만여평의 약초목장에선 한우와 흑염소등이 방목된다.

3만여평의 자연농원에선 야생화 군락지, 10만여평의 산림욕장에선 건강에 좋은 방향물질인 피톤치드를 듬뿍 뿜어낼 숲이 펼쳐진다.



허브 공원다운 특질을 가장 잘 보여줄 약초관광지 3천7백여평에선 약초를 소재로한 먹거리 살거리등을 골고루 구경할 수 있다.

약초관광지내 한방약국과 특산물 판매장에선 약초 한약재등을 살수있으며 한방찜집에선 은은한 약초향이 풍기는 차맛을 볼수있다.

약초 요리타운에선 약초향이 가미된 별미음식, 약초향에선 약초향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물로 목욕을 즐기는 재미를 만끽할 수 있다.

약초전시관에선 약초의 세계를 한눈에 살펴볼수 있도록 각종 약초가 전시되고 치매예방등 약초별 효능이 비디오 영상을 통해 소개된다.

총 6km나 되는 되는 산책로를 따라 약초와 야생화 군락지등을 둘러보노라면 각박한 도심지 생활에서 쌓인 스트레스를 한꺼번에 날려보낼수 있다.

국내 최고의 약초와 야생화 재배적지답게 약초와 야생화를 테마로 한 1.2.3차 산업이 알차게 짜여져 황금알을 낳는 소득원이 된다.

이같은 매봉산 허브공원 조성계획은 지난해 11월 착공된 강원도 고원농업 시험장과 연계, 지역농업의 입지를 반석위에 올려놓게 된다.

강원도 고원농업 시험장은 강원도가 오는 10월까지 32억원을 들여 철암동 51-2일대 1만5천평에 온실등 시설 5백98평을 갖춰 건설한다.

평창 산채실험장 홍천 옥수수 시험장등에 이어 도내에선 다섯번째로 개설될 특화 시험장인 강원도 고원농업 시험장은 약초를 집중 연구한다.

시험장 직원 9명은 유망 약초의 육종과 종자생산 약초 성분 분석등 활동을 벌이며 약초의 본고장인 태백지역의 농업발전에 기여한다.

태백시를 비롯한 정선군 영월군등 강원 남부지역은 황기 재배면적이 전국의 51%인 7백79ha 당귀가 53%인 1천4백 34ha나 된다.

세계 제일의 약효를 자랑하는 강원남부지역산 약초는 지난 94년 개설된 정선 약령시장을 통해 본격적인 판로를 뚫아나가고 있다.

이에 이어 태백농협은 지난 95년 약초음료 가공공장을 설립, 상큼한 맛과 약효가 일품인 고원D등 약초음료로 해외시장까지 공략하고 있다.



약초음료의 원료중 황기는 피부미용 보혈 허약체질 당귀는 부인질환 혈행장애 천궁은 진정 두통 강장등에 탁월한 효과를 인정받고 있다.

지난해엔 황기대추등 신세대 소비자들의 기호에 맞춰 대추나 산수유등 단맛이 나는 부원료를 대폭 가미한 약초음료 9가지가 새로 개발되기도 했다.

근래들어 육군과 공군군납 홍익회 납품등으로 대형 판로처가 속속 뚫리기까지 하자 연간 매출액이 15억원대를 넘어서고 있다.

매봉산 허브공원은 이처럼 강원도 고원농업 시험장 태백농협의 약초음료 가공 공장과 함께 지역의 농업과 관광업계의 전도를 흰히 밝혀줄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



## 연의 유래와 풍속 및 기원

金 判 勇  
(민속연 연구가)  
목포(0631)73.5270

### · 세계 최초의 연은

세계 최초의 연은 B.C 4백년 경. 그리이스의 대철학자 플라톤의 벗이었던 「알투스」라는 사람이 만든 연이라고 한다. 그 후 동양에서는 B.C 200년 경 중국 한나라 때의 장수 한신(韓信)이 군사적 목적으로 연을 사용한 것이 최초라고 전해진다. 당시 한신은 전쟁이 있을 때마다 연에 사람을 태워 적(敵)의 성(城)을 정찰하게 하였다고 한다. 그는 또한 항우(項羽)가 이끄는 초군(楚軍)과 싸울 때에는 소가죽으로 만든 커다란 연아래 바구니를 달아 피리를 잘 부는 사람을 태운 다음 그로 하여금 구슬픈 망향곡(望鄉曲)을 부르게 하므로써, 적병(敵兵)들의 마음을 동요시켜 항복하게 만들었다는 기록도 있다.

한편 「구몽록(鉤夢錄)」에 의하면 오대시대(五代時代)에는 연의 머리에 대나무 피리를 달아 바람이 피리 구멍을 통과하면서 아름다운 소리를 내게 하였다고 하며, 그후 그 연을 「풍필(風簫)」이라 부르기도 하였다고 전해진다.

오랜 옛날부터 민간에 의해 전승되어 내려오고 있는 연은 주로 남자들이 즐기던 연중행사의 하나로서 늦가을부터 정월 대보름날까지 행해지던 민속놀이 중 하나이다.

우리가 전통과 민속을 논제삼아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민족의 번영을 이룩했



고 시련을 당할 때도 은근과 끈기로 수없이 역경을 극복하여 민족문화를 꽃피워 줄기차게 이어가는 슬기와 지혜를 지닌 후손이기 때문이다. 오늘날까지 보존한 연날리기는 우리 조상들이 푸른 하늘에 꿈을 심어 띄우는 옛 서민층의 민중의식을 담은 소박한 민속놀이일 뿐만 아니라 형태나 문양적으로 보아 민예품으로서도 큰 의의를 가지고 있다. 연의 형태에서 보면 조상들의 본능적 조형감각에 의하여 필연적으로 황금분할에 치달한 조형의식과 생활을 통해서 형성된 독특한 형태와 문양으로 이루어져 왔음을 알 수 있다. 비록 조상들의 색채관념은 정신세계를 지배했던 오행사상의 근원인 중국의 문화를 영향 받았지만 연에 나타난 기하학적 문양의 비례는 우리 고유의 연의 문양으로 정착되었다.

우리나라 지연의 제작과정과 문양을 중심으로 연구함으로써 현대에 있어 전통 민예품으로 지연이 차지한 위치와 그 중요성을 현대공예에 응용 발전시켜 한국의 독특한 전통문화를 계승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해야 한다.

다음은 연의 특성을 이해하기 위해 연의 유래와 풍속, 그리고 기원을 통해 그 시대적 배경과 사용된 의도를 살펴보고자 한다.

연의 조형미와 연의 과학적인 구조와 지연의 색채를 통해 우리 조상들의 색채관념과 연이 지닌 특성을 규명하고 지연의 유형을 통해서 연을 형태별로 구분하고 우리나라 연을 대표하는 장방형을 조사함으로써 전통문양에서 현대 각 지방에 이르기까지 문양의 변형을 규명하고자 한다.

## · 연의 기원 및 연의 역할

우리나라 옛 풍속에 관한 문헌을 보면 위지 동이전에 삼국의 명절인 예국의 무천, 부여의 영고, 고구려의 동맹에는 온 나라의 백성이 제사를 지내고 신당앞 광장에서 온갖 가무와 기예와 오락 등이 벌어졌다는 기록으로 고대사회의 제천의식 후에 가무행사의 하나로 연날리기가 있었지 않았나하는 견해가 있다.

우리나라의 연에 관한 문헌상 최초의 기록은 「삼국사기」 예전 김유신 상조에



서 볼 수 있다. 선덕여왕 16년이자 진덕왕 즉위 원년 정미년(647)에 대신 비담과 염중은 여왕으로서는 나라를 다스릴 수 없다는 구실로 내란을 일으켜 여왕을 폐위시키려 했다.

왕군은 월성에 주둔했고 반란군은 명활성을 근거로 하여 10여일을 싸웠으나 승부가 나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날 밤, 삼경에 큰 별뚱이 떨어진 자리에는 반드시 유혈이 있다고 하니 이는 바로 여왕군이 패망할 징조라 하니 여왕이 크게 두려워 했다.

이때 왕사의 지위관 김유신장군이 여왕을 진정시키고 「우인」(허수아비인형)을 만들어 큰 연에 매달아 불을 질러 올려 보내니 마치 별이 하늘로 솟아오르는 것같이 보였다.

다음 날, 「어제밤에 떨어졌던 별이 도로 하늘로 올라갔다.」고 소문을 내어 병사들의 사기를 돋운 다음 반란을 진압했다고 한다. 이 문헌으로 보아 우리나라 연의 기원은 삼국시대 때 형태는 어떻든 공중에 띄우는 연을 사용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밖에 연에 관련된 전설로는 고려의 명장 최영장군의 일화가 있다. 우리나라 현재의 연은 바로 이 전설에서 유래되었다고 한다.

고려 말, 최영장군이 탐라(지금의 제주도)의 목호(몽고인으로서 목축하는 사람)의 반란을 평정할 때(1374년) 군대를 배에 싣고 탐라에 이르자 섬의 사방이 절벽이라 상륙할 수가 없었다. 이에 꾀를 내어 수많은 대지연을 만들어서 지연에다 불을 달아 지자성을 정복하였다고 하며, 또 일설에는 병사를 대지연에 매달리게 하여 병선에서 이를 날려 그 성을 공략하였다고 한다.

그리하여 그 기원을 최영장군의 탐라정벌시에서 비롯한 것으로 말하기도 한다. 그리고 삼국시대에 전쟁이 있었을 때 자기편 진지에서 자기편 진지로 통신 연락의 한 방편으로 사용했는데서 기인한다고 한다. 그리하여 일부에서는 기원을 삼국시대로 보고 있다.

연은 우리나라 뿐 아니라, 일본 등 여러 나라가 전쟁과 관련되어 반사적 목적



으로 통신연락 또는 전쟁의 도구로 이용했다고 한다.

지금부터 약 400년 전(1592년)임진왜란 시 충무공 이순신장군께서 작전의 신호 및 암호용으로 그려졌다는 수십가지의 연의 문양, 그리고 각기 다른 문양으로서 잘 조화된 색상이며 그 연 문양마다의 이름하며 대나무(竹)를 교묘하게 다듬은 연은 살대, 그리고 연의 크기에 이르기까지 실로 과학적인 제작방법이 아니라 할 수 없다. 당시 이렇게 제작된 연으로서 전략상 통신 및 암호로 사용하였다고 한다.

예를 들면 연의 문양에 따라 명령이 달랐다. 가령 「삼봉산」 문양의 연을 날리면 흩어져 있는 모든 전선과 병사를 삼봉산 앞바다로 집결하라는 뜻이었으며, 삼봉산의 위치는 통영군 용남면 장목과 거제군 사이에 있는 산이름이다. 또는 「기바리」 연의 문양이 올라가면 백병전으로 왜적과 싸우라는 사전 신호의 뜻이며 「돌쫓 바지개」 연을 올리면 병참이나 병기의 보급을 알리는 뜻이며 「수리당가리」 연이 올라가면 적의 사향을 정찰하라는 명령이다. 이러한 연들이 각기 다른 30여종의 문양에 따라 명령이 달랐다.

연의 색상에 있어서는 우리 민족은 오행사상을 바탕으로 오색을 기본색으로 빨강(赤), 파랑(靑), 노랑(黃), 세 가지 유채색과 흑(黑), 백(白)의 무채색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음양오행 사상에서 나오는 오방위를 상징하며 청색은 동쪽, 적색은 남쪽, 황색은 중앙, 흑색은 북쪽, 백색은 음색으로 서쪽이 된다.

예를 들면 청색 바탕에 문양이 그려진 연이 올라가면 동쪽 바탕의 적선을 공격하라는 명령이 되므로 청·적색의 문양이 그려진 연이 오르면 적의 동쪽과 남쪽을 동시 공격하라는 뜻이 된다. (이것은 적을 분산시키는 신호임)이 모든 것이 임진왜란때 충무공 이순신장군께서 31점의 신호 및 암호를 연으로서 사용했다고 전해 진다. 이 연의 문양만이 400여년의 전통으로 내려 왔기에 충무공의 문화유산이라 아니할 수 없다. 우리 후손에게 물려 주신 이 고귀한 문화유산의 통신 및 암호연에 대해서 전 국민이 보존 및 전승하기 위한 계기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육조시대에도 지연 날리기가 성행했던 것 같다. 그리고 당나라 시대의 속박물지에 「금지연견사이상 령소아편장일망시 이에내열야」라고 한 것을 보면 당대에 와서는 더욱 성행한 것 같이 보인다. 또 일본에도 지연에 대한 기록이 보이니 평안조 시대에 된 왜명류취초 잡예부에는 「지로시세간운사로지 이지위시형 불태풍비 운지연」이라고 기록되어 있음을 보아 지연이 평안조 시대에는 이미 존재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일본 민간에도 지연을 전쟁때에 이용하고 또 한 건축하는데 있어 지연을 이용, 벽돌을 쉽게올렸다는 속설도 있다.

연들은 몇몇 나라의 문호 및 구비전설을 보면 지연의 기원이 타국에 있는것이 아니요, 모두 자기네 민족국가에서 일어난 것으로 되어 있으며 혹은 빠르고 늦은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어느 한 국가, 어느 한 민족의 고안에서만으로 된 것이 아니고 고대 사회에 있어서 세계 제민족간에 어떤 공통성을 띤 행사 때에 제각기 동시에 일어난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이 지연이 유희용으로 일반으로 사용되었다고 하기보다 오히려 기예로서 쓰여졌을것이라 생각되므로 우리나라 연날리기 세시풍속을 우리 민간에 있어서 연대행사의 하나이며 오랜 옛날부터 전승되어 오는 민족전래의 기예의 하나로서 소년에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남성들의 흥미를 끌어 수십년 전까지만 해도 음력 정초가 되면 경향 각지 각처에서 성행하여 장관을 이루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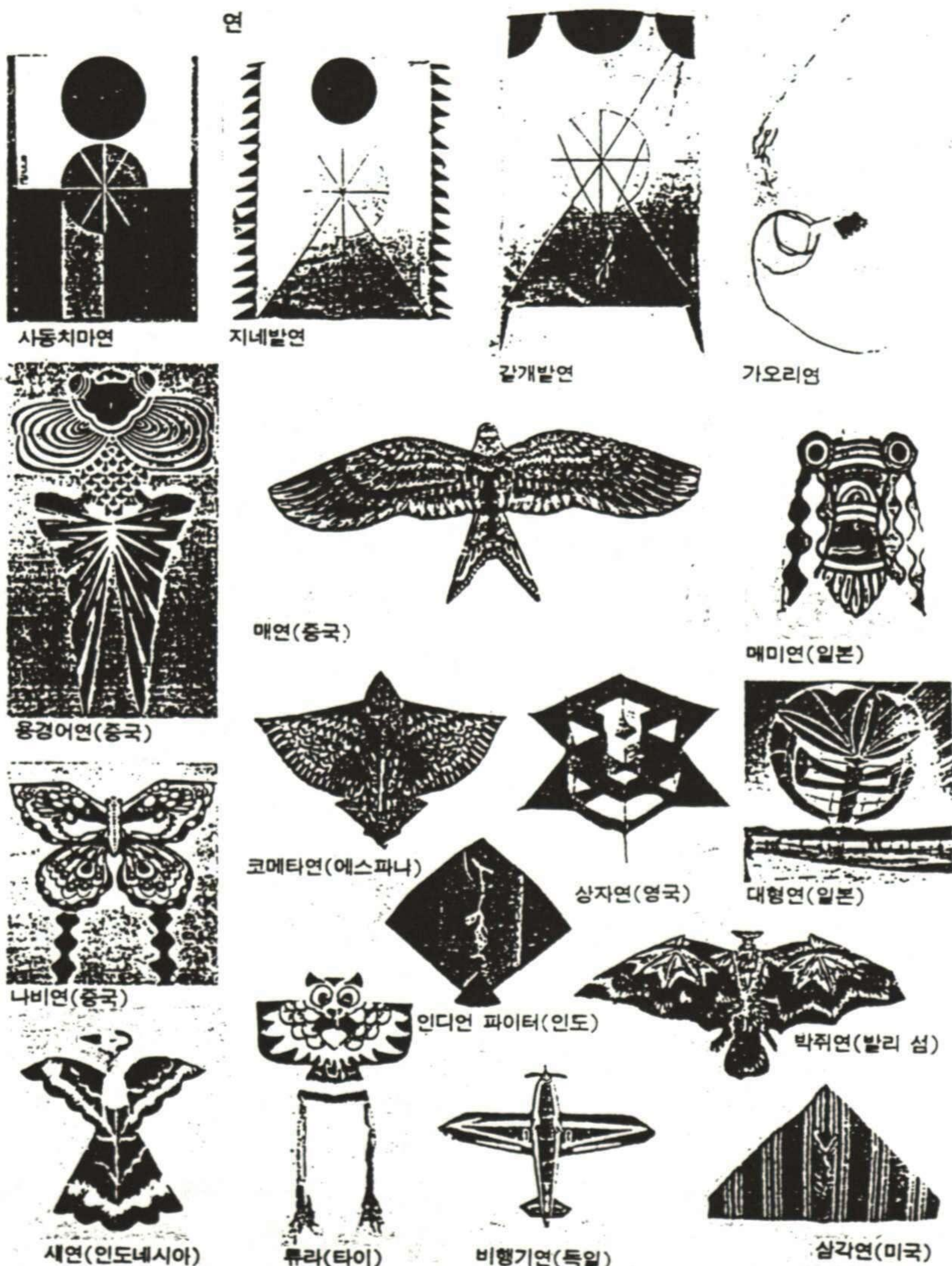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연의 기원은 바로 최영장군의 탐라정벌시에서부터 비롯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임진왜란 때 삼도수군통제사로 있었던 충무공이 전략상 사용한 신호연은 무늬와 색상에 따라 각기 고유명칭과 신호법이 있다. 또한 각 문양은 자연만물을 상징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 신호연의 특징이라 하겠다.

서기 1724년 영조대왕시에는 대궐에서 청, 홍편을 나누어 연을 날렸고 동리별로는 백성들의 화합을 도모코져 연날리는 것을 장려하고 즐겨 관전함에 역대 제왕중 문화창달에 가장 힘쓰신 분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한편 조선시대 이후에는 일제의 민족말살 정책으로, 그 후로는 6·25동란 등으로 연날리기는 날로 사라져가는 민속이 되어왔다. 그러나 자유당때 민족정신을



계승하자는 뜻에서 정부는 정책적으로 연날리기 놀이를 장려하여(서기 1954)문화공보부에서는 전국 각처에 흩어져 있는 연기능 보유자들을 수소문하여 연날리기 대회를 광복후 처음으로 열게 되었고, 그후 1956년 한국일보사 주최 제1회 전국 연날리기 대회가 서울에서 개최되어 당시 이승만 대통령께서도 매년 대회장에 나와 관전도 하고 연도 날리며 연에 대한 관심을 가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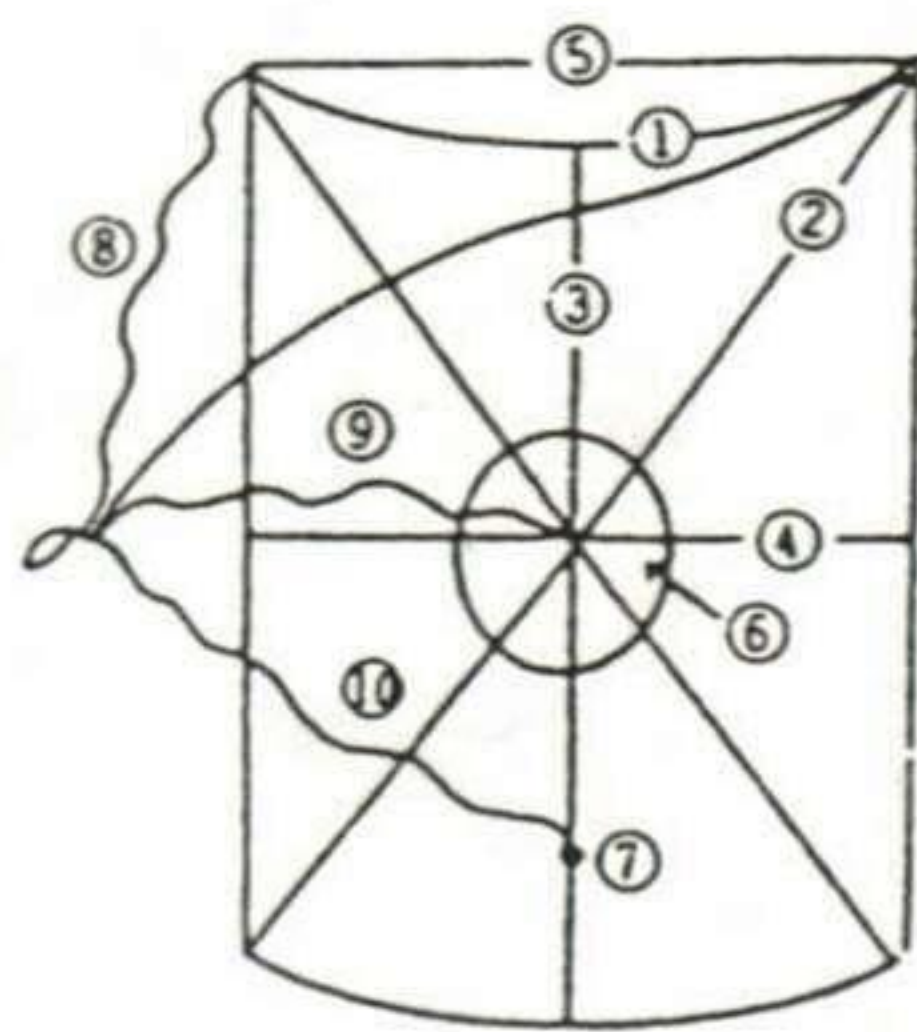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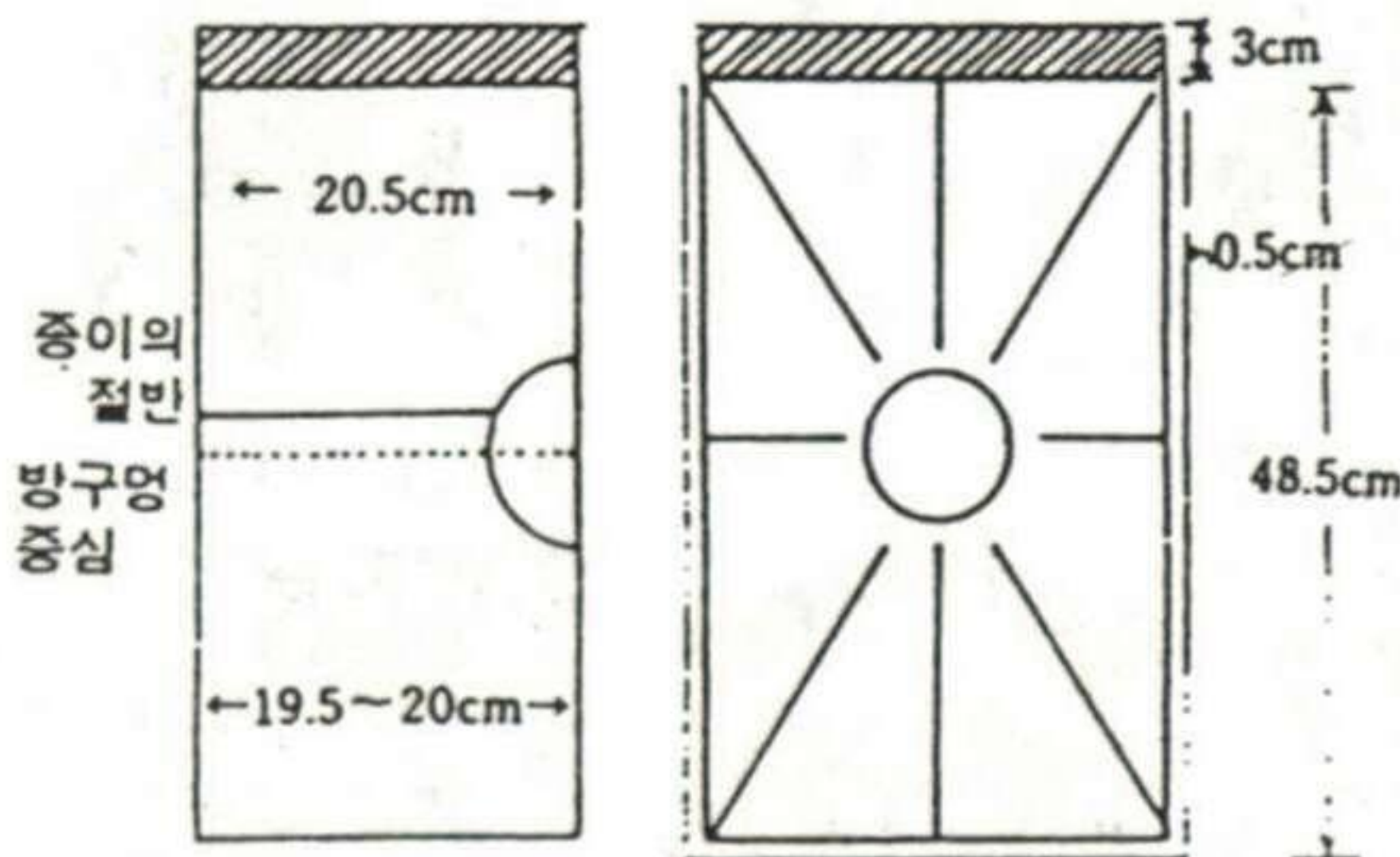
## 연 만들기

재료-창호지(한지)비닐포장지 대나무(잘마른것으로 마디가 적은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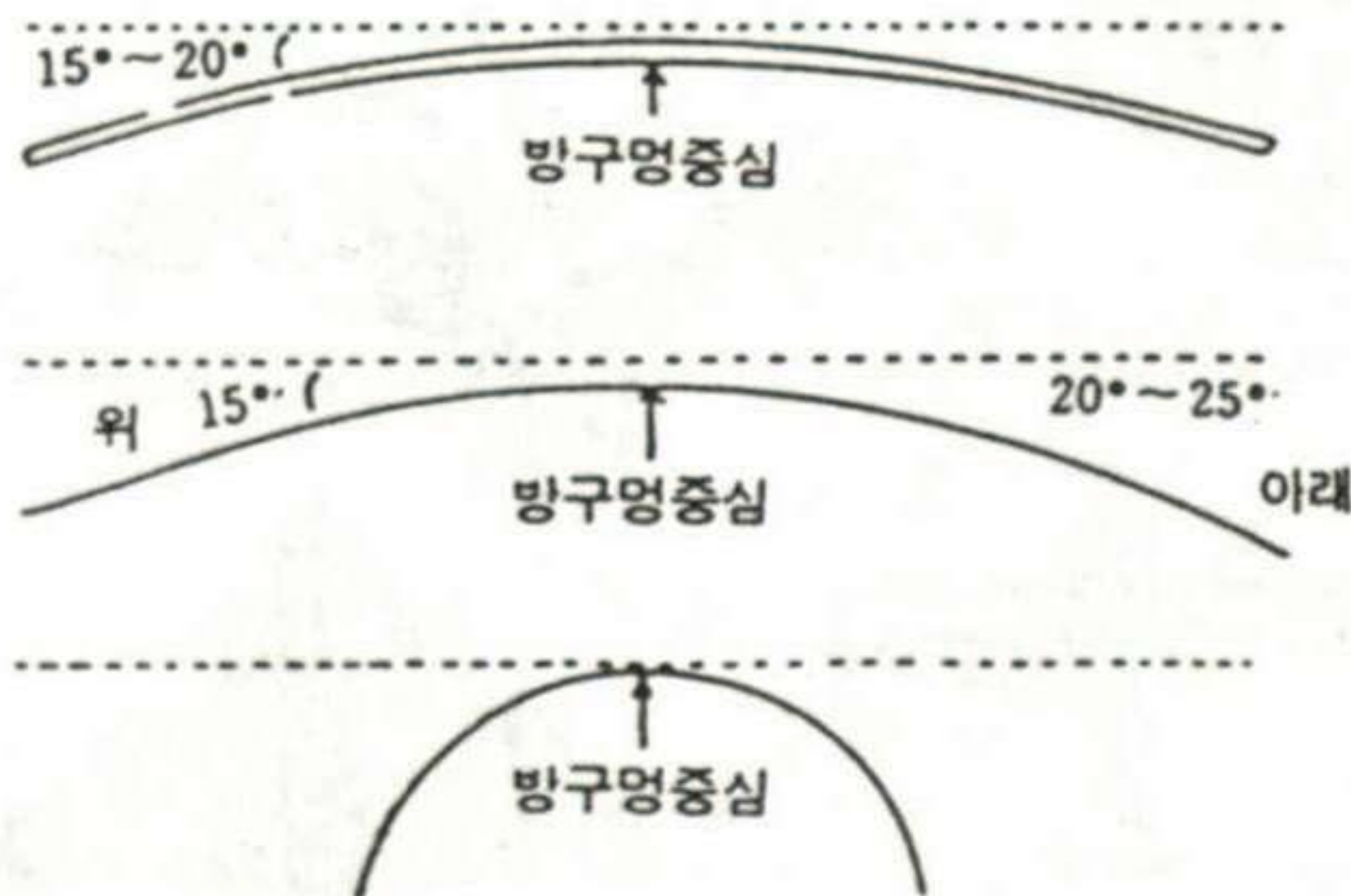
### ○ 각부분의 명칭



1. 머리살
2. 장살
3. 중살
4. 허릿살
5. 할벌잇줄
6. 방구멍
7. 공숫구멍
8. 벌잇줄
9. 가운데줄
10. 공숫줄



뗏살 단면도



· 마름질-비행물체이므로 정교함을 요구한다.

1:1.3(가로 33cm 이하일 때)

예)가로 32cm일때 세로 41.5cm

1:1.2(가로 35cm이상일때)

예)가로40cm일때 세로 48cm

가로 60cm일때 세로 72cm

· 재단-가로 40cm 세로 48cm의 연을 만드는 경우 가로 폭이 아래가 위보다 1~2cm 짧은 것은 연을 만든후 머릿살을 휘기 때문에 균형을 맞추기 위한 것이며 따라서 방구멍의 중심이 0.5cm정도 아래쪽이 된다. 방구멍 지름은 가로길이 1/3쯤이 적당하다.

펼친후 대나무 붙일 부분을 미리 그려두면 편리하다.

· 대나무 다듬기

대나무 껍질 부분은 남기고 속살부분을 둥글게 깎는 것이 같은 두께라면 탄력이 좋다.

· 머리살

양끝을 쥐고 가볍게 휘었을때 고르게 활골로 휘어져야 하고 휘어지는 각도는 약 15°~20°일때가 좋다.

· 장살

윗부분부터 아래로 갈수록 많이 꺾는다. 장살 2개를 같이 쥐고 휘었을때 휘어지는 정도가 똑같아야하며 위쪽은 15° 아래쪽은 20°~25°가 적당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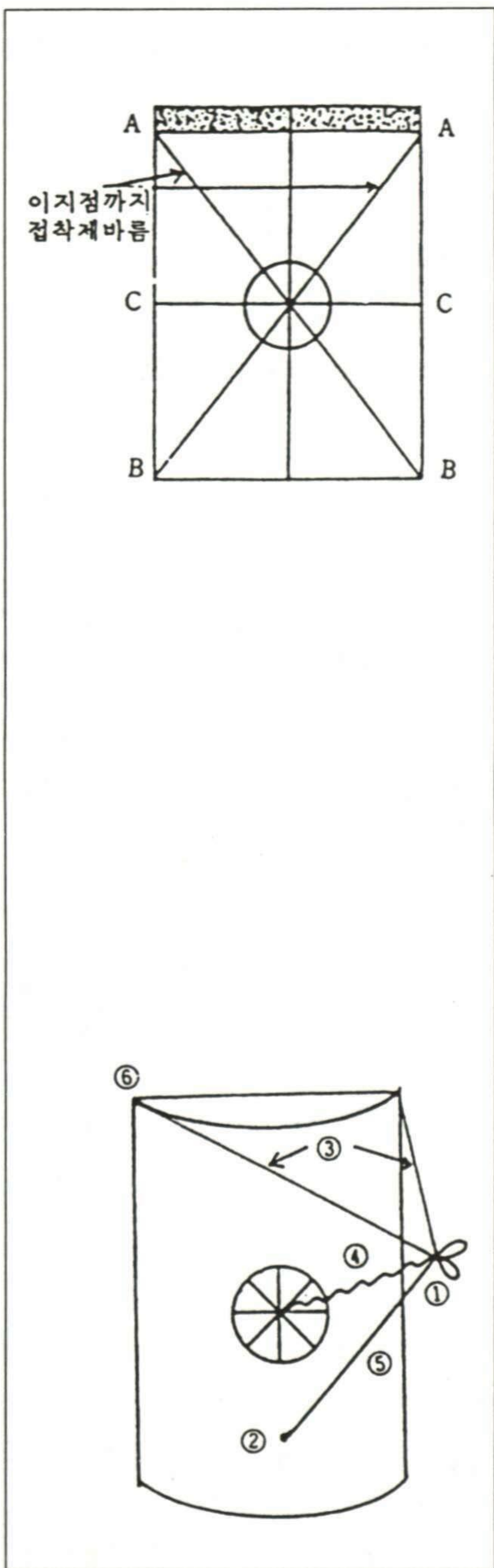
· 중살

장살과 동일하다.

· 허릿살

얇게 꺾는다. 두께 1mm, 너비 2mm정도 휘어짐이 아주 부드러워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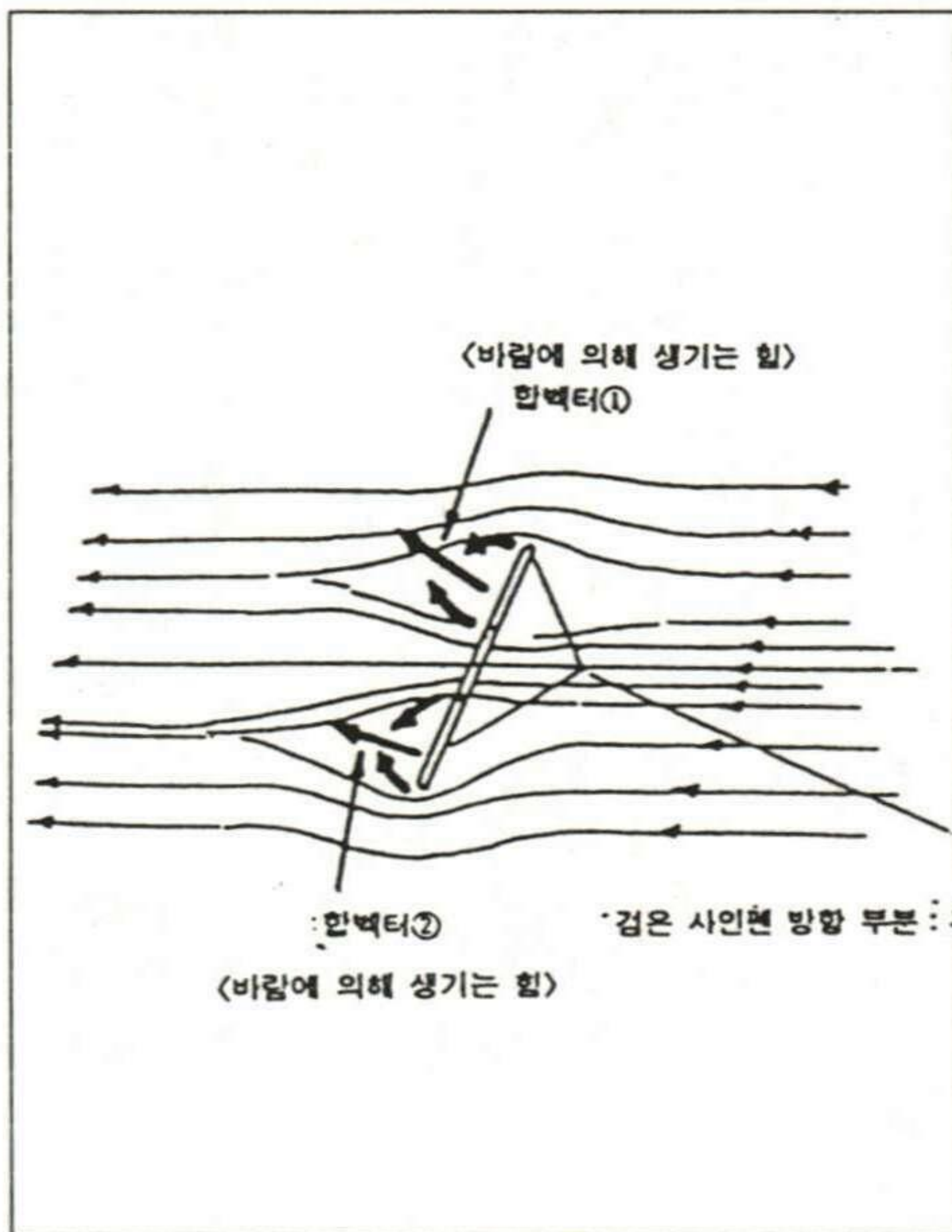
## · 붙이는 방법

- ① 머릿살을 붙인다.
- ② 장살 위쪽 5cm~10cm 지점까지 접착제를 붙여 굳을때까지 기다린다.
- ③ 굳은후 장살 아래부분까지 접착제를 칠한후 뒤집고 A부분모퉁이를 머릿살과 장살이 포개진부분을 양발 끝으로 뺀고 장살이 교차되는 곳에 2cm 높이의 병뚜껑을 놓는다.
- ④ B지점 종이를 엄지와 검지로 잡은 후 앞으로 밀어 당기면서 붙인다. 이때 미리 그어놓은 선과 대나무가 일치해야하며 C부분이 바닥면에 고루 닿아 있어야 한다.
- ⑤그리하면 방구멍부분이 볼록 올라오게 되는데 그대로 오랜시간 굳어질때를 기다린후 중살을 밑에서 위로 장살을 종이 사이로 끼워 붙인다.
- ⑥ 허리살은 중살과 종이 사이를 끼워 붙인다.
- ⑦ 연을 뒤집어 방구멍 위에서 보면 허리살, 중살, 장살 순으로 되어 있으면 된다.

## · 방줄매기

- 풍긋구멍②은 방구멍의 중심과 연아래부분 중앙에 뚫는다. (이때 풍긋구멍이 더 위로 올라가면 연놀림이 빠르고 더 아래로 내려오면 연놀림이 둔해진다)
- ③번줄을 똑같이 잡아 맨다. 이때 매듭이 풍긋구멍과 일치해야 한다.
- ⑤번줄을 풍긋구멍에 넣어 맬준비하며 ①번 매듭이 ⑥번모퉁이에서 0.5cm밑에 위치하게 한 후 ⑤번줄을 맨다. 이때 연놀림이 빠르면 더 아래로 오도록 고쳐맨다.
- ④번줄은 바람이 셀경우 연의 뒤집히는 것을 막기위한 것이니 ①번줄을 잡고 있을때 ④번줄은 느슨해야 한다.





**· 곧바로 뜨지 않을때 (병잡기)**

- 연이 좌측으로 기울거나 돌 때에는 우측 장살을 뒤로 눌러 제긴다.
- 연이 우측으로 기울거나 돌 때에는 좌측 장살을 뒤로 눌러제긴다.

**· 방패연이 뜨는 원리**

연을 지나는 유체(공기)합벡터①+합벡터②의 방향으로 양력(揚力)을 발생시켜 연을 잡아 당기면 연이 위로 상승하게 된다.

**연의 방향전환**

연실을 감으면 연의 머리가 향하고 있는 방향으로 직진하고 줄을 늦추어주는 양에 따라 상하 좌우 다양한 방향으로 전환할 수 있다. 그러므로 바람을 등지고 눈에 보이는 좌우(180°)어느곳 높낮이에 관계없이 연을 조종하여 보낼 수 있다.

**경기용 실의 제작(사매김)**

예전에는 물고기의 부레 아교 등으로 유리를 가루내어 사기를 입혔으나 요즘에는 우레탄 조유가 접착제로 쓰이고 연마용 금강석 가루가 유리가루 대신 쓰이고 있다.

①원사→ ②접착제+경화제→ ③형접으로 꼭쥐어 닦아낸다→ ④금강석 가루분 통과→ ⑤말림 이때 ② ③과정을 세번 반복하는데 ③번 과정의 여하에 따라 실의 품질이 결정된다.

**경기종류**

현재 전국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시합은 2인 1조 토너먼트 주종을 이루고 그밖에 3인 4인 연승식 단체전 무차별 경기 등이 있으며 각지역 동호인 단체별로 연승식 청백전 단승식 단체전등이 행해지고 있으며 2인조 복식 리그전등은 연구과정에 있다. 더 많은 연구와 실험이 계속되어야 할 부분이다.



## 가오리연 제작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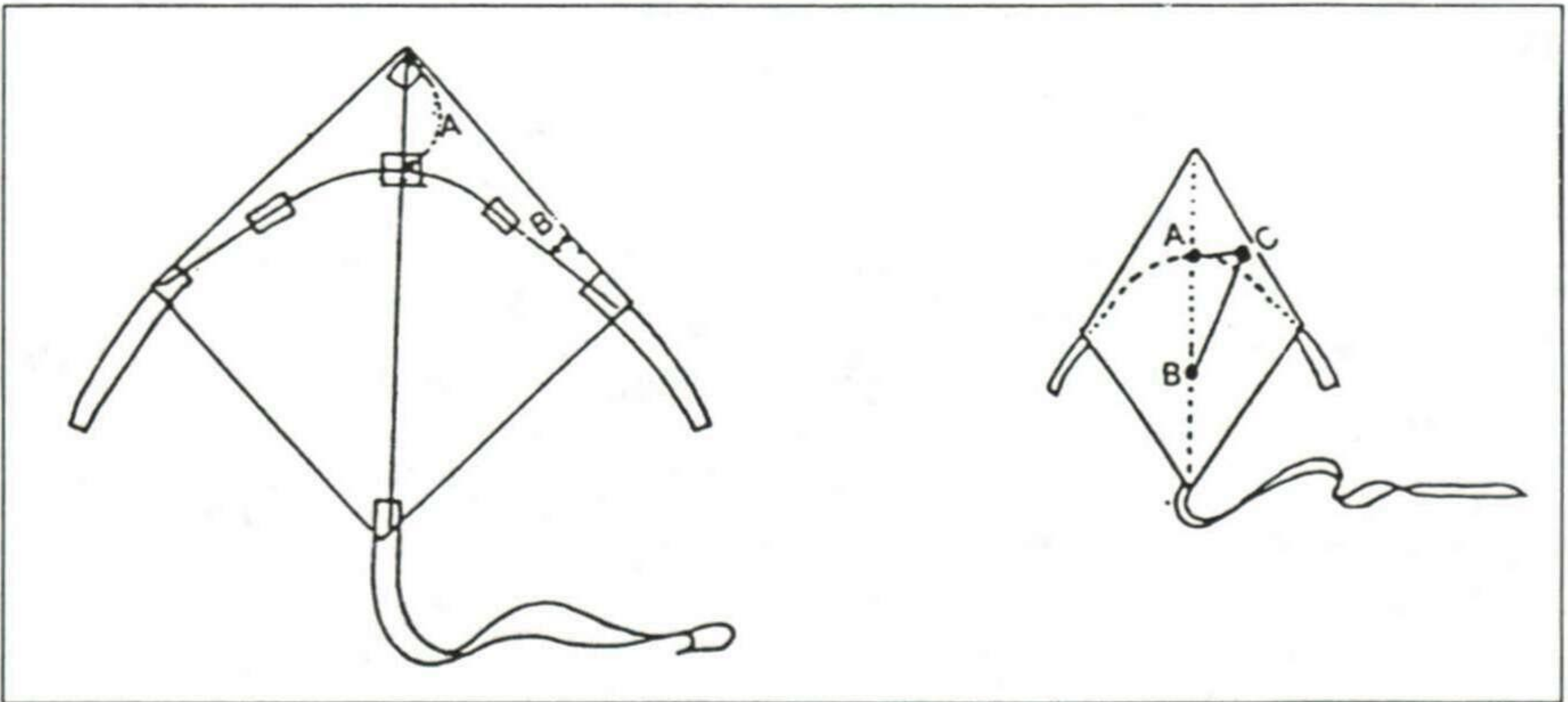
□재료: 창호지, 대나무, 접착제

①중심살을 겉부분에 접착제를 발라 붙인다.

②어깨살은 고루 둥글게 깎아 붙인다.

이때 A,B부분이 짧을수록 좋고 B부분의 간격 역시 2cm이내가 되도록 한다.

③날개길이는 30cm 정도가 적당하며 꼬리는 1.5m가 적당하다.



## 방줄매기

①A지점부터 아래 끝부분의 중앙에 구멍B를 뚫고 B에서 C지점까지 길이가 A에 C까지의 1.5배로 하면 된다.

## 경기연 공격방어의 기본원리

### 용 어

1. 뿌리기(일명 탕금) : 줄은 빨리 감다가 얼른 얼레를 전면으로 향하게 하여 줄을 순식간에 많이 풀리게 하는 행위
2. 감아치기 : 상대줄 밑으로 들어가 감아올려서 끊는 방법
3. 찍 기 : 상대줄 위에서 아래로 빨리 감으면서 뿌리기(탕금)를 하면서 상대실을 끊는 행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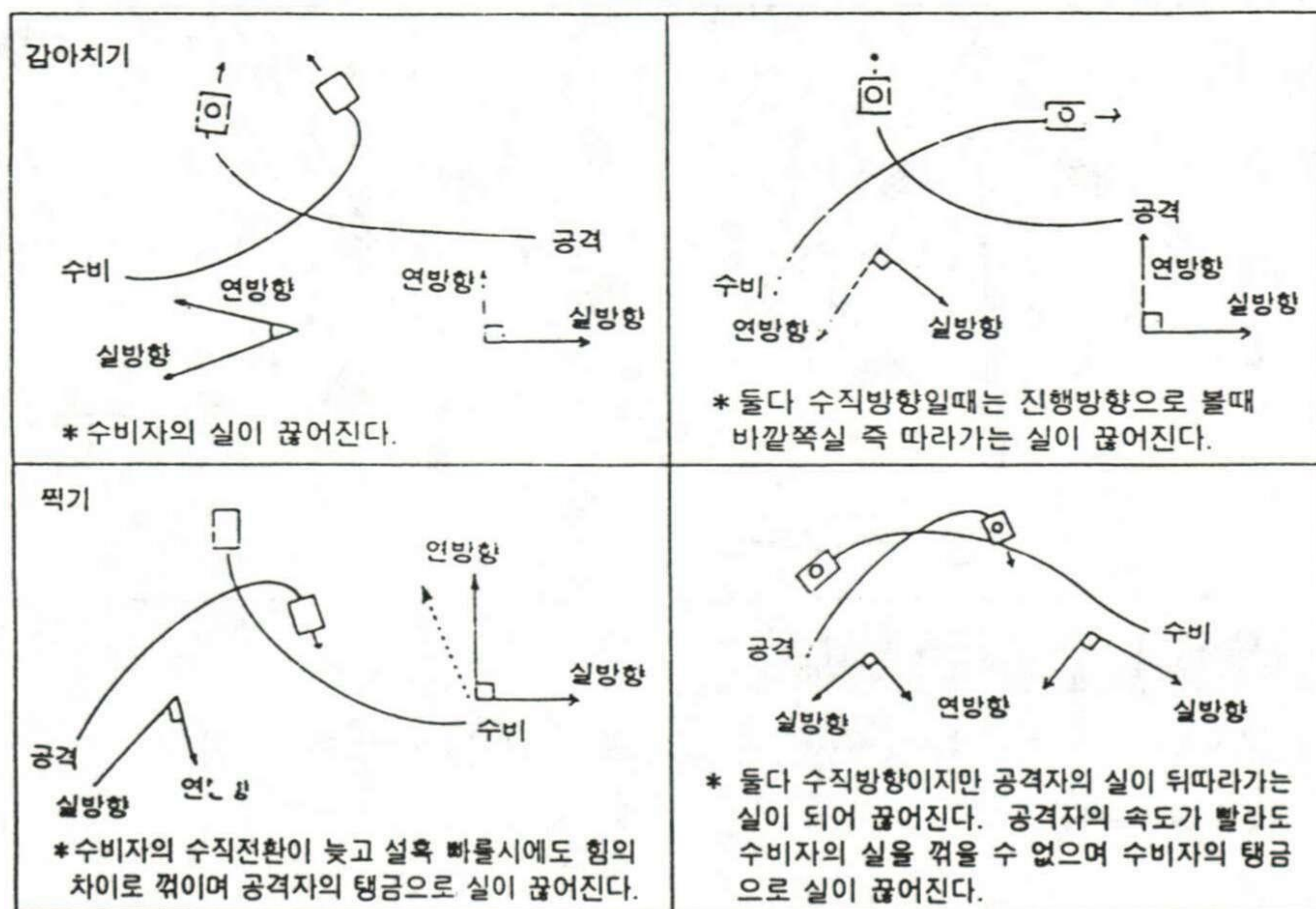


기본원리 : 연줄 끊기는 근본적으로 각도와 속도 힘의 싸움이다. 연의 진행 방향과 실의 진행방향이 수직일때 힘이 극대화되는데 예를 들면 상대실을 꺾는 경우 상대방의 실과 연의 진행방향이 수직일때 각도가 좁게 되어 끊어지는 것이다.

### 각도를 수직으로 하여 힘을 극대화하는 몇가지 예

굵은줄은 아랫연실

가는줄은 윗연실



초보자를 위한 상세도

기타 여러 가지 공격법은 이 4가지의 응용이며 각자 자기의 공격형태에서 각도 개념을 도입해 보기 바란다.

이상은 상대 연줄끊기에서 기본이 되는 공식으로 감아치기에서도 상대의 공격을 사전에 파악하면 후퇴하다 공격을 할 수 있는 방어술이 있어 지피지기면 백



전백승할 수 있는 승률은 얻을수 있으나 고도의 정신집중과 순간의 민첩성이 병행해야 함은 이상의 그림으로 짐작할 수 있다. 기민한 공격, 재빠른 반격, 계략적인 유도전술, 상대를 자극하는 신경전, 대담한 공격술, 상대의 연을 파손시키는 어려운 전법등을 기본공식에 꼭병행해야 필승의 전략이라 할 수 있겠다.

## ● 연의 종류

첫째: 색채와 문양은 기하학적 문양과 민간신앙에 나타나는 동·식물문양과 중국의 음양 오행사상의 영향으로 오채색을 썼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지연의 형태적 유형을 분석해 보면, 우리 전통연의 99%이상 차지하고 있는 사각으로된 장방형연과 어린이들이 쉽게 날릴 수 있는 마름모꼴의 가오리연과 제작인의 창의성에 따라 특별한 규정없이 만든 창작연으로 3가지 나눌 수 있다.

1) 우리나라 대표적인 장방형연의 형태적 비유를 볼 것 같으면 황금분할을 이룬 가로2, 세로 3으로서 모든 연의 크기에 적용되며 평균수치는 대연은 가로 58~60cm, 세로 88~90cm, 중연은 가로 38~40cm, 세로58~60cm, 소연은 가로 30cm, 세로40cm의 통계로 연의 크기가 나타났다.

2) 우리나라 연 형태가 사각 장방형으로 되어 있어 소박하고 우직한 조상들의 성품이 연의 모양에도 그대로 드러나 기교에 넘치는 장식이나 아름다움을 위한 노력이 엿보이지 않으나 본능적 조형감각에 의해 연의 크기가 정해진다.

셋째: 문양적으로 분석해보면

1) 민간신앙에서 출발하는 동물문양(거북, 봉황, 박쥐, 나비, 제비, 고기비늘, 용)과 사물문양(바둑판, 문자, 산봉산, 말굽, 접시, 쟁반)과 기하학적문양(원, 반원, 사각형,삼각형 또는 이들의 변형)이 사용되었다.



## 太白地方의 歲時風俗



金 剛 山

우리 나라의 세시풍속은 음력을 기준으로 행해진다. 농경사회에서는 음력절기가 농사 짓는데 더 정확하다고 한다. 그러나 24절기는 양력으로 되어있어 음력과 양력을 혼용하는 지혜도 보였다.

특히 음력을 사용하면서 윤달(閏月)이 생겨 윤달로 인한 독특한 풍속이 있기도 하다.

우리 조상들은 1년을 12달로 나눈 가운데 각 달마다 독특한 행사와 음식 등을 만들기도 해 1년간의 시간생활의 지표 구실도 하고, 생활의 단조로움을 벗어나 윤택과 위안을 주기도 했다.

### 정 월(正月)

#### 1. 설

정월 초하루를 설날이라하여 아침에 연시제(年始祭)라 하여 조상에게 새해가 되었음을 고하는 차례를 지낸다.

또한 설빔이라하여 설날 입을 새옷이나 그 밖에 선물을 준비하기도 한다.



## 2. 세배(歲拜)

설날 아침 집안 어른과 이웃 어른 친척 어른들에게 절을 한다. 한 해를 시작하는 날에 드리는 절이라 세배(歲拜)라 한다. 세배할때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또는 「오래 오래 건강하십시오」 한다. 세배는 초하룻날에 종가집부터 실시하고, 그 밖에 동네 어른들과 상막이 있는 집은 초이틀 부터 찾아다니며 세배드리면 음식을 마련하였다가 내어 준다. 처가집 세배는 앵두꽃 꺾어 가지고 간다는 속담이 있어 정초에 가지 않고 천천히 가도 된다는 뜻이다.

세배는 초하룻날부터 보름까지도 한다.

## 3. 덕담(德談)

세배할때나 새해에 어른 또는 친지를 만나면 말로써 새해 인사를 교환하는데, 상대방이 바라는 바를 성취하도록 말을하여 주는것이 덕담이다. 대개 덕담은 나이 많은 사람이 하게 되는데 아들이 없는 집 사람을 만나면 「새해에는 꼭 아들을 봐야지」 한다. 그러면 듣는쪽은 긍정하는 태도를 보이거나 가볍게 「예」 하고 대답한다.

## 4. 세찬과 세주(歲饌, 歲酒)

설날 차례를 위해 마련하는 여러 가지 음식을 세찬이라 한다. 세찬은 차례를 지내는 집과 그렇지 않은 집, 그리고 살림이 넉넉한 집과 그렇지 못한집의 음식은 다르다. 그러나 어느집이고 떡을 준비해 차례상에 올리거나 떡국을 끓여 먹는다. 정초에는 친척이나 이웃을 불러 떡국을 나누어 먹고 설날 마시는 술을 세주라 한다.

## 5. 복조리

정초에 복조리를 사서 벽에 걸어두고 성냥을 담아 두면 복을 받고 살림이 불같이 일어난다고 한다. 성냥과 함께 실타래를 담아 두기도 한다.



## 6. 윷놀이

정초에 가장 많이 하는 놀이가 윷놀이 이다. 남녀노소 누구나 즐기는 놀이로서 방안이나 마당 어디서고 할 수 있는 놀이이다. 두 사람 이상만 되면 편을 갈라 승부를 겨룬다. 미리 마련한 윷말판에 윷을 던져 나타난 수대로 말을 전진시켜 말 네개가 먼저 나가는 편이 이기게 된다.

윷의 종류로는 종지윷, 밤윷, 장작윷 등이 있는데 종지윷은 술종지 속에 넣어 흔들어 던지는 작은 윷이고 밤윷은 큰 밤톨만한데 삼각형으로 되어 있고 장작윷은 긴 나무를 쪼갠 형태의 윷이다.

## 7. 널뛰기

정초에 부녀자들이 하는 놀이로 널뛰기가 있다. 특히 인일(寅日)은 범날이라하여 널 머리로 범의 대가리를 깨부신다는 뜻으로 널뛰기를 한다. 그리하면 호환(虎患)을 예방한다고 한다. 널은 너비가 한자 가량 길이는 열자 가량되고 두께 약 2치 되는데 짚단이나 가마니를 말아 널판자 가운데에 고여 놓고 양쪽에 한 사람씩 올라서서 발을 굴러 공중 높이 솟아 뛰는 놀이이다. 한 사람이 뛰었다 내리 디디는 힘의 반동으로 상대방이 솟구치게 된다.

## 8. 연 날리기

정초에 청소년들이 많이하는 놀이로 연날리기가 있다. 연은 한지와 대나무나 싸리나무로 만든다. 연은 방패연과 가오리(洪魚)연이 주종을 이루는데 멀리 날리기에는 방패연이 좋다. 가끔 연싸움을 하는데 연 끊어 먹기라 한다.

사금파리를 뿔아 풀에 짓이겨 연줄에 메겨 놓으면 상대방의 연줄이 닿아 마찰이 되면 끊어 진다. 대개 연은 정초에서 보름까지 날리는데 보름이 되면 연에 이름과 생년월일을 써서 높이 날린 다음 연줄을 끊어 연을 멀리 날려 보낸다. 이렇게 하면 한해의 액운이 모두 연에 실려 날아가 버린다고 한다. 이때 연이 고향간다고 한다.



## 9. 입춘방(立春榜)

대개 정월초순에 입춘이 드는데 입춘날이 되면 각 가정에서 대문이나 기둥 등에 입춘서(立春書) 또는 입춘축이라하여 좋은 글귀를 써서 붙인다. 글을 잘쓰는 사람은 직접 써서 붙이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다른 사람에게 부탁하여 붙인다. 그러나 상중(喪中)에 있는 집은 입춘서를 써서 붙이지 않는다. 입춘서에는 일정한 격식의 문장이 정해져 있는데 가장 많이 쓰는 것이 입춘대길(立春大吉), 건양다경(建陽多慶)이다. 입춘서는 대개 대련(對聯)으로 되어 있는데 국태민안(國泰民安) 가급인족(家給人足), 우순풍조(雨順風調) 시화년풍(時和年豐), 수여산(壽如山) 부여해(富如海), 거천재(去千災) 래백복(來百福), 개문만복래(開門萬福來) 소지황금출(掃地黃金出), 부모천년수(父母千年壽) 자손만대영(子孫萬大榮), 천하태평춘(天下太平春) 사방무일사(四方無一事), 천상삼양근(天上三陽近) 인간오복래(人間五福來), 문영춘하추동복(門迎春夏秋冬福) 호납동서남북재(戶納東西南北財), 천증세월인증수(天增歲月人增壽) 춘만건곤복만가(春滿乾坤福滿家) 등이다.

## 10. 신수보기.

정초가 되면 한해의 신수(身數)를 보기 위해 점을 치는 풍습이 있다.

가장 많이 보는 것이 토정비결(土亭秘訣)이다. 토정비결은 토정 이지함의 소작이라 하는데 한해의 운세를 매달로 나누어 풀이하고 달은 상순, 중순, 하순으로 나누어 풀이를 하고 있다. 특히 삼척지방과 태백지방은 유난히 토정비결을 많이 보는데 토정비결을 청낭비결이라고 하기도 한다.

## 11. 정초 일진(日辰) 가리기

정월 초하루부터 12일까지 12가지 일진(日辰)이 있는데 일진에 따라 유모일(有毛日)과 무모일(無毛日)이 있다. 진일(辰日)과 사일(巳日)을 무모일이라 하고 그밖의 일진은 유모일이라 한다. 설날이 유모일이면 풍년이 들고 무모일이면 흉년이 든다고 한다. 무모일은 털이 없는 짐승의 날이고 유모일은 털이 많은 짐승



의 날이니 많은 털 처럼 번성한다는 뜻이 있다. 그래서 정초에 점포의 문을 열 때도 유모일에 여는데 특히 인일(寅日) 곧 범날에 문을 많이 연다.

정월 첫 자일(子日)은 상자일(上子日)이라 하여 이날 새벽에 방아를 찧으면 쥐 주둥이를 찧는다하여 그해 쥐의 피해가 적다고 한다. 또 이날에 논두렁 밭두렁에 쥐불을 놓는다.

정월 첫 축일(丑日)은 소에게 일을 시키지 않고 잘 먹인다.

정월 첫 인일(寅日)은 범날이라 하여 먼길 가는것을 삼갔다. 이것은 호환(虎患)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이날 부녀자들이 남의 집에가 대소변을 보면 우환(憂患)이 생긴다고 한다.

정월 첫 묘일(卯日)은 부녀자들이 일찍 문밖 출입을 삼가는 날이다. 가장(家長)이 먼저 일어나 문을 열면 좋다고 한다. 이날 목화에서 새로 뽑은 실을 「툇실」이라고 하는데 이 실을 주머니에 달고 다니면 그 해의 재앙을 물리친다하고 이 실로 무명을 짜서 옷을해 입으면 장수한다고 한다.

정월 첫 진일(辰日)에는 우물에서 먼저 물을 길어오는 집이 길하다고하여 부녀자들은 새벽 일찍 일어나 남보다 먼저 우물물을 길어온다. 이러한 일을 용물 달기라하고 또는 용물깃기라 한다. 먼저 물을 길어 오기 위해 밤잠을 안 자고 정 자시만 되면 기다렸다가 물을 깃는 사람도 있다.

정월 첫 사일(巳日)에는 뱀날이라하여 머리도 빗지 않고 일도 안한다.

이날 머리를 빗거나 일을 하면 그해 뱀이 집에 들어 오거나 뱀에게 물리는 일이 생긴다고 한다.

## 12. 보름(上元)

정월에 설을 빼고는 보름이 가장 중요한 날이다. 대개 정월에는 설날부터 보름까지는 명절기간이라 하여 크게 일하지 않고 노는 때이다. 새해들어 가장 달이 밝은 날이다. 이날을 상원(上元) 또는 원소(元宵)라 불렀으며 보름 전날 밤인 14일 밤에 잠을 자면 눈썹이 센다하여 날밤을 새는 풍습이 있다.



이날 잠자는 아이들 눈썹에 밀가루를 묻혀 놀리기도 한다. 이날은 여러 가지 풍습이 있어 오곡밥 해먹기 달맞이, 귀밝이술 먹기, 더위팔기, 부럼깨기 등이 있다. 정월의 보름을 대보름이라 한다.

### 13. 오곡밥

대보름날은 다섯가지 이상의 곡식을 섞어 밥을 지어 먹는데 이것을 오곡밥이라 한다. 찹쌀, 콩, 팥, 조, 수수 등을 넣은 오곡밥을 짓는데 대추와 밤을 함께 넣어 짓는다. 이때 싸리나무로 불을 때면 오곡밥이 눌지 않는다. 오곡밥을 그냥 「찰밥」이라고 부르고 혹은 약밥이라고 한다. 이날은 다른 성(姓)을 가진 셋집 밥을 먹어야 그해 재수가 있다하여 여러집의 오곡밥을 얻어 먹는다. 이날은 하루 아홉번 밥을 먹어야 좋다고 한다.

### 14. 부럼깨기

정월 보름날 일찍 일어나 생밤, 호도, 땅콩, 은행, 잣 등을 깨물어 “딱” 소리가 나게 한다. 이렇게 깨물어 먹는것을 「부럼깨기」 또는 「부럼씹기」라 한다. 부럼을 깨면 그해 몸에 부스럼이라는 피부질환이 생기지 않는다고하며 또한 이가 튼튼해진다고 한다. 보름날의 부럼깨물기를 위해 14일 저녁에 미리 견과(堅果)를 준비해 둔다.

### 15. 더위 팔기

정월 보름날 아침 일찍 일어나 더위를 판다. 될 수 있으면 일찍 일어나서 이웃 친구를 찾아가거나 또는 처음 만나는 사람을 부른다. 부름을 받은 사람이 대답하면 「내 더위 사라」고 말한다. 그러면 더위를 판것으로 된다. 더위를 판 사람은 한해 동안 더위를 먹지 않게 된다고 하며 그 대신 멋모르고 대답하여 더위를 사게 된 사람은 그 사람의 몫까지 두배의 더위에 시달리게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대보름날 아침에 친구가 이름을 불러도 냉큼 대답을 하지 않으며 때로는



미리 알아차리고 이름을 부르면 대답 대신 「내 더위 사라」고 응수하기도 한다.

## 16. 달맞이

대보름날 저녁 달이 뜨면 사람들은 뒷동산에 올라 달맞이를 한다. 떠오르는 달을 보고 절을하며 소원을 빈다. 아이들은 햇불을 들고 산에 올라 달이 뜨기까지 햇불을 휘두르다 달이 뜨면 「망월이여」라고 소리 친다. 이날 달빛을보고 그해 농사의 흉풍(凶豊)을 점쳤으니 달빛이 붉으면 그해는 가뭄이 심하고 달빛이 희면 장마가 심하고 달빛이 누런 빛이면 풍년이 든다고 한다. 달이 북쪽에 가깝게 뜨면 산간지방 농사가 잘되고 남쪽에 가깝게 뜨면 해변이 풍년과 풍어가 된다고 한다.

대보름 달은 될 수 있는데로 남보다 먼저 보는 것이 좋다고 하여 서로 앞다투어 먼저 보려고 달이 잘보이는 산으로 오르기도 한다.

## 17. 귀신쫓기

정월 대보름 다음날인 16일을 귀신날이라하여 이날은 명절은 아니지만 일손을 놓고 쉰다. 일을하면 귀신이 붙는다고하여 되도록 나들이도 삼가한다. 이날 일을 하면 귀신이 실려 죽을때 헛손질을 하면서 죽는다고 한다.

이날은 귀신이 집안에 들어오면 한해동안 불길하다하여 대문앞에 고추, 목화씨, 생대(生竹)등을 태우는데, 대가 타면서 내는 요란한 소리와 고추 등이 타면서 나는 독하고 매운 냄새에 귀신이 도망간다고 한다. 또 이때 한해동안 모아두었던 머리카락도 함께 태워 그 노린 냄새에 귀신이 도망간다고 한다.

이날 곧 대보름날 밤에 대문에 채를 걸어 두는데 채를 걸어 두면 귀신이 들어오다가 수많은 채 구멍을 일일이 세다가 새벽이 되어 닭이 울면 닭소리에 놀라 귀신이 집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쫓겨 간다고 한다. 이날 저녁에는 신발을 잡안에 들여 놓거나 밖에 놓아 둘때는 신발을 얹어 놓는다. 신을 얹어 놓지 않으



면 귀신이 와서 신어보고 발에 맞으면 신고 간다고 한다. 귀신이 신고간 신이나 신어 본 신발의 주인은 그해 운수가 불길하다고 하여 이날밤은 신발을 잘 간수한다.

## 18. 달불이

정월 14일밤에 수수깡을 반으로 쪼개서 콩 12개를 홈을 파 넣고는 다시 합쳐 끈으로 묶어서 우물에 넣었다가 이튿날 꺼내어 살펴본다. 첫번째부터 12번째까지를 정월에서 선달까지로 봐서 콩이 붙어있는 상태로 그해 기상을 점친다 많이 붙은 달은 비가 많이 오고 적게 붙은 달은 가문다는 것이다.

## 2 월

### 1. 영등

음력 2월 1일을 「영등」 날이라 한다.

이날은 하늘에서 영등할머니가 내려오는날이라 한다. 이날 첫 새벽에 주부는 우물에가서 정화수를 한동이 길어와 뒷결이나 장독대에 소반에 받쳐 놓고 치성을 드린다. 영등신은 여신이기에 치성은 주부가하고 남정네는 관여 않는다.

정화수는 2월1일은 물동이째로 바치지만 그 다음날부터는 대접에 물을 떠서 매일 아침 바친다. 2월 초순에 비나 진눈개비가 오면 물영등이 내려 그해 풍년이 들고 강풍이 불면 바람영등이 내려 흉년이 든다고 한다. 비나 진눈개비가 내리는 것은 영등할머니가 며느리를 데리고 내려온 것이고 바람이 불면 딸을 데리고 내려온 것이라 한다. 비가 내리면 하늘에 남은 딸이 베를 짜기 쉽게 하는 것이고 바람이 불면 하늘에 남은 며느리가 베를 짜는데 어렵게하려 한다는 것이다.

영등할머니는 2월1일에 내려왔다가 2월 15일에 올라가므로 2월 보름날에는



상천제(上天祭)를 지낸다. 영등할머니가 2월 초하룻날 내려올때 「수배」라는 부하를 데리고 오는데 보름날 영등할머니가 하늘로 올라간 다음에도 수배는 남아 있다가 20일에 상천(上天)한다. 20일 수배가 올라가는 날에도 정화수를 떠 놓고 치성드리며 20일이 지난 다음에야 마음을 놓는다.

영등할머니는 풍신(風神)으로 풍신할머니라 하기도 하는데 영등할머니를 모시는 것은 다 한가지나 특히 바닷가가 열성이고 산중마을은 솔떡(솔잎을 켜켜이 놓으면서 찢힌떡)을 해 바치며 치성을 드린다. 영등할머니는 변덕이 죽끓듯하다 하여 심기를 건드리지 않는다는 뜻으로 정성껏 치성을 드린다 그러면 그해 풍년이 든다는 것이다.

## 2. 좀생이 보기

음력 2월 6일에 별을 보고 그해의 농사의 흉풍(凶豊)을 점쳤는데 좀성(昴星, 小星)과 달과의 위치와 원근을 보고 알아보는데 좀성과 삼태성의 원근으로 맞히기도 한다. 즉 2천개 이상의 작은 별들이 모인 좀성이 별자리가 달의 뒷편 한길 안에 있으면 풍년이고 달의 앞쪽 한길 안에 있으면 흉년이라 하였다. 혹은 삼태성과 거리가 멀면 가물고 가까우면 장마가 진다고 한다. 이를 소성점(小星点)이라 하고 좀성(昴星)을 이곳 방언으로 「좀생이」라고 한다.

## 3. 경칩(驚蟄)

이날 개구리가 입이 떨어지는 날이라 한다. 그래서 개구리가 입이 떨어지면 잡다한 벌레를 잡아먹기에 개구리를 잡아먹지 못한다고하며 경칩전에 개구리를 잡아먹는 풍습이 있다.

이날 흙일을하면 몸에 탈이 없다고해서 벽을 바르거나 흙담을 쌓는다. 이날 흙으로 벽을 바르면 빈대가 없어진다고하며 빈대가 심한 집에서는 재를 물에 타서 그릇에 담아 집 네 귀퉁이에 놓아 두면 빈대가 없어진다고 전한다.



## 3 월

### 1. 삼진날

3월 3일은 삼진날 혹은 삼진(三辰)날이라 하는데 강남갔던 제비가 돌아오는 날이라 한다. 또 이날 땅속에서 뱀이 나오는 날이라하여 상사일(上巳日)이라 한다. 이때쯤이면 겨울동안 볼 수 없었던 짐승이나 곤충들도 나오는데 그해에 처음 보는 나비로 점을 치니 호랑나비를 보면 출세하고 노랑나비를 보면 이성간에 좋고 흰나비를 보면 그해에 상(喪)을 당하게 될 징조라 한다. 또 이때쯤되면 진달래(참꽃)가 피어 화전놀이를 하고 이날 맑은 물에 머리를 감으면 머리에 부스럼도 나지않고 머리가 잘자란다고 한다.

### 2. 한식(寒食)

동지(冬至)로부터 105일째 되는 날을 한식이라 한다. 청명(淸明)이 양력으로 4월5일이니 그 다음날이 한식이나 간혹 청명과 같은 날이 되는 해도 있다. 그리고 한식이 음력 2월에 드는 해도 있다. 한식이 2월에 들면 철이 빠르고 3월에 들면 철이 늦다고해서 「2월 한식에는 꽃을 보아도 3월 한식에는 꽃을 볼 수 없다.」라는 속담이 있을 정도다.

한식에는 조상 묘를 찾아가 음식을 차려놓고 성묘하고 이날 사초(沙草)라하여 묘에 손을 대어 석축도 쌓고 떼도 입힌다. 이날은 「공마일」이라하여 귀신이 꿈쩍 못하므로 별도의 날밤이를 하지 않고도 무덤에 손질을 해도 탈이 없는 날이라 한다. 한식 명절의 유래는 중국 개자추의 전설에서 나온 것인데 불에 타 죽으면서도 벼슬하러 나오지 않은 개자추의 넋을 위로하기 위해 이날은 불을 떼지 않고 찬밥을 먹는다고 한다.

### 3. 곡우물 먹기



청명(淸明)으로부터 모름쫘 지나면 곡우(穀雨) 절기가 된다. 이때쯤이면 모든 나무에 물기가 오르게 되는데 특히 자작나무, 박달나무, 고로쇠나무 등에 물이 많이 오른다. 곡우날을 중심으로 전3일 후3일 기간이 곡우물이 가장 달고 맛있는 시기이다. 사람들은 톱을 들고 산에 올라 큰 나무를 정해 밑동의 나무껍질 부분을 V자 형상으로 톱질해 수액(樹液)을 받아 마신다. 이것을 곡우물이라 한다. 곡우물을 많이 마시기 위해 소금을 가져가기도 하는데 큰 나무에서는 하루 몇말이나 되는 물이 나오는데 어떤 나무는 수도꼭지 처럼 물이 나오기도 한다. 곡우 전3일 후3일이 지나면 물맛이 써서 못 먹는다.

## 4 월

### 1. 초파일

4월 8일은 석가모니가 탄생한 날이라하여 불탄일(佛誕日) 혹은 욕불일(浴佛日)이라 하는데 민간에서는 그냥 「초파일」이라 부른다.

각 사찰에서는 일년중 가장 큰 행사가 열리며 초파일에는 신도들이 절을 찾아 제를 올리고 등을 다는 풍습이 있다. 이날 세곳 이상의 절을 찾아 불공을 드리면 그해에 길하다고 한다.

요즘도 초파일의 제등행렬은 장관인데 그 유풍은 신라의 팔관회에서 유래하였다고 한다.

## 5 월

### 1. 단오(端午)

5월 5일은 단오(端午)날이라 하고 천중절(天中節)이라 한다. 옛날엔 수릿날



또는 술의(戌衣)날이라 했고 큰명절로 조상에 차례를 지냈다고 한다.

이날은 높은 나무에 그네를 매어 놓고 부녀자들이 그네를 타고 남자들은 씨름을 한다. 시절 음식으로 수리떡을 해 먹는다. 수리취를 뜯어다 수리취떡을 하기도 하고 쑥떡을 하기도 하는데 둥근것이 수레바퀴 같다하여 수레떡이라 하기도 한다. 영동지방은 단오날에 여러 가지 산맥이와 제 그리고 별신굿 등을 많이 했으며 특히 삼척지방은 오금잠제가 성행 했었다.

## 2. 약쑥베기

단오날 아침 해가 뜨기전, 혹은 아침이슬이 걷히기 전에 약쑥이나 익모초를 뽑거나 베다. 적당히 엮어서 그늘에 매달아 두었다가 마르면 1년 내내 약으로 쓴다. 익모초는 여름철 배알이에 다려먹고 쑥은 구충제로 쓰인다.

약쑥은 여름에 태워 모기를 쫓기도하고 담배 대용으로 피기도 한다.

# 6 월

## 1. 유두(流頭)

6월 15일을 유두날이라 한다. 유두는 동류두목욕(東流頭沐浴)이라는 말에서 유래된 말로 이날 동쪽으로 흐르는 물에 머리를 감으면 샷되고 나쁜것이 씻겨 나가고 또한 머리털이 잘 자라고 머리술이 많아지고 빗갈도 검어진다고 한다. 농부들은 이날 호미씻음(洗鋤會)이라 하여 푸짐하게 음식을 차려놓고 먹고 마시며 논다. 이날을 전후하여 비가 많이 내리면 유두물을 지운다고 한다. 시절 음식으로 유두면(流頭麵)을 만들어 먹는다.

## 2. 복날



음 6월에 삼복(三伏)이 들어 있는데 하지(夏至)에서 세번째 경일(庚日)이 초복(初伏)이고 네번째 경일(庚日)이 중복(中伏)이라 한다. 초복과 중복은 10일 사이지만 말복(末伏)은 입추(立秋) 뒤의 첫번째 경일(庚日)이기 때문에 그 날짜가 중복뒤에 10일만에 오는것이 아니다. 중복과 말복 사이가 10일이면 매복(每伏)이라 하고 10일이 넘으면 월복(越伏)이라고 한다.

월복이 아닌 매복이면 초복에서 말복까지 가장 더운 삼복 일수가 20일이지만 월복일때는 그 기간이 20일이 넘으니 월복때가 더 더운 계절이 되는 것이다.

복날 시절음식으로 닭이나 개를 잡아 먹는다. 복뎀이라하여 개를 잡아 개장을 끓여 먹고 닭을 잡아 내장을 빼고 찹쌀, 대추, 인삼 등을 넣어 계삼탕(鷄蔘湯)을 끓여 먹는다. 태백 산간지방에서는 산을 위하는 집들이 많아 개를 잡아 먹는 집 보다는 닭을 잡아 먹는 집이 많다. 복날 개 패듯 한다는 속담이 있는데 복날에는 개를 잡을때 나무에 매달아 놓고 몽둥이로 뼈가 바스라질때까지 두들겨 잡기에 그런말이 나온 것이다.

### 3. 복날 밧고사

초복날 감자적이나 메밀적을 부쳐서 밧머리에 갖다 놓고 고시네를 한다 이때 「천석이요」 「만석이요」 하고 외친다 이렇게 하면 천석 만석을 거두는 풍년이 든다는 것이다.

## 7 월

### 1. 칠석(七夕)

7월 7일은 칠석날(七夕日)이다. 은하수를 가운데 두고 헤어져 있던 견우와 직녀가 상봉하는 날인데 이날 비가 오면 견우(牽牛)와 직녀(織女)가 흘리는 석별



(惜別)의 눈물비라 한다.

이날 까막까치가 견우와 직녀를 만나게 하기위해 은하수에 오작교(烏鵲橋)를 놓느라고 머리 깃털이 다 벗겨진 것을 칠석이 지난 뒤에 볼 수 있다. 이날 집안의 장농속 옷이나 책 등을 밖에 내다 말린다.

## 2. 백중(百中)

7월 15일을 백중(百中) 혹은 백종(百種)이라 하고 망혼일(亡魂日), 백중(百衆)이라 하기도 한다.

이날은 백가지 과물(果物)로 조상님께 천신을 드리며 절에서 제를 드리고 부처님께 불공을 드린다.

## 3. 길베기

태백지방은 산중마을이기에 마을과 마을을 이어주는 길이 산길로 되어 있다.

이 산길에 여름 동안 자란 풀과 나무가 길을 좁게 만들기에 자기 마을에서 사방으로 난 길의 풀과 나무를 베어 다음해까지 소통이 원활하게 한다.

매년 7월이 되면 각 마을에서 다음 마을 중간 지점까지 길을 베면 그 마을에서도 화답으로 중간지점까지 길을 베다. 대개 길의 중간 지점은 산등성이나 고개마루가 되는데 그곳에는 성황당이나 कु시가 있게 마련이다. 이곳에서 성황제도 함께 지낸다.

## 4. 갈풀하기

음력 7월이 되면 초목이 쇠곤어 진다. 그리되면 각 마을에서는 공동으로 갈풀을 한다. 갈풀은 20여호가 돌아가며 품앗이로 하는데 하루에 한집씩 100~200짐 정도의 갈풀을 하여 큰 풀더미를 만들어 놓고는 겨울내내 소 외양간에 조금씩 넣어 소가 밟게 만들고 소똥과 함께 쳐내어서 썩혀 이듬해 퇴비로 사용한다.

태백지역의 갈풀썰이는 독특한 노동요를 가지고 있는 노동놀이로써 해학과 풍



자로 된 노랫말을 부르며 힘든 노동을 이겨내는 슬기를 보이고 있다.

## 8 월

### 1. 벌초

8월 초하루부터 추석까지는 산소에 벌초(伐草)하는 기간이다. 선조의 묘소는 일년에 두번 손을 보는데 청명한식에 사초(沙草)를 하고 8월 초에 벌초(伐草)를 하는 것이다. 봄부터 여름 내내 자란 풀을 깨끗이 벌초한다.

### 2. 추석(秋夕)

8월 15일을 추석(秋夕) 또는 한가위, 중추절(中秋節)이라 하여 설과 함께 우리나라 2대 명절이다.

아침에 조상에게 차례를 지내고 묘소(墓所)에 성묘(省墓)를 간다.

시절 음식으로 송편을 빚으며 햅쌀로 밥을 해먹는다. 이날 달빛이 연중 가장 밝고 맑으며 기후도 서늘하고 오곡백과가 익는 결실의 때라 푸짐한 음식을 나누어 먹는 좋은 명절이다.

## 9 월

### 1. 중구(重九)

9월 9일을 중구(重九), 혹은 중양(重陽)이라 한다. 중구란 구(九)자가 겹쳤다는 뜻이며 중양이란 양수(홀수)가 겹쳤다는 뜻이다. 중구날에는 무후(無后)나 돌아간 날짜를 모르는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는 날이다.



이날은 3월 삼진날에 온 강남 제비가 강남으로 돌아가고 삼진날 나온 뱀도 땅속으로 돌아가고 여름철 해충인 모기 떼들도 중구 얻어먹고 간다는 속담이 있을 정도로 이때가 되면 기후가 서늘해 진다.

## 10 월

### 1. 천제(天祭)

10월은 상달(上月)이라하여 하늘에 제사한다. 특히 태백산 꼭대기 천제단(天祭壇)에서 천제(天祭)가 성대하게 치러진다. 천제는 주로 태백산 천제단에서 올려지나 태백산 인근에는 태백산을 바라보고 망제를 지내는 천제당이 수십군데 있다.

### 2. 시제(時祭)

시월 상달에는 시제(時祭) 또는 전사(典祀)라하여 5대조(五代祖)이상의 조상은 기제사(忌祭祀)가 없는 대신 묘전(墓前)에 많은 제물을 차려놓고 정일(定日)에 제사 지내는데 그비용은 문중 토지나 위토(位土)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시제때는 많은 자손들이 모여 여러조상 묘소를 돌며 제사를 지낸다.

## 11 월

### 1. 동지

11월은 동지달(冬至月)이라 하며 동지가 든 달이라 이름하는 것이다.

하지(夏至)가 낮이 가장길고 밤이 가장 짧은 날인데 반해 동지(冬至)는 밤이



가장 길고 낮이 가장 짧은 날인데 동지날에는 팔죽을 쑤어먹는 풍습이 있다.

동지 팔죽은 먼저 사당에 놓아 제사하고 그 다음 마루 벽 대문 등에 팔죽을 뿌려 사악한 귀신과 잡귀들을 쫓아 내고 먹는다. 귀신은 붉은것을 싫어하니 팔죽 또한 귀신이 싫어한다.

팔죽속엔 용심이를 만들어 넣는데 새알이라 한다. 어린 아이에게 새알 주워 온다고 속이고 장난하는 풍습이 있고 새알은 나이 수 대로 먹는다.

## 1 2 월

### 1. 제석차례(除夕茶禮)

섣달 그믐날을 제석이라 하는데 그해의 마지막날 저녁 신시(申時)경에 떡만두국을 끓여 조상님께 차례를 지낸다.

이런 풍습은 태백과 삼척지방에 아직도 남아있다. 흔히 「떡국제사」라고 부르기도 한다.

### 2. 묵은 세배

섣달 그믐날 저녁에 떡국제사를 지내고 집안 어른께 세배를 한다. 지난 한해 동안 무사히 넘긴 감사의 뜻과 한해를 마무리하는 뜻이 담긴 세배이다.

묵은 세배는 정초의 세배와 같이 광범위하게 찾아다니며 하는것이 아니고 가까운 집안 어른께만 한다.

### 3. 제석(除夕)

한해의 마지막 날인 섣달 그믐날을 제석(除夕)또는 제야(除夜)라 한다.

이날까지 일년중에 있었던 모든 거래의 종결을 맺으므로 빛이 있는 사람은 해



를 넘기지 않고 이날에 모두 청산한다. 그래서 남에게 받을 빚이 있거나 빚진 사람은 이날에는 찾아다니며 받거나 갚는다. 이날까지 빚을 받지 못하면 할 수 없이 이듬해 정월 보름까지는 독촉할 수 없기 때문이다.

#### 4. 수세(守歲)

섣달 그믐날 밤에는 방이나 뜰, 창고, 부엌, 변소할것없이 집안 구석구석을 환하게 불을 켜놓고 잠을 자지 않고 새해를 맞는데 이를 수세(守歲)라 한다.

### 윤달(閏月)

윤달은 2~3년에 한번씩 돌아오는데 윤달이 드는 해는 일년이 13개월이 된다. 윤달은 남의 달이라 하여 각종 방위신이나 살신(殺神)들이 쉬는 달이라서 이 달에는 아무일을 해도 탈이 없다고 한다. 「윤달에는 송장을 거꾸로 묻어도 탈이 없다.」는 속담이 있듯이 윤달에는 어떤일을해도 동티가 없고 해(害)가 없다고 한다. 그래서 집을 고치거나 이사를 해도 괜찮고 묘를 옮기는 이장(移葬)을 해도 탈이 없다 하고 윤달에는 나이 많은 노인들의 수의(壽衣)를 만들어 놓으면 좋다는 풍습도 있다.



## 내가 바위라면

장성여자중학교 3학년 김민정

내가 바위라면  
당신이 지쳐 있을때  
예쁜 벽돌집이 되어  
당신의 안식처가 되겠어요

내가 바위라면  
당신이 슬퍼할때  
예쁜 바위인형이 되어  
당신을 위로해 드릴게요

내가 바위라면  
당신이 즐거워할때  
작은 자갈이 되어  
당신이 춤추며 가는 길  
갈아 드릴게요

내가 바위라면  
당신이 두려움에 떨고 있을때



높은 담이 되어  
당신을 지킬게요

내가 바위라면...



## 바위와 나

황지여자중학교 3학년 권미화

나무가 내게  
걸어오지 않고서도  
많은 말을 건네주듯  
장엄하고 웅장한 바위야  
너는 어찌  
그토록 먼곳에 있으면서도  
한결같이 다정한 목소리로  
나를 불러대느냐

온갖 고난과 극복을  
이겨냈기에  
환한 새 봄을 맞는  
나무처럼  
자애로운 눈빛으로  
나를 지켜주는 너……

네가 성난 얼굴하며  
울고있을때  
나는 그 눈물을 닦아주는



한송이의 꽃이 되길  
원했는데.....

그런데 지금!  
지금의 나는  
파도처럼 출렁이는 그리움을  
한편의 시로 대신하고 있구나!



중등부 시부문 차하

## 바위 앞에서

장성여자중학교 2학년 김재청

들바람에 풀잎들이  
사각거릴때  
웅장한 모습의 너는  
잔잔한 미소만을 띄우고 있구나.

너 앞에선 초라하기만한  
나에게조차 웃어주는  
너의 한량함에 나는 그저  
너를 사랑하기만 한다.



## 금 가지 않은 바위 찾기

장성여자중학교 3학년 김남희

바위가 있었다.  
거친 풍상 속에서도  
아무런 흔들림 없이  
잘 견디는 바위.

그 바위에  
조금씩 금이 가기 시작했다.  
돈이라는 유혹에 조금씩 금이 가고  
명예라는 유혹에 조금씩 금이 가더니.  
이제 완전히 깨어져 버린 바위도 있다.

깨지고 금이 간 바위들 사이에서.  
이제  
금 가지 않은 바위를 찾아 나서련다.



제 12회 태백시 남여 백일장

중등부 시조부문 장원

## 구문소

장성여자중학교 2학년 김수정

낙동강 황지천의 물들이 머무는 곳  
산높이 우뚝허니 서있는 자개루.  
바위틈 사이사이로 떨어지는 삼형제 폭포

태고의 전설들이 서려 있는 구문소  
구릿마을 풍경들과 어우르는 신비로움  
긴 세월 침묵 속에서 찾는 손님 반기누나



## 구문소

황지중학교 3학년 권경배

유유히 흘러가는 잔잔한 물결이  
웅장한 바위 뚫고 한없이 흘러가는,  
시원한 물줄기따라 민족혼 서려있다.

강물이 마르고 대지가 타올라도,  
구문소 물줄기는 끊임없이 흐르며,  
한민족 생명력은 영원히 숨을 쉬리.



## 물길

상장중학교 3학년 김병기

그 옛날 이 세상 빗물들 모아놓은  
한치 수심 알수 없는 싯누런 저못을  
누군가 한쪽 바위 물길을 터 놓았다.

이물이 흐르고 흘러 바다로 흘러가고  
차츰 싯누런 바닥을 드러내고  
우리가 이곳에 터전을 잡아 살아간다.



## 돌바위

상장중학교 1학년 김혜민

푸르른 하늘아래 웅장한 돌바위들  
시원한 시냇물이 깨끗이 씻겨주고  
즐거운 마음으로써 하루를 맞이한다.

언제나 그자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웅장한 그모습을 영원히 간직하여  
누구나 멋진모습을 보도록 간직한다.



## 아빠의 사랑만큼

장성여자중학교 3학년 최창희

강원도 태백시 동점동에 자리잡은 구문소

동점동의 명소인 구문소는 내가 태어난 곳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집과는 10분 거리에 있는 구문소는 나에게 아주 특별한 장소이다.

아빠는 내가 7살때부터 환경미화원이라는 새직업을 가지셨다. 저녁에 아빠와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아빠는 나와 함께 자주 구문소에 갔었다. 아빠손을 잡고 구문소로 걸어 갈때면 구문소가 참 좋다. 구문소에 흐르는 철암천도 바라보고 벤치에 앉아 이야기도 나누었다. 그럴때마다 아빠가 꼭 하시는 말씀이 있다.

“창희야. 구문소는 아빠가 제일 좋아하는 곳이다. 구문소에 옛날에는 밭이 많았었던다. 그밭에서 아빠는 감자, 콩, 고추등 곡식류를 가꾸면서 살았단다. 그리고 엄마와의 데이트 장소이기도 하구 아빠의 추억이 가득한 곳이란다. 가끔 너와 함께 오는 것도 너에게 아빠처럼 좋은 추억을 만들어 주고 싶어서란다.”

구문소에서 아빠와 함께 시간을 보내면 구문소에 포근함을 느낄때가 아주 많다.

관광도시로 발전하는 태백에는 많은 변화가 생겼다. 구문소에도 많은 변화가 생겼다. 황토지를 개간해서 화단도 만들고, 무궁화도 심고, 정자도 만들었다. 그래도 아빠는 변함없이 구문소에 가서 쓰레기가 있으면 쓰레기도 줍고 나무들도 손질하시고, 잡초도 뽑으신다. 중3이된 나는 요즘들어 아빠와 이야기 나눌 시간



마저 부족하다. 그러나 가끔 아빠는 구문소에 가자는 말을 하신다, 자주 아빠와 함께 할 수 없지만 아빠는 혼자서 구문소에 가신다. 구문소에 가서서 정자에 올라 구문소도 바라보시고, 화단에 앉아서 노래도 부르신다.

아빠는 구문소를 사랑하신다. 그래서 구문소가 새롭게 단장할때 적극 참여하셔서 나무도 심고 가꾸셨다.

언젠가 아빠께서 이런말을 하신 적이 있다. 구문소가 사람이라면 어머니 삼고 싶으시다는 말씀을 하셨다. 그때 아빠가 구문소를 포근하게 느끼고 사랑하신다는 걸 느꼈다. 그리고 보면 어쩌면 구문소도 아빠를 좋아하는지도 모른다.

이번주말에 아빠께

“아빠! 아빠엄마 보러 갈까요?”

하고 말을 건네 봐야겠다.

구문소에 가서 정자에 올라 소리치고 싶다.

“구문소야! 아빠가 널 사랑하는 만큼 더 멋있고 아름다운 구문소가 되서 우리아빠를 기쁘게 해주지 않을까?”

아빠가 가진 구문소의 추억만큼 구문소가 아름답게 보존되길 바란다.



## 우리 사는 세상

황지여자중학교 3학년 최다경

큰 나무는 거센 바람과 태풍에 아무 힘없이 꺾어지고 만다. 그러나 여린 갈대는 거세게 불어오는 바람과 휘몰아치는 태풍에도 그저 몇 번 허리를 숙여 겸손한 인사를 할 뿐 꺾어지거나 쓰러지지 않는다. 겉으로는 부드럽고 인자하지만 안으로 자기 자신에게 강하다는 뜻을 가진 '외유내강'이라는 말은 바로 이 갈대에게 어울리는 말이 아닌가 한다. 언제나 아무 말 없이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바위도 그렇다. 바위라는 이름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아주 많은 것을 알게 해 주는 이름인 듯하다.

어릴 적 부르던 노래 중에

“바윗돌 깨뜨려 돌맹이, 돌맹이 깨뜨려 조약돌, 조약돌 깨뜨려 모래알…….”

이런 노래가 있었다. 그때 그저

‘아! 아주 큰바위도 깨고 깨고 또 깨면 작은 모래가 되는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었다. 하지만 지금은

‘모래알이 모이면 조약돌이 되고 그 조약돌이 모여 커다란 바위가 되는구나!’ 하는 생각을 한다. 이 두 가지 생각이 다름이 뭐가 있겠는가 하겠지만 바위에겐 커다란 삶의 이치를 얻을 수 있다. 모래알은 여러 길로 흩어져서 자신들이 갈 길을 갈 뿐이다. 조약돌은 모두 자기 자리에서 자신들의 아름다움을 뽐내기에 여념이 없다. 그렇지만 바위는 자신의 길을 가려고 발버둥치지도 않고 자신의 아름다움을 뽐내려 하지도 않는다. 다만 변함없이 그 자리에서 자기 속에



있는 모래알과 조약돌을 지키려고 애쓸 뿐이다. 모래알은 잘 부숴지고 조약돌은 잘 깨어지지만 바위는 잘 깨뜨릴수 없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기보다 자기와 함께 있는 모래와 조약돌들과 힘을 합쳐 자신들을 지키려 하는 까닭이다. 바위는 그런 자신의 모습에서 사람들에게 협동의 미덕을 가르치는 스승인 것이다.

새는 깃털로 자신을 가꾸고, 식물은 꽃으로 아름다움을 과시한다. 그러나 바위는 색색의 깃털이나 갖가지 꽃으로 자신을 치장하지 않는다. 다만 자연의 힘에 순응할 따름이다. 모진 비바람에 모난 자신의 걸모양을 둥글게 깎아내리고, 파랗게 돌아나는 이끼에 푸른색을 띤다. 자연이 행하는 모든 것에 아무 저항없이 따른다. 그것이 바위의 어진 성품이다. 그 때문에 바위는 애써 가꾸거나 치장하지 않아도 웅장하고 장엄해 보이는 것일지 모른다.

바위는 참을 줄 아는 지혜를 가졌다. 모든 것들이 오랜 세월을 거쳐 변해가지만 바위는 항상 변함없이 그 자리를 지키고 변함없는 눈길로 같은 곳만을 바라보고 있다. 오래 전부터 내려오는 바위에 대한 전설이 우리 주위를 아직 맴돌고 있는 것은 그 만큼 바위가 변함없다는 증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 언제나 변함없는 모습으로 그 자리를 지키는 바위는 자신의 고통따윈 생각하지 않고 그저 참고 있다.

바위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다. 서로 다른 모습의 사람들이 살고있는 곳이 바로 바위인 것이다. 사람이 사는 동안 느끼고 생각하고 배우는 모든 것들이 바로 바위의 지혜만큼 위대한 것이기를 바란다. 바위처럼 자기보다는 전체를 생각하고 걸 모양의 아름다움을 생각하기보다는 내면의 멋을 소중히 하는 그런 마음을 지닌 사람이 많다면 그게 바로 삶의 지혜가 아닐까? 웅장하고 장엄해 보이지만 그 걸모습보다 더 위대한 생각을 지니고 있는 바위. 우리 사는 세상이 바위의 그것처럼 위대한 것이었으면 한다.



## 바위가 나에게 준 몇가지 가르침

상장중학교 3학년 권수전

내가 사는 태백은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시원스레 물이 굽이쳐 흐른다. 또, 산과 함께 태백임을 알려주는 것은 골산인 바위이다. 나는 바위를 좋아한다. 바위를 좋아하게 된 것은 큰바위얼굴이란 책을 읽고서 더욱 바위에게 끌렸다. 나도 그책 내용처럼 장엄한 바위를 하루에 한번 아니 내 마음을 정리하고 반성하며 하고픈 얘기를 수시로 한다. 요즘은 중3이라서 그런지 많이 힘들다. 누구에게 의지하고 싶은 맘도 생기고 든든한 보호막이 있기를 바란다. 그것이 바위인 것이다. 바위를 보고 있노라면 마음이 편해지고, 나에게 무언가를 말하는 것 같다. 육중한 바위는 자연의 많은 시련을 혼자 부딪히고 이겨내야 한다. 나보다 더한 고통을 받고 이루 말할수 없이 깎이고 또 다져져 비로소 내가 아는 바위가 된 것이다. 나도 어쩌면 바위와 같은 시련과 나에게 닥쳐오는 일들을 이겨내야 할것 같다. 바위는 멀리서 보면 사람과 같은 형상으로 나에게 미소와 격려를 보낸다. 내 어머니같은 포근한 모습. 언제라도 달려가면 안아 줄것 같이 말이다. 바위를 보면서 나에게 중요한 뭔가를 얻었다. 내성격이 원래 내성적이고 그런 반면에 성질이 급하다. 내가 해야 되는일이 제시간 내에 되지 않으면 마음이 조급해지고 할일도 제대로 못한다. 주위 사람들에게 신경질도 부리고 그런다. 그런데 그것들이 요즘은 조금씩 크기가 작아지고 있다. 다 고쳐졌다고 할수는 없지만 조금씩 나아진것이 얼마인가. 또 남에게 너그럽게 대하는 것과 남을 좀더 배려할 수 있는 마음 자세이다. 또 먼저 행하기 전에 한번 더 생각하는 습관이



들었다. 그러니까 실수도 줄고 내 급한 성격도 조금은 뒤로 물러서서 기다릴줄 알고 느긋해진다는 것을 느낀다. 주위에서도 너의 성격이 많이 고쳐졌고 행동도 달라졌다고들 한다. 그의 비결을 가르쳐 달라고도 한다. 하지만 그때마다 난 웃음으로 넘긴다. 아직은 나는 멀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내가 바위와 닮으려면 아니 비슷해지려면 아마도 좀더 노력이 필요하겠다. 오늘도 난 바위에게 내 애길 하러간다. 비록 나에게 직접적이지 못하지만 언제나 인자한 모습을 보내준다. 가슴이 벅차오른다.



## 바위

황지여자중학교 3학년 최가영

잔디에 앉았다. 새삼 바위에 대한 생각을 떠올리려니 막막했다. 주위를 둘러보니 바위가 눈에 많이 뜨인다. 저 바위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사실 바위라고 하면 커다란 돌을 의미한다. 그렇지만 바위가 돌맹이로, 모래로, 흙으로 된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우리가 손에 흙 한줌을 쥐어 바위, 바위 가루라고도 표현할 수도 있는 것이다.

커다란 바위를 살아있는 것의 눈으로 보면 그저 묵묵히 자리 잡고 존재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바위의 존재는 오랜 옛날부터 우리 인류와 함께 해왔다고 할 수 있다.

그 흔적들은 우리 조상들이 살던 오랜 옛날로 거스러 올라가서부터, 흔히 찾아 볼 수 있다. 우리 조상의 삶에서 바위는 예술 작품의 소재로, 때로는 물을 떠놓고 복을 비는 곳으로도 많이 쓰였으며 부처를 새기기도 하였다. 그 뿐이 아니라 바위를 절구와 맷돌등으로 만들어 쓰기도 하였다. 그리고 조각이나 건축의 재료로도 쓰였는데 여러가지 유명한 석탑이나 건축물은 모두 바위에서 와서, 우리 조상들의 손길과 어우러진 것이다.

바위는 바위는 십이불장생중의 하나이다. 그 만큼 바위는 생명을 가졌다고 한다면 명이 긴 자연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듯 오랜 세월을 살면서 바위는 자연에 희귀한 모습으로도 그 존재를 나타내고 있다. 그 모습을 대중매체를 통해 본 적이 있는데 사람이나 동물의 모습을



한 신기한 모양의 바위가 많았다. 아마도 바위도 영겁의 긴 세월이 지루하여 재미난 모양을 한 것이리라.

눈 앞에 보이는 산 속에도 나무 밑에, 산 꼭대기에 바위가 앉아있다. 저 바위들도 세월과 함께 흘러 먼 훗날에는 저 바닷가에 잔 모래로 머무르게 될 것이다.

바위는 생의 끝이 없을 것이다. 영원한 불멸의 바위가 자연 속에서 묵묵히 모든 것을 보고 있다. 혹시 내일, 또 내일, 그 다음 날에도 저 바위들이 혹시 나를 지켜봐 줄지도 모르는 일이다.



## 바위

장성여자고등학교 2학년 박은미

아버지의 눈 속에는  
늘 내가 있었다.  
세상 어느 것 보다  
맑은 그 속에서  
나는 아버지의  
눈동자가 되었다.

삶에 지치실 때에도  
아버지의 눈 속에는  
내가 있었다.  
너 하나만으로  
세상은 살만 하다시며  
맑은 눈을 빚내셨다.

요즘 들어  
부쩍 무거워지신  
아버지의 어깨.  
늘 강한 아버지셨는데……



세상에 쫓겨  
이리 부딪치고 저리 부딪치고

그러나,  
바위는 깨어지지 않았다.  
흙이 되어  
더 큰 세상을 덮고 있으니까.

언제부턴가  
내 눈속에는  
아버지의 자리가  
생기기 시작했다.

내게 흙이 되시어  
힘을 주신 아버지.

이젠 내가  
흙이 되어간다.



제 12회 태백시 남여 백일장

고등부 시부문 차상

## 구문소

황지여자상업고등학교 3학년 황윤희

금빛

찬란한 태양

먼저받은 여기

억만년 흘러온

우주의 자궁이 숨쉰다.

보랏빛 등나무 꽃과

노오란 넝쿨 장미가

아득히 눈 닿는데까지 뻗히고

잡목림을 지나온 숨막히는

태초의 하늘빛 생명수

시들지 않는 선율을 딛고

유유히 흘러간다.

그것은

스스로가 범람하는

아름다운 종교다.



그리고  
눈내리는 과수원의 향기를 이끌며  
조그만  
외나무다리를 지나  
사랑과 웃음과  
참으로 뜨거운 갈구로  
피워올리는 애뜻한 소녀의 기도다.

무엇을 향하고 있는걸까?  
저리도 푸르른 거부의 몸짓.  
아침의 하얀 손뼉이 일으키는  
해맑은 드뷔시의 바다가  
신기루처럼 떠있는  
이것은 신의 손! 구문소



## 구문소

황지여자상업고등학교 2학년 윤순희

구름을 머금고있다.  
푸르름을 끌어안고있다.  
골짜기 굽이굽이  
천년을 헤짚은  
싱그러운 바람이 불어오고  
엘러지 무리지어 폈다.  
5월,  
연초록이 빚어내는 꿈.  
청솔가지 끝끝에  
망울진 그리움처럼  
속삭이는 群像의 수많은 이야기  
만남과 헤어짐의 영롱한 눈물  
하이양게 부서지고  
三水嶺  
숨찬 청노루 눈빛에서  
비롯한 이 길은 아득히 멀어져가고  
구름을 머금었다.  
푸르름을 끌어안고 있다.



## 바위

철암고등학교 2학년 신선화

우뚝 솟아 있는 바위  
무너질까 두려우나  
나무 친구 함께 하니  
두려움이 사라지네.

뽕뽕뽕 깎아지른  
바위의 우직함을  
바라보고 있노라니  
초라하기 그지없네

언제나 한자리를  
묵묵히 지켜가며  
사시사철 모양새를  
다듬으며 살아가는

자연의 동화속에  
위대함을 과시하며  
사람들의 시선을



이끄는 데 힘쓰지만

정작 사람들은  
그들의 시선을 무시하기에  
외롭고 처량하기  
짝이 없는 바위들이여...

비록 그네들은  
사람들의 관심밖에  
있는 것들이기에  
대체로 외면을 당하지만

작고 큰 바위들이  
있었기에  
오늘에 이르는  
위대한 인물이 되었으니

세월의 흐름에도  
관개치 않고



언제나 변함없는  
기상을 펼치기를..

우뚝 솟아 있는 바위  
세월의 흐름과 함께하는지  
어느새 나이먹어  
나에게 허리숙여 인사하누나.



## 바위

황지고등학교 2학년 김인식

태고적 깨어남을  
자연에 벗 삼아서

풍백에 시달리고  
우사에 깎이어도

오로지 제 간직함은  
온갖 고초 뿐이려니.

천만년 오랜밤을  
한자리에 지새우며

인공에 휩싸이고  
사람에 찌들어도

마지막 삶의 고초를  
짚어질 뿐이로다.



## 할머니

장성여자고등학교 2학년 천성이

아침에 버스타고 구문소 지날 때마다  
호미랑 바구니랑 어린 나를 옆에 끼고  
나물을 캐러가시던 할머니가 생각난다.

할머니 손은 따뜻했지만 거칠었다.  
고목나무 같이 딱딱한 그 손.  
젊을 적 그 손으로 많은 일을 하셨더랬다.

힘겨운 농사일에 아내일 어머니일.  
그렇게 억척이셨던 할머니의 강한 손.  
바위를 닦았던 그 손은 부서질 줄 몰랐다.

지금은 세상에 없는 할머니 손.  
오늘 이곳에서 글을 지으며  
강했던 할머니의 손을 생각한다.



## 구문소

황지여자상업고등학교 2학년 김현주

솔바람

물소리

산도화 꽃잎꽃잎

피꼬리

뼈꾸기

사랑노래 메아리

흰구름

쉬어가는

청록빛 구문소

돌돌돌

노래하는

청자빛 여울엔

그리움

아쉬움



계곡에 남기고

돌아보고

돌아보며

세월이 간다.



## 약수터 바위

황지고등학교 2학년 김기효

친구들과 얘기할 때면 이런 표현이 자주 등장하곤 한다.

“널린 게 돌이고, 깔린 게 여자야.”

그만큼 흔하디 흔한 것이 돌이라는 뜻일 것이다. 돌이 흔한 만큼 돌의 집합체인 바위도 너무도 흔한 것이다. 그래서인지 어느 곳에서 본 바위도 나에게 그다지 색다른 의미로 다가오지 않았다. 그저 조금 이상하게 생겼으면 멋있는 바위고, 둥그스레하고 넓적하면 그저 바위 그 자체일 뿐이었다.

내가 멋있는 바위, 즉 이상한 바위를 많이 본 것은 지난 달 수학여행 때였다. 제주도에 가는 배를 타기 위해 부산엘 갔는데 그 곳에서 태종대란 곳에 들렸었다. 수 십 M에 이르는 기암절벽들이 계속 이어져 있었다. ‘그래, 바위라면 이정돈 되야지’ 하는 생각을 수 십 번도 더 한 것 같다. 그리고 제주도에서는 용두암, 목석원 등에서 누구나 멋있다고 느끼는 바위들을 보니 바위에 대해 전혀 모르는 나도 가치있는 바위처럼 느껴졌다. 수학여행에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나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하고 멋있는 바위에서 사진을 찍은 것을 뿌듯하게 느꼈다. 미국의 그랜드 캐년이나 호주에 있는 세계에서 제일 큰 바위에도 뒤지지 않을 거라는 확신까지 하면서 말이다.

수학여행에 다녀와서 다음날은 학교에 나가지 않았는데 심심하고 해서 물통을 들고 뒷산에 있는 약수터에 올라갔다. 올라가는 길 옆에는 둥그스레 넓적한 바위가 있었다. 수학여행을 다녀와서 바위보는 눈이 높아졌다고 생각하는 나에게



그 바위는 흙물처럼 느껴졌다. ‘으윽, 차라리 바위에 약수터라고 써서 세워 놓을 것이지…….’ 라는 불만 가득한 얼굴로 산을 내려왔다.

그런데 어느 날이었다. 학교에서 중간고사를 보느라 일찍 끝나서 집에서 쉬고 있는데, 어머니께서 약수터에 가신다고 하시기에 어리광(?)을 부리며 따라 나섰다. 오랜 만에 일찍 집에 돌아온 터라 기분이 좋았던 나는 어린 애처럼 꺽충꺽충 뛰며 재빠르게 올라갔지만 어머니께서는 힘이 드신지 천천히 올라오고 계셨다.

“기효야! 좀 쉬었다 가자.”

“엄만, 여기 쉴 데가 어디 있어.”

그 때 마침 둥그스레 납적한 쉬기에 안성맞춤인 바위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어머니를 바위까지 모셔가서 앉혀 드린 나는 조그만 충격을 느꼈다. 흙물처럼 느껴졌던 바위가 편안한 쉼터로 변한 것을 보았기 때문이었다.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다.

‘용두암이나 태종대가 우리에게 아니 나에게 주는것이 무엇인가’ 라는 물음이었다. ‘관광객’ 그건 아니었다. 우리 나라긴 하지만 나와는 관계없는 얘기였다. 그 답은 그저 ‘한 순간의 탄생’ 이라는 것이었다. 그와는 달리 약수터의 돌은 나와 약수터를 다니는 사람에게 편안한 쉼터를 제공했다. 흙물이라는 소리를 들어가면서도 말이다.

한 순간의 탄성을 무한한 즐거움으로 알고 무한한 쉼터를 흙물로 오인한 내가 부끄러워졌다.

결국 나는 약수터의 바위에게 두가지를 얻은 것이었다. 하나는 사물을 보는 눈이었고 또 하나는 편안한 어머니의 웃음이었다.



## 외할아버지

장성여자고등학교 2학년 이주영

“아아아, 너그 외할배가 알른 우짤라꼬 이라노? 얼러 뚝 그치라.”

꼬마동이였을때, 나는 외가에 가는 것을 몹시 싫어했다. 좀더 솔직히 말하면 두려워했다. 막내이모,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세식구 뿐인 외가. 그리 멀지도 않았다. 시내버스로 20여분이 채 안걸리는 거리였다. 엄마는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적적하실테니 가서 놀다오라며 거의 매주 나와 두동생을 외가에 보내셨다. 나는 그때마다 빠져나갈 궁리를 했다. 이모도 보고싶고, 외할머니도 보고 싶었지만 내가 외가에 가지 않으려 한 이유는 오직 하나, 외할아버지 때문이었다.

그시절 내게 외할아버지는 나와 다른 세계에 사는 인물이었다. 봉건적인 냄새가 느껴지는 모습이셨다. 내게 단 한번도 웃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셨고 노여워하는 모습도 보여주지 않으셨다. 무표정, 그 속에 서릿발같은 노여움도 숨겨두셨고 그 속에 웃음도 감춰두셨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그 감정들 속으로 삭혀두신 그 감정들과 겉으로 드러난 무표정의 무게에 나는 늘 압도되곤 했다. 근엄의 도를 넘어서 환상같은 분이셨다. 어린 내가 뛰어넘기엔 그 환상은 너무 버거웠고 난 그 버거움을 겪기 싫어 외가에 가기 싫었다. 시내 서점에 다니던 막내이모가 늦게 귀가한 날 긴말도 없이

“여석아가 정숙치 못하게스리 우데를 이시간까지 싸돌아 댕겼드노?”

한마디만 남기고 안방문을 스르르 닫으시던 외할아버지, 그 짧은 한마디로 이모와 외할머니를 벌벌 떨게 만드셨었다. 가끔 밤늦게 집에 가겠다고 발버둥치며



우는 손주들을 향해

“고마 집에 보내라, 마.”

하시곤 돌아 들어가 이내 코를 고시던 할아버지, 신기한건 외할머니께서 내일 날이 밝거든 집에 가라고 달래실때는 징징 울다가도 외할아버지께서 보내버려라 한마디 하시면 울음을 뚝 그쳤었다. 외할아버지의 절제된 말 속에 풍기는 엄숙주의에 꼭 광신도가 사이비 종교에 홀리듯 홀려버린 것이었다. 모든 이들이 외할아버지를 나처럼 두려워했고, 외할아버지께서 나서셔야만 집안의 대소사가 해결이 되었다. 외가에선 시계도 외할아버지가 안계시면 멈춰버릴듯한 착각에 빠질 정도로……. 그만큼 내게 외할아버지는 굳건한 태산이었고 한개 애런에 물들지 않은 바위같은 절대자였고 종교였다.

그러던 외할아버지께서 환갑을 조금 지난 연세에 중풍에 걸리셨다. 반신불수로 외할머니께서 대·소변 시중까지 들어야 할 정도였다. 걷지도 말쑹하지도 못하셨다. 어느날 엄마를 따라 외가에 갔을 때 본 외할아버지는 더이상 절대자도 종교도 아니었다. 담배를 피우기 위해 성냥을 긋지도 못하셨고, 그러자 성냥갑을 내던지고 어린아이같이 칭얼거리셨다. 밤이면 출가한 자식들의 이름을 부르며 그들을 데려오라시며 한바탕 잠투정을 하신 후에야 잠이 드셨다. 내게는 작지 않은 충격이었다. 그 추상같던 우리 외할아버지께서, 감히 말한마디 건네지도 못할만큼 어마어마한 존재이셨던 외할아버지께서……. 어린 나에게 외할아버지의 변화는 충격 아니 그보다 더큰, 말로 표현이 안되는 것이었다. 예전의 외할아버지와 지금의 외할아버지 사이의 괴리를 감당할만큼 난 자라지 못했었다. 무너지고 있었달까? 내게 절대적으로 자리하고 있던 할아버지의 무게가 점차 줄어가고 있었다. 풍화, 침식되어 가고 있는 바위. 그거라면 얼추 들어맞는 표현일게다.

그리고 몇달후 외할아버지께서 돌아가셨다. 장성병원 영안실까지 가서도 나는 들어가지 않았다. 주변에서 동생들을 데리고 놀다가 집으로 되돌아왔다. 영안실에 들어가면 정말로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셨음을 그러니까 내마음 속의 절대적 존재가 완전히 소멸되었음을 인정해야 하니까 그때의 그 충격역시 감당할 자신



이 없어 나는 끝내 영안실에도 들어가지 않았고 장례를 치르는 동안 집에만 틀어박혀 있었다. 외할아버지가 살아계실적의 외할아버지에 대한 환상같은 두려움보다 돌아가신후의 그환상의 소멸이 더 큰 두려움이었다.

사십구제도 나는 가지 않았다. 아이들을 돌보겠다는 핑계로 집에 남았다. 이듬해 제사때엔 온가족이 모두 참석하라는 외할머니의 엄명에 어쩔수 없이 참석했고 성묘도 갔다. 때가 제법 파릇파릇한 외할아버지의 묘를 보았을 때, 그때까지 내가 피해온 두려움이 슬금슬금 사라지고 있었다. 소멸되었다고 믿었던 외할아버지의 환상이 선산 한구석에 자리한 묘와 함께 하늘나라의 얼굴도 모르는 조상님네들곁에서 살아나고 있었다. 중풍으로 또 그에 따른 죽음으로 외할아버지의 존재는 부서지고 끝내 소멸되었지만 그 환상은 함께 소멸된 것이 아니었다. 어리석었었다. 나는 할아버지의 존재와 함께 내게 두려움과 경이의 대상이었던 환상까지 묻혀버릴까봐 그걸 두려워했었다. 그렇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어린나의 추측이었다. 바위가 부서져 모래가 되어도, 진흙이 되어도 모태가 바위였음은 우리의 기억에서 지워지지 않듯 우리 외할아버지도 예전의 환상 그대로 내 뇌리에서 잊혀지지 않는다. 그렇게 외할아버지는 내안에서 아직도 절대적 존재로, 종교로 남아 있다.



## 흔들리는 바위

장성여자고등학교 1학년 김선남

예전엔 미처 몰랐었다.

아버지의 자리가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항상 말없이 뒤에서 지켜주시고 감싸 주시는 아버지의 모습이 전부라 느꼈는데 아버지는 마음속의 아픔을 감춘채 울고 계셨다.

바쁘다는 핑계로 나만을 위해 지내온 17년동안 한번도 난 아버지의 모습을 제대로 바라보지 않았다.

처음 아버지의 뒷모습을 보았을때 그 작아진 몸과 지친 어깨는 그동안 지냈던 나의 시간들을 다시금 깨닫게 해주었다.

학교생활에 지쳐서 들어오는 나의 모습을 보고

“힘들었지? 어서 씻고 쉬어라.”

하고 어깨를 두드리며 하신 말씀을 나는 피곤이라는 이유로 무시해 버렸다. 늦은 시간까지 나를 기다리시느라 잠도 못 주무셔서 피곤해 하시는 아버지를 뒤로한채 나는 방으로 들어와 버렸던 것이다.

“아버지 힘드셨죠?”

이 짧은 말 한마디 조차 하지 못했던 나의 어리석음이 후회가 된다.

아버지의 생활터전인 탄광이 문을 닫으면서 아버지는 흔들리기 시작했다.

항상 일이 끝나면 봉지 가득 담아오시던 과일이며 과자도 어느샌가 쓰디쓴 술로 변해 버렸다.



흔들리지 않으리라 믿었던 바위가 그 작은 몸부림에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느끼지 못했던 것이었다.

술과 담배로 하루 하루의 고통을 참아내시는 아버지의 모습은 벼랑끝에 서있는 바위와 같았다.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시간동안 바위는 세상 끝에서 안간힘을 다해 몸부림치고 있었다.

함께 하면서 걸어 가려던 이 길을 아버지는 혼자서 외로이 걷고 계셨던 것이다.

아버지의 아픔을 함께하지 못했던 시간들이 후회가 된다.

단단한 바위처럼 늘 내곁에서 바라봐 주시는 아버지의 아픔을 이제는 같이 하려한다.

작은 사랑이지만 아버지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 줄 수 있다면 나는 그것으로도 만족 할 수 있다.

변하지 않는 바위처럼 항상 아버지모습 그대로 남아 있을거라 난 믿는다.

나의 사랑과 아버지의 믿음이 존재한다면 .....



## 구문소

황지고등학교 2학년 심장우

태백시 동점동에 위치하고 있는 구문소는 관광도시로의 발전을 꾀하고 있는 우리 태백시의 관광 명소중의 하나로 꼽히고 있다. 하지만 한번쯤 와보았던 사람들은, 바위굴 밑으로 물이 흐르는 단순한 경치에 별다른 아름다움을 느끼지 못했을 것이다. 나도 처음엔 그랬다. 하지만 이것은 아직 잘 모르는 사람들의 이야기일 뿐이다.

구문소가 알려지기 시작한건 구문소에 담겨 있는 전설 때문이다.

옛날, 가난한 어떤 사람이 밭을 헐다녀서 구문소의 깊은 물 속으로 빠졌다. 그런데 그곳은 다름아닌 용궁, 용궁의 닭인 물고기를 잡은 죄로 벌을 받게 되었으나 삼일간 용서를 빌어서 죄를 면하게 되었고 용왕이 잔치를 베풀어 후히 대접했다. 집이 그리워 물 밖으로 나오게 되었을때 떡 하나를 가지고 나왔는데 물 밖으로 나온뒤 돌이된 그 떡을 이 사람은 무심코 쌀항아리에 넣어 두었고 그 뒤로는 쌀을 아무리 퍼내어도 항아리속의 쌀이 줄지않아서 잘 살게 되었다는 내용의 얘기이다. 지극히도 평범하고 많이 알려져있는 이 이야기가 구문소를 유명하게 한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옛날 효사상과 착한 것을 중시하는 우리 민족의 정서가 담겨있는 내용이기 때문일 것이다.

또, 외지에서 동점을 통해 이곳에 오려면 구문소를 통해야 올 수 있는데, 그리로 오는 도중엔 산 밖에 볼것이 없는데, 구문소는 볼만한 경치도 되기 때문이 아닐까?



그런데 우리의 관광명소인 구문소의 수질이 4급수밖에 안된다고 한다. 어렸을 때는 용궁이 있기 때문에 흐린 물로 가린다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아니다. 관광 명소면 그에 걸맞는 깨끗함이 있었으면 한다. 물이 맑으면 그 물을 내려다 보는 사람의 마음이 더러운 물을 볼때보다는 한결 가벼워질 것이다.

또 이곳에는 구문소이외엔 별다른 유락시설이 없다. 구문소만 해도 구경을 하려면 길가나 다리위에 서서 구경을 해야하기 때문에 그 뒤로 지나가는 차들이 여간 신경쓰이는게 아니다. 게다가 구문소이외엔 아무 유락시설이 없기 때문에 허전한 감이 많이 든다.

구문소의 발전을 위해서는 외지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잘 설명된 홍보물 하나 없는게 우리 모습이다.

위에서 거론한 것들은 구문소의 관광명소로서의 발전에 해가 되는 것이다.

먼저 수질오염에 대해선 위에서도 얘기했듯이 좀더 깨끗한 구문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구문소를 약수터로 활용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둘째로, 구문소의 유락시설에 관한 이야기인데, 구문소 주위엔 공터가 조금 있다. 이런곳에 간단한 철봉이나, 윗몸일으키기 정도를 할 수 있는 운동기기를 세운다면 좀 더 나은 경치가 될 수 있을 것이고, 구문소의 물이 깨끗해졌을때 이곳을 찾는 사람들에게 좋은 운동시설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구문소의 홍보에 관한 문제이다. 이제까지는 별다른 홍보물이나 홍보 활동이 없었지만, 지금부터라도 홍보물을 만들고 태백시를 찾는 사람들에게 알린다면, 우리 태백시가 관광도시로 발전하는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구문소는 우리들의 자랑스런 관광명소가 될 수 있다. 구문소를 더 깨끗하고 더 아름다운 곳으로 만드는데 우리 모두 힘써야 할 것이다.

구문소가 아름답지 않다거나 볼품없다는 것은 아니다. 다만, 우리 모두의 구문소를 좀더 가꾸었으면 하는 것이 내 바램이다.



## ■ 태백문화원 연혁

1984. 1. 황윤덕씨등 19명이 태백문화원 설립추진위원회 구성  
1984. 8. 17 문화공보부 법인 설립허가, 황윤덕씨 초대원장 취임  
1984. 10. 1 태백시 장성동 69-2번지에 태백문화원 개원  
1985. 7. 18 문화원 활성화를 위해 이호진씨등 12명을 운영위원으로 위촉  
1985. 12. 31 민속놀이 '태백갈풀설이' 등 12개 사업완료  
1986. 2. 27 제2차 정기총회 개최  
1986. 7. 21 문공부로부터 정관변경허가-부원장제도 신설  
1986. 12. 31 청소년 백일장 및 사생대회등 15개 사업완료  
1987. 2. 24 제3차 정기총회 개최  
1987. 12. 31 창간호 '태백문화지' 발간등 13개 사업완료  
1988. 3. 24 제4차 정기총회 개최  
1988. 8. 16 임시총회 개최-신임원장 장인원 원장 선출  
1988. 12. 31 웅변대회 및 사시랭이 발굴사업등 10개 사업완료  
1989. 3. 24 제5차 정기총회 개최  
1989. 8. 29 문화원원사 이전-구시청별관  
1989. 12. 31 태백문화지및 지게싸움놀이 발굴 등 10개 사업완료  
1990. 3. 6 제6차 정기총회 개최-정관개정  
1990. 6. 13 문화부로부터 90년도 시범문화원으로 선정  
1990. 10. 16 임시총회 개최-부원장 선출(김영훈 이사)  
1990. 12. 31 불우소년소녀가장돕기 통기타콘서트등 14개 사업완료  
1991. 2. 26 제7차 정기총회 개최  
1991. 12. 31 폐광기록사진집 「막장사람들」 발간등 12개 사업완료  
1992. 2. 27 제8차 정기총회 개최  
1992. 12. 31 전국향토음식솜씨자랑대회등 13개 사업완료



1993. 8. 17 제3대 원장으로 우성조씨 취임  
1993. 12. 31 효자비건립등 15개 사업완료  
1994. 4. 18 문화체육부로부터 한국문화학교 태백문화학교 설립인가  
1994. 12. 31 문화학교운영등 16개 사업완료  
1995. 2. 25 제11차 정기총회 개최  
1995. 12. 31 태백문화 제9집발간등 15개 사업완료  
1996. 2. 25 제12차 정기총회 개최  
1996. 10. 25 신축문화원 원사이전  
1996. 12. 9 문화원 준공식  
1996. 12. 31 백일장등 12개 사업완료  
1997. 3. 11 제13차 정기총회 개최  
1997. 12. 31 한강대제등 12개 사업완료



## '97년도 태백문화원 사업현황

사업명	세부사업명	사업기간	장 소	주요내용
향토 교육 사업	제 12 회 백 일 장	97년 5월30일	구 무 소	대상 : 관내 중·고등학생 부문 : 시, 시조, 산문 시상 : 각부문 장원, 차상, 차하, 장려 수상자 : 40명 참가인원 : 170명
문 화 학 교 운 영	도자기 교실	97년 4 - 6월 9 - 11월	태백 문화원	대상및수강인원 : 일반인 30명 강사 : 조미영 수강일시 : 매주 월,화(오전 10:00 - 12:00) 수강내용 : 생활용품제작
	종이접기 교실	97년 4 - 6월 9 - 11월	태백 문화원	대상및수강인원 : 일반인 40명 강사 : 김정수 수강일시 : 매주 수,토 (오전 10:00 - 12:00) 수강내용 : 종이접기, 기초이론 및 고난도실기지도, 강사 자격증 취득
	국악교실	97년 4 - 6월 9 - 11월	태백 문화원	대상및수강인원 : 일반인 35명 강사 : 이숙영 수강일시 : 매주 화,금 (오전 10:00 - 12:00) 수강내용 : 장고지도, 민요지도
	고전무용 교실	97년 4 - 6월 9 - 11월	태백 문화원	대상및수강인원 : 일반인 35명 강사 : 이경옥 수강일시 : 매주 월,목 (오전 10:00 - 12:00) 수강내용 : 민속춤, 고전무용지도
	한문교실	97년 4 - 6월 9 - 11월	태백 문화원	대상및수강인원 : 일반인 30명 강사 : 김강산 수강일시 : 매주 화,금 (오후 13:00 - 15:00) 수강내용 : 명심보감,소학지도
	가요교실	97년 4 - 6월 9 - 11월	태백 문화원	대상및수강인원 : 일반인 100명 강사 : 전인석 수강일시 : 매주 월,목 (오후 13:00 - 15:00) 수강내용 : 건전가요지도



## '97년도 태백문화원 사업현황

사업명	세부사업명	사업기간	장 소	주요내용
문화학교 운영	칠보공예교실	97년 4 - 6월 9 - 11월	태백문화원	대상및수강인원 : 일반인 35명 강사 : 전영숙 수강일시 : 매주 월,목 (오전 10:00 - 12:00) 수강내용 : 생활장신구지도
향토연구사업	향토사료 조사 및 자료발간	97년 1 - 12월	태백문화원	내용 : 내고향 태백 증보 발간 분량 : 230페이지 부수 : 1,000부
	태백문화제11집 발간	97년 12월	태백문화원	내용 : 태백시 관광사업 부수 : 1,000부 분량 : 230페이지
	향토유적지 순례	97년 11월26일	통일 전망대 낙산사	참여인원 : 문화원가족 130명 낙산사일대 유적지 답사
	최초석탄발견지 탐정화사업 및 제막식	97년 7월	금천	금천먹돌배기 근처에 최초석탄발견지탐을 세우고 주변정화
향토행사사업	제 5 회 전국굿대회	97년 10월	종합운동장	대상 : 전국 무속인들 시상 : 대상,최우수,우수,장려 참가자 : 12단체 굿선택 : 12거리굿(시준굿,서낭굿등) 중 한가지 선택
	한강대제	97년 7월19일	검룡소	대상 : 전국 일반시민 출전부문 : 물 많이먹기, 물 빨리먹기 시상 : 1등,2등,3등,4등,특별상 참가자 : 30명
	문화학교 수료생 작품 전시회	97년 7월 97년 12월	황지연못 태백문화원	대상 : 문화학교 수료생 전시작품 : 칠보공예,도자기,종이접기 관람객 : 1,000명



## 이 사 명 단

직위	성명	주소	전화번호		비고
			집	직장	
고문	황윤덕	서울 종로구 부암동 210-13	81-6648		
고문	장인원	태백시 황지3동 자혜의원 원장	52-2795		
원장	우성조	태백시 문곡동 27번지 2/2	81-2714	53-7566	
부원장	박광옥	태백시 황지1동 태백단위농협	52-2743	53-3830	
이사	이용익	태백시 화광동 1/1 장성한의원 원장	81-6424		
	하일호	태백시 황지1동 11-2 경희한의원	52-6244	52-2525	
	전영호	태백시 계산동 198-2 한일기업		81-3144	
	황광현	태백시 황지1동 2-1 강원이동 통신		52-5015	
	정원교	태백시 금천동 8-2		81-7740	
	천명란	태백시 황지1동 태백축협		53-4000	
	황영흠	태백시 황지1동 2-1 강원이동 통신	52-1222 ~ 4		
	주양식	황지동 422 10/4 귀뚜라미보일러		52-4425	
	방병국	태백시 혈동 50번지	52-7138	54-4117	
감사	도한봉	태백시 상장동 황지고등학교		53-6631	
	김해운	태백시 황지1동 11-2 문성사		52-2318	

## 사무국

직위	성명	주소	전화번호		비고
			집	직장	
사무국장	김강산	황지1동 6통 2반	52-9175	53-3161	
간사	이명숙	문곡동 시영A. 106-105	81-3966	53-3161	



## 운 영 위 원 명 단

직위	성명	주소	전화번호		비고
			집	직장	
운영위원	유호명	태백시 황지동 제일생명태백영업국		53-6746	
	김윤대	태백시 황지동 172-2 태백자동차매매상사		53-5300	
	남주수	태백시 교보생명 황지영업소		52-2573	
	최호진	태백시 황지1동 41-21 한국생명		52-1248	
	장영창	태백시 황지1동 11/4 동아생명		52-3641	
	정연준	삼척시 도계읍 전두1리5반 교보생명도계영업소		41-2237	
	하진호	태백시 황지동 제일생명 황지영업소		52-2162	
	고영규	정선군 사북리 653-232 흥국생명	(0398)592-7711		
	홍성일	도계읍 제일생명 도계영업소			
	홍성덕	정선군 고한리 62-74 교보생명	(0398)591-3591		
	장성일	태백시 황지1동 강원일보사	53-4592	52-2881	
	김금시	태백시 화광동 협심연립 304	81-2580		
	전영수	태백시 황지1동 5/3 67-1번지		53-6310	



## 후원위원

성명	주 소	전화번호	비 고
강국창	서울시 양천구 신정동 목동 A. 1331-103	(02)645-4700	재경태백총동문화장
고봉영	경기도 부천시 남구 괴안동 96-4	(031)341-1814	캘코연마(주)사장
고영일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동현 A. 3-406	(02)275-3610	동부건설(주)상무이사
김시영	서울시 동대문구 장안1동 4 19-2	(02)212-7818	진일인쇄대표
김재림	서울시 양천구 신월7동 시 영A. 20-902	(02)719-2997	황일토건(주)사장
서강석	서울시 동작구 신대방동 36 6-246	(02)821-8742	경안전자(주)사장
신동춘	서울시 성동구 옥수동 한남 하이츠 3-102	(02)298-3204	현대칼라(주)부사장
이근태	서울시 송파구 오금동 대림 A. 7-1208	(02)868-4455	(주)남방 영업이사
장무부	서울시 강동구 둔촌1동 주 공A. 104-503	(02)417-5275	재향군인회 운영과장
홍성필	서울시 관악구 신림1동 삼 천리빌라 4-101	(02)679-1460	당산동 분식센터 대표
전춘권	서울시 강서구 화곡2동 155 -36	(02)603-0526	진우전기 사장
홍영치	경북포항시 괴동동 1번지 사서함 36호	(0562)220-0465	포항제철전문교육부장
우용택	경북포항시 괴동동 1번지 사서함 36호	(0331)220-0396	품질관리부검사과장
김창남	서울 용산구 보광동 350-2	(0331)213-0188	유성전자(주)사장
송준강	서울 강남구 대치동 청성A. 3-102	(02)499-6346	삼표레미콘(주)사장
이단화	서울 송파구 송파동 94-11	(02)415-7551	연화유치원 원장
최옥화	서울 서대문구 홍제1동 330-306	(02)737-2708	시릿트대표
이춘자	서울 서초구 반포동 주공A. 319-402	(02)549-2577	국민학교 교감



## 향토사 연구회

성명	주 소	전화번호	비 고
이동현	태백시 황지동9-3	52-3637	
이석필	태백시 상장동 1주공6-206	52-1487	
이재원	태백시 상장동 1주공 5-302	52-7020	
김인수	태백시 황지1동 중앙로 한성통신	52-8229	
오광희	태백시 상장동 7-1	52-4440	
조미영	태백시 황지1동 대운2-506	52-7576	
이상본	태백시 황지1동 11-2 한성지업사	52-2225	
이문근	태백시 상장동 15-2 2주공 208-105	53-7709	
조영호	태백시 장성동 403	81-2879	
정의준	태백시 철암1동 5-7	82-9114	
장화윤	태백시 황지1동 10-1	52-6651	
이성우	태백시 황지1동 우석 105-301	53-0622	
이명진	태백시 황지1동 상수도사업소	52-1360	
정운자	태백시 상장동 1-1	52-3980	
용현주	태백시 장성동 4-5 그린화실	81-2251	
석수덕	태백시 황지2동 10-1	53-1666	
정원범	태백시 황지1동 4-1	52-3248	
김부래	태백시 황지1동 5-6	52-3267	
김준연	태백시 황지3동 2-1	52-2048	



## ■ 태백향토문화연구회

성명	주소	전화번호	비고
장성일	태백시 황지1동 강원일보사	53-4882	회장
조영호	태백시 상장동 244-3 태백시청 산업경제과	50-2354	
신원철	태백시 황지1동 2/2 태백철물	52-5018	
김동수	태백시 황지3동 4/2 273-95	53-3767	
전태균	태백시 상장동 244-3 태백시청 관광교통과	50-2367	
이상출	태백시 상장동244-3 태백시의원사무실	81-6133	
정연수	태백시 태백우체국사서함 4호	53-1477	총무
오광희	태백시 황지1동 육성빌라2층 신동아화재	53-4440	
박한홍	태백시 황지1동 39-75 장식태법무사사무소	53-0792	
홍정임	태백시 황지3동 1/1 터치라인	53-0915	
배해진	태백시 백산동 75-1번지 태백레미콘	53-2855	
최홍조	태백시 문곡동 산28-45 장성여고	81-5654	
황정아	태백시 문곡동 태양빌라 B동 103호	53-6868	
김주영	태백시 장성동 태백경찰서 정보과	81-6113	



## ■ 동문회 회원명단

성명	주 소	전화번호	비고
이 숙 영	태백시 장성동 3/3	81-3226	회장
김 수 진	태백시 황지1동 대운A.3-506	52-3128	부회장
심 관 옥	태백시 화광동9/6	81-3977	부회장
이 재 남	태백시 황지3동 황지연립 A-205	52-3856	감사
진 동 원	정선군 고한읍 고한 12/10	591-7680	감사
박 정 희	태백시 상장동 현대A.104-1102	52-5506	총무
김 경 자	태백시 협심A.5-207	81-3951	홍보부장
김 홍 숙	태백시 상장동 10/2	52-6780	섭외부장
우 분 자	태백시 동점동 2/4	82-7869	기획부장
김 금 자	태백시 상장동 9/2	52-3466	운영위원
조 해 순	태백시 상장동 1주공A. 9동 406호	52-1690	"
전 명 옥	태백시 상장동 17/3	52-9672	"
황 순 옥	태백시 금천동 16/27	81-3208	"
배 금 순	태백시 황지1동 49-208	52-8588	"
김 영 자	태백시 장성동 삼성초등학교관사	81-7654	"
박 광 방	태백시 장성2동 170-107	81-6410	"
김 귀 동	태백시 소도동 10번지 64호	52-4543	"
이 명 재	정선군 고한읍 23리 4반	591-8677	"
이 숙 희	태백시 철암2동 1/2	82-9364	"
백 옥 화	태백시 황지1동 4대림A. 502호	52-7574	"
김 순 달	태백시 황지3동 1/1	52-2522	
홍 순 남	태백시 황지1동 4/4	52-2942	
이 규 복	태백시 황지1동 10/1	52-2772	
송 순 일	태백시 황지2동 1/1	53-3412	
엄 순 자	태백시 장성동 8/7	81-4480	
장 용 숙	태백시 화광동 12/4		



## ■ 동문회 회원명단

성명	주소	전화번호	비고
정순노미	태백시 협심동 협심A. 9-102	81-8921	
정양례	태백시 협심동 협심A. 10-408	81-8168	
김태선	태백시 화광동 8/5	81-3698	
윤수희	태백시 황지1동 11/2	52-2521	
손재학	태백시 황지2동 5/1	52-4889	
전춘절	태백시 상장동 1/2	53-6575	
전영숙	태백시 상장동 시영A.101-403	53-4963	
전영숙	태백시 동점동 1/5	81-6207	
진장규	태백시 철암동 11/7	82-8806	
주순자	태백시 황지1동 3대림A. 305-305	53-4065	
장용숙	태백시 화광동 12/4		
김갑순	태백시 화전1동 4/2	52-4606	
손근주	태백시 장성동 3/6	81-4247	
손영자	태백시 상장동 3/7	52-9650	
김진희	태백시 상장동 7/6	52-5850	
홍정희	태백시 상장동 2주공A. 206-204	52-8350	
권옥선	태백시 철암2동 1/6	82-8040	
유소자	태백시 문곡동 태백빌라 B-102	81-5860	
한부강	태백시 협심동 협심연립 다동 302호	81-7662	
김계향	태백시 상장동 2주공A. 204-101	52-0022	
김옥임	태백시 철암2동 7/1	82-7585	
강연희	태백시 상장동 2주공A. 210-102	53-3127	
김금복	태백시 철암동 1/5	82-8347	
남옥화	태백시 동점동 3/5	82-7584	
손정임	태백시	82-1988	
이연순	태백시	53-4986	
장후례	태백시	52-5042	



## ■ 동문회 회원명단

성명	주소	전화번호	비고
전옥량	태백시 동점동 2/2	82-7931	
박상희	태백시 상장동 2주공 태백건축사	53-7195	
김정희	태백시 계산동A.	81-3169	
김화자	태백시 장성2동	81-6213	
박설희	태백시 협심동 협심 10-101	81-3659	
금옥선	태백시 철암동	82-8511	
김명자	태백시 철암동	82-1871	
황옥분	태백시 철암2동 6반	82-4248	
윤정숙	태백시 소도동 1/6	53-6264	
안경희	태백시 소도동 1/5	52-3577	
김선자	태백시 소도동 9-19	52-4735	
최옥선	태백시 상장동 현대A. 104-404	53-2731	
송남득	태백시 철암2동 남동상가 206	82-1724	
이현희	태백시 철암1동 6/3	82-1189	
김월자	태백시 백산동 87-15	53-6316	
최세선	도계읍 홍전 2/14	41-6697	
최기향	도계읍 홍전A. 6-502	41-0279	
정종성	태백시 철암2동 3/2	82-9529	
최정희	태백시 상장동 7/2	53-5612	
김송지	태백시 황지동	52-1943	
김진숙	도계읍 홍전 2리9반	41-3486	
이복남	태백시 황지1동 11/6	52-3285	
천이화	태백시 황지1동 9/3	017-325-0577	
최성임	태백시 소도동 10-115	52-5013	



## ■ 명심회 회원명단

성명	주소	전화번호	비고
김금자	태백시 상장동 9/2	52-3466	회장
김영자	태백시 장성동 삼성초등학교관사	81-7653	부회장
김수진	태백시 황지1동 대운A. 3-506	52-3128	부회장
오순옥	태백시 상장동 현대A. 103동 1101호	52-1320	총무
이영란	태백시 상장동 연화연립 나-102	53-3121	출석부장
김순달	태백시 황지3동 1통 1반	52-2522	
홍순남	태백시 황지1동 4/4	52-2542	
박정희	태백시 상장동 현대A. 104동 1102호	52-5506	
전영숙	태백시 상장동 시영A. 101동 403호	53-4963	
전영숙	태백시 동점동 1/5	81-6207	
손재학	태백시 황지 2동 5통 1반	52-4889	
박선민	도계읍 전두리 태진A. 나동 505호	41-3330	
윤수희	태백시 황지1동 12/2	52-2521	
이재남	태백시 황지 3동 황지연립 A동 205호	52-3856	
김명래	태백시 황지동 대운A. 2동 405호	52-8954	
이복순	태백시 상장동 현대A. 102동 1003호	53-3711	
김옥순	태백시 동점동 7/1	82-1494	
전옥랑	태백시 동점동 2/2	82-7931	
김순자	태백시 장성동	81-8633	
지옥자	태백시 문곡동 광원A. 202동 301호	81-6915	
안숙자	태백시 황지1동 4대림A. 706호	52-6738	
유소자	태백시 문곡동 태양빌라 B동 102호	81-5860	
김효순	태백시 황지 1동 윤림연립 202호	53-3378	
이규복	태백시 황지 1동 10/1	52-2772	
김순남	태백시 동점동 동점A. 9동 201호	82-1354	
김숙자	태백시 동점동 동점A 7동 107호	82-8767	
김계향	태백시 상장동 2주공A. 204동 101호	52-0022	



## ■ 명심회 회원명단

성명	주소	전화번호	비고
황병조	태백시 협심동 협심A. 10동 306호	81-5432	
고경숙	태백시 문곡동 1/2 27-8번지	81-8506	
권길자	태백시 상장동 6/2	52-5509	
서남술	태백시 상장동 1/7	52-2844	
채명자	태백시 연화동 한보A. 314동 103호	54-3765	
이영실	도계읍 홍전3리 8반 주공A. 1동 203호	41-3769	
최종애	도계읍 홍전 2리 9반	41-3769	
윤수금	태백시 상장동 7/8	52-2694	
임명자	도계읍 전두1리 1반	41-8055	
김경자	태백시 협심동 협심A. 5동 207호	81-3951	
양금자	태백시 상장동 6/6	52-4227	
홍정희	태백시 상장동 2주공A. 209동 204호	52-8390	
정옥순	태백시 연화동 한보2단지 11동 104호	54-3462	
김두연	태백시 황지3동 1/2	52-2367	
김점순	태백시 상장동 현대A. 102동 205호	52-4063	
정연순	태백시 상장동 1주공A. 2동 105호	53-6093	
김현미	태백시 상장동 120-9번지 철도A. 202	52-8625	
김해정	태백시 상장동 2주공A. 202동 201호	52-8237	
김금자	태백시 상장동 10/1	52-8758	
윤용숙	태백시 상장동 현대A. 101-504	53-1379	
백옥화	태백시 황지1동 4대림A. 502호	52-7574	
김홍숙	태백시 상장동 10/2	52-6780	
탁옥희	태백시 동점동 양지연립 나-202	82-8043	
최미숙	태백시 소도동 함태A. 가-510	52-8816	
이복녀	태백시 황지1동 대운A. 2-306	52-8027	
정화숙	태백시 상장동 현대A. 103-103	53-2958	
신정자	태백시 소도동 7/1	52-7167	
이병란	태백시 상장동 현대A. 103-1203	52-5195	
김주일	태백시 황지동	52-6214	



## ■ 칠보사랑회 명단

성명	주소	전화번호	비고
전영숙	태백시 상장동 시영A 101-403	53-4963	
강봉녀	태백시 황지1동 황중관사 1-306	52-2917	
박복남	태백시 황지1동 7/2	82-4098	
오경란	태백시 황지2동 8/4	53-2309	
이영란	태백시 상장동 연화연립 나-102	53-3121	
조경자	태백시 상장동 현대A 103-701	52-4834	
진진순	태백시 황지2동 368-12 시민연립 가-201	53-7462	
하청화	태백시 상장동 황지초등학교관사 나-105	52-7925	
박미숙	태백시 상장동 현대A 102-1203	52-0887	
정광숙	태백시 황지1동 대운A 2-401	53-5717	
한문자	태백시 상장동 공무원A 가-402	52-9764	
이금순	태백시 황지1동 한양연립 A-103	53-7341	
박희숙	태백시 썬타운오피 롯데햄	53-3465	
배금순	태백시 황지1동 49-208	52-8588	
박광방	태백시 장성2동 170-107	81-6410	
장금자	태백시 상장동 주공A 204-103	53-0469	
강태숙	태백시 상사미동 287	53-4876	
박경심	태백시 상장동 우남연립 202호	52-4434	
박영옥	태백시 황지1동 16/6	53-5926	
김복화	태백시 황지1동 9/6	52-8812	
신갑순	태백시 장성동 태고관사 B동 102	81-4573	
정혜란	태백시 장성1동 근영연립 다-105	81-2014	
박종숙	태백시 상장동 현대A 104-204	52-9346	
이석재	태백시 황지동 우남연립 103호	53-2422	
장경조	태백시 황지동 95-22 우남연립 102호	53-6015	
박선희	태백시 황지동 18/8	53-6461	
권순희	태백시 장성동 3/2	81-5831	
정순덕	태백시 장성동 태고관사 B동 206호	81-3149	
김미연	태백시 장성동 3/2	81-2189	



## ■ 태지회 회원명단

성명	주소	전화번호	비고
진진순	태백시 상장동 2주공A 204동 501호	53-7462	회장
김형순	태백시 상장동 현대A 104동 502호	53-5565	총무
이석재	태백시 황지동 우남연립 103호	53-2422	감사
이춘실	태백시 장성동 협심A 7동 107호	81-7320	회계
이미경	태백시 상장동 2주공A 202동 103호	52-3710	
김정자	태백시 상장동 현대A 104동 501호	52-9941	
이경남	태백시 연화동 동방연립 가동 303호	54-3927	
정혜란	태백시 장성동 48번지 근영연립 다동 105호	81-2014	
김해순	태백시 상장동 2주공A 207동 207호	53-3263	
손미숙	태백시 황지1동 6통 2반	53-0363	
박순남	태백시 상장동 체신A 301호	53-3134	
이향숙	태백시 상장동 17/5 광원A 2동 301호	53-5819	
한미순	태백시 황지1동 7통 4반	52-4555	
정순란	태백시 장성2동 1통 4반 170-137	81-3713	
홍미예	태백시 상장동 현대A 101동 903호	52-8979	
장경조	태백시 황지동 우남연립 102호	53-6015	
김우옥	정선군 고한읍 중앙A 5동 403호	591-6134	
박춘자	태백시 소도동 삼신A 405호	52-8982	
강원단	태백시 소도동 삼신A 303호	52-5721	
이숙임	태백시 문곡동 시영A 106동 209호	81-5925	
이혜정	태백시 장성동 89번지 6/3	81-6912	
김성숙	태백시 상장동 1주공A 7동 102호	52-4714	
최은정	태백시 상장동 한전사택 301호	52-2256	
강양순	태백시 상장동 현대A 103동 201호	53-6949	
양미숙	태백시 상장동 1주공A 7동 207호	52-8407	
최명규	태백시 상장동 현대A 102동 305호	53-2475	
김영아	태백시 상장동 궁전A B동 115호	53-7034	
박미숙	태백시 장성동 협심A 1동 301호	81-7553	
남인순	태백시 장성1동 근영연립 가동 103호	81-4241	
서환선	태백시 황지1동 궁전A B동 216호	52-7696	
김숙향	태백시 상장동 2주공A 211동 310호	53-2013	
백막동	태백시 황지2동 산174/2	53-2659	
이인자	태백시 황지2동 5통1반	52-4889	



## ■ 통나무리듬회

성명	주소	전화번호	비고
김명숙	태백시 상장동 2주공A. 201-401	52-3619	
김혜경	태백시 상장동 함태A. 나-307	53-1612	
김진희	태백시 상장동 7통6반	52-5850	
김형지	태백시 상장동 1주공 9-505	58-6879	
김순복	태백시 상장동 2주공 201-308	52-9121	
김귀옥	태백시 문곡동 3/3	81-2146	
이민옥	태백시 상장동 202-406	53-0848	
김종남	태백시 황지1동 5/2	53-0976	
신온순	태백시 상장동 1주공 6동 401호	52-9981	
신순이	태백시 장성동 문화A 101-101	81-0146	
안귀옥	태백시 계산동 간부A 2동 301호	81-7140	
장옥희	태백시 협심동 협심A 11-405	81-8790	







---

## 太白文化 (11집)

발행일:단군기원 4331년 2월 28일

발행인:우                      성                      조

편집인:김                      강                      산

발행처:태      백      문      화      원

인쇄처:대      성      문      화      출      판      사

전 화 : 6 5 1 - 2 1 2 1 · 4 3 5 4

등 록 : 1993년 8월 20일 제3호

---

■본지는 국비와 지방비 일부보조로 발간함.



